

수 원 학 연 구 2009 제 6 호

수원학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간행사



| 은 수 길 |
수원학연구소장

기축년의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더듬어봅니다. 수원 문화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 새롭고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숨어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기 위해 수원학연구를 발간한지 여섯 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원전통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자료인 수원학 6호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해동안 자료수집, 논문발표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위원장 김동욱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수원문화원 유병헌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원학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부설로써 지역문화예술분야의 자료수집, 분석 및 정책의 발전방안을 발굴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한 수원의 전통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왕조실록초 현릉원자료집』과 『정조와 화성관련 주요 자료집』1·2권을 발간하여 정조의 기록유산보존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료총서사업으로 일제시대 언론관련 기사조사, 수원의 대중음악 조사 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기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수원학연구 6호는 정기학술세미나와 지역문화발전방안 논문 등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특히 수원의 역사를 전제로 한 문화컨텐츠가 관광자원으로 접목이 되도록 하는 내용들을 발굴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수원학연구는 열매가 익어가는 작은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역의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널리 보급하여

시민들이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는 멋진 내용으로 수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수원학 6호의 발간으로 아름다운 수원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원학연구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원학연구에 매진하여 수원지역 전통문화의 기반을 굳게 다짐으로써 후세에 진정한 아름다움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원학연구 6호를 발간하기까지 원고작성과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원학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고 수원학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 유병현 |
수원문화원장

계절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수원학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 성과인 『수원학연구』가 올해로 6호 째를 맞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수원학연구』가 간행 되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만이 넘쳐납니다. 또한 이때까지 지나친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본연의 삶과 문화는 몇몇 노인만의 전유물 처럼 날로 잊혀져 가고 있는 가운데, 문화원에서 우리 전통을 되새기고 문화를 재정립하는 연구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발전해 왔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외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형적 즉, 수원시만의 문화예술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써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수원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때 『수원학연구』 책자의 발간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일깨움이요, 이와 관련된 수원의 문화·역사 등 여러 분야의 밀도 있는 논의들은 시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문화의 근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의 문화를 사랑해서 시작한 ‘수원학연구’. 이 표제는 그 자체로써 우리들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제는 곧 얼굴이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수원학연구』는 사라져가는 수원 문화의 보존을 위한 조사, 계발, 전승을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것을 발전적으로 키워나가는데 우리들의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6호가 발간 될 시점이지만 앞으로 끊이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이러한 취지의 책들이 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가운데 우리 수원의 것이 본보기가 되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남들이 나에게 비추어 보고서 스스로의 진면목을 찾도록 해주는 거울이 되어야만 우리의 『수원학연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모든 관계자들에게 무한한 격려를 드립니다.



간행사 • 은수길 (수원학연구소장) 5

격려사 • 유병헌 (수원문화원장) 7

특집 : 문화에서 산업으로

- 『월행을묘정리의괘』를 통한 궁중 음식의 현대화와 상품화전략 • 김명희 11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용건릉의 문화컨텐츠 개발과 관광활성화 • 한숙영 39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통한 전통무예 계승과 관광자원화 • 김준혁 55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 심승구 73

일반논문

- 정조의 효사상과 효 콘텐츠 개발 연구 • 임형진 89
정조의 기호남인 사상 포용과 화성 건설 • 상대영 113
〈華城府城操圖〉의 자료적 가치 • 김태완 135
1940년대 수원 출신 학생 독립운동가 金容稔 • 박환 157
경기지역 농사품이의 양상과 의미 • 최자운 181

〈 회 보 〉

-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199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204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207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통한 궁중 음식의 현대화와 상품화전략

김 명 희 (경기대학교)

-
- | | |
|--------------|-------------------------|
| 머리말 | 4. 전통음식의 콘텐츠 개발 및 문화 연계 |
| 1. 원행을묘정리의궤 | 5. 한국음식의 상품화전략 |
| 2. 한국음식의 정의 | 맺음말 |
| 3. 한국음식의 현대화 | |
-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정조(22대)의 현릉원 행차시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조 후기의 궁중음식을 고찰하고, 이 소중한 기록인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한국음식의 현대화와 상품화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생활의 기본은 의, 식, 주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식생활은 인간의 기본적,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물론 자연과 문화를 구별하여 문화적 존재의 위치를 명확하게 한다.¹⁾ 그러므로 식생활문화를 역사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생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한 나라의 전통음식문화 의식은 그 민족이 처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특성에 의하여 형성되고 전승되어 왔다.²⁾

1) 아광규, 「레비스트로스」, 대한기독교서회, 1973, 72쪽.

2) 윤서석, 「전통적 생활의식의 연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2, 225쪽.

그러나 식생활 자체에 대한 기록을 회피하는 경향³⁾으로 인한 식경(食經)의 부족은 식생활문화에 관한 자료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실학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조리사가 저술되는 17세기 이전까지는 의서, 농서, 기행문, 시문집 등에서 조리나 식품에 관한 기록이 보이며 또한 궁중의 의례를 기록한 의궤류가 있을 뿐이다.

‘의궤’란 옛날에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후세에 참고로 하기 위해 그 일의 경과나 대책 따위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을 말한다. 그 중에서 연회(宴會)기록인 진찬의궤(進饌儀軌), 진연의궤(進宴儀軌) 안에 잔치의 준비과정, 차려진 상차림과 올린 음식의 재료와 분량, 의식의 순서에 따라 내놓은 음식의 내용 등이 상세히 쓰여 있다. 연회는 왕과 왕비의 생신, 회갑, 세자 책봉 등 왕실의 경사 때, 그리고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거행하였다. 왕족께는 진어상을 올리고, 친척·신하 그리고 여령과 군인 등 참가자 전원에게 상차림의 규모를 달리하여 사찬상을 내린다.

본 연구의 자료인 ‘월행음묘정리의궤’는 정조가 모친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소인 현릉원을 참배하러 행차(1795) 할 때의 8일간의 일정을 기록한 궁중의궤이다.⁴⁾ 특히 이 책은 궁중 연회의 기록과 함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궁중 일상식의 상차림⁵⁾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므로 한국음식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정조는 을묘년(1795)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잔치를 위한 수원행차에 따른 예비 논의, 경비 준비, 진행 과정 등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했음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물은 수권 1책, 본책 5권 5책, 부편 4권 2책 등 8책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서적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풍부한 기록 내용은 왕실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해 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과거의 문화유산 중 각종 음식과 옷, 그림, 조각, 기물, 용품, 노래, 춤, 의식 등 각 부문 별로 당시의 최고 수준을 반영하고 있던 궁중문화를 이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궁중의 무형문화재 중 기능으로 만들어진 궁중유물들은 남겨져 후세사람들이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음식은 만들어도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먹어버리니 원형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궁중무용이나 음악 등은 의궤에 그림으로

3) 허균, 「도문대작」, 서문.

4) 수원시, 「월행음묘정리의궤」, 수원시, 1996.

5) 황혜성, 「대한민속대전」, 고대출판부, 1980, 528쪽.

그려져 있어 복원이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인 음식 만들기는 그림이나 글로 남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때였기에 어느 누구도 궁중음식의 실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다.⁶⁾ 그러나 ‘궁중음식’의 실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해도 잔치기록인 『진연의궤』, 『진찬의궤』와 『음식발기』 등에 상차림의 종류, 음식명, 재료와 분량이 나오고, 담은 그릇과 상, 그리고 조리기구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앞으로 궁중음식의 연구는 무형의 문화유산 발굴이나 마찬가지로 하겠다. 무형의 유산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의 궁중음식이 현대인에게 뜻하는 바를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⁷⁾

음식과 문화는 국가와 문화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동경과 함께 그 자체가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⁸⁾ 또한 국가의 음식문화는 고유한 문화로서 함께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함께하는 한국음식은 다양한 재료와 양념으로 이루어진 가장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음식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융합한다면 세계화의 잠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음식문화 세계화와 상품화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음식문화 확산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식의 세계화와 현대화를 위해 학계와 정부, 업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외식산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두되는 여러 사회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음식문화를 점점으로 모든 관계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 차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행음묘정리의궤’를 통해 제4권 찬품(饌品)편을 고찰한 뒤 한국음식이 갖고 있는 건강 지향적 개념과 음식 이외의 전통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융합시켜 한국음식의 현대화와 상품화 전략 수립에

6) 한복려, 『조선왕조궁중음식』, 월간 문화재사랑.

7) 한복려, 상계서.

8) 이민아, 『한식의 세계화 전략』, 식품과학과 산업, 2008.

9) Olsen MD, West J, Tse EC, 『Strategic manage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 Pearson Prentice Hall, NJ, 2008.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 원행을묘정리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정조임금의 주도 하에 진행된 을묘년 수원행차의 모든 것을 기록 한 것이다. 정조 (19년)는 어머니(1735-1815, 혜경궁 홍씨)과 아버지 (1735-1762, 사도세자)의 회갑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자궁(慈宮)을 위한 잔치를 화성행궁에서 베풀고자 화성의 현릉원(顯隆園)에 행차 하였을 때의 배경과 그 경위 절차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왕궁(王宮)을 출발하여 (음력 2월 9일), 환궁(음력2월 16일)하기까지 8일간에 걸친 식단에 나오는 음식의 종류와 그 분량까지 기록한 권4의 ‘찬품(饌品)’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료의 구성과 조리와의 관계 그리고 신분 별 상차림을 고찰하여 1700년대의 상차림을 규명하여 한국음식의 현대화에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행로 중에 궁중의 수라간이 이동하면서 마련한 행행식(行幸食)이다. 일상식으로 반수라, 죽수라, 미음과 반과상이 나오고, 연회식으로 봉수당 진찬연과 양로연의 찬품들이 적혀 있다.

이 행사의 주인공인 자궁뿐이 아니라 대전·군주 및 궁인, 내빈, 외빈, 신하들에게 제공된 찬품도 기록되어 있다. 혜경궁 홍씨에게 8일간에 올려진 상차림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자궁(혜경궁 홍씨)에게 올려진 8일간의 상차림 내용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노량참	조다소반과	시흥참	조수라		죽수라	화성참	조수라
"	조수라	사근참	주수라		조수라	"	주다소반과
시흥참	주다소반과	화성참	주다소반과	화성참	주다소반과	"	석수라
"	석수라	"	석수라		석수라	"	야다소반과
"	야다소반과	"	야다소반과		야다소반과	원소참	주다소반과
"						"	주수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화성참	죽수라	화성참	죽수라	화성참	조수라	시흥참 노량참 "	조수라 주수라 주다소반과 석수라 야다소반과
	조다소반과		조수라	사근참	주수라		
	진찬		주다소반과	"	주다소반과		
	조수라		석수라	시흥참	석수라		
	만다소반과		야다소반과	"	야다소반과		
	석수라						
	야다소반과						

대체로 죽수라(粥水刺)는 11, 13, 14일 아침에만 드셨는데 이것은 9, 10일은 궁에서부터 화성으로 오는 여행길이었고, 12일은 원소행이었고, 15, 16일은 화성에서 궁으로 향한 환궁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수라(粥水刺)가 들어 있는 11, 13일(진찬일이기도 함), 14일은, 평상시에 궁에서 일상식을 잡수신 것이고, 9, 10, 12, 15일은 여행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해서 올린 상차림으로서, 미음(米飮)이 죽수라(粥水刺)와는 달리 9, 10, 12, 15, 16일에 올려졌던 것은 이 때문이다. 미음은 여행에서 지친 몸울 보살펴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올려진 음식이다.

미음(米飮)은 자궁과 군주에게만 올려 졌는데 출궁이나 회란 시에 각 참에 들 때와 종로에서 당량이 서리와 숙수를 거느리고 미음을 가져와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자궁 및 군주의 가마가 도착하면 봉진하였으며 내용은 언제나 미음 1기, 고음 1기, 정과 1기였다.

원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상식

(1) 내빈의 일상식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 나타난 내빈의 일상식은 그 당시의 상류층 귀족의 일상식이다. 궁중의 일상식에서 죽수라에 해당하는 것이 조죽(朝粥)이고, 조수라(朝水라), 주수라(晝水刺) 석수라(夕水刺)에 해당하는 것이 조반(朝飯), 주반(晝飯), 석반(夕飯)이며 반과(飯果)에 해당하는 것이 주찬(晝饌)과 야찬(夜饌)이

다<표 2>.

〈표 2〉 내빈 일상식의 차림

상차림	일시	주식	찬품	상	기명
조죽 (각 5기)	윤 2월 11~15일	죽	조치, 적, 좌반, 침채, 장	흑칠 족반	"
조반·석반 (각 7기)	윤 2월 11~15일(조) 윤 2월 10~14일(석)	반	탕, 조치, 적, 해, 좌반, 침채, 장	"	"
주찬 (각 5기)	윤 2월 10~14일	국수	탕, 병, 실과, 어전유화, 꿀, 초장	"	"
야찬 (각 4기)	윤 2월 10~14일	국수	탕, 실과, 편육, 초장	"	"

(2) 외빈 및 신하들의 일상식

외빈을 비롯한 정 3품의 통정대부 이상의 관직을 지칭하는 당상부터 실무책임을 맡은 낭청, 실무를 집행하는 서리, 서사, 고직까지를 포함하다. 내빈에게는 독상으로 차려던 것에 반해 이들은 대우판(大隅板)이나 소우판에 겸상 또는 독상으로 차리고 있으며 조반(朝飯), 주반(晝飯), 석반(夕飯)으로 구성된다. 같은 원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직위에 따라 상차림이 독상이기도 하며 찬수가 차이가 난다<표3>.

수행원들의 음식은 직책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다. 먼저 30명의 궁인(宮人)들은 큰 놋그릇에 음식을 담아 함께 먹도록 하였는데, 반(밥) 3합(盒), 갱(국)3합, 적(炙)30꽃이 제공되었다. 내빈(여자친척)은 밥 1그릇, 찬 1그릇, 조치 1그릇, 찬 3그릇, 침채(김치) 1그릇, 장 1그릇이 담긴 상 하나를 받았다. 5명의 외빈(남자친척)은 밥 5그릇, 탕 5그릇, 찬 1그릇, 침채 1그릇, 장 1그릇이 담긴 상을 받았다.

정리소의 당상 6명과 낭청 2명, 각신 3명, 장용영 제조 1명, 도총관 1명은 각기 밥 1그릇, 탕 1그릇, 찬 1그릇, 침채 1그릇, 장 1그릇을 각각 받았다. 내외책응(內外策應) 감관(監官) 2명과 검서관(檢書官)2명, 각리(閣吏)2명은 각기 밥 1그릇, 탕 1그릇을 각각 받았다.

별수가장관(別隨駕將官)20명은 밥 2행담(行擔), 탕 2동이, 침채 2항(缸)을 받아 나누어 먹었다. 정리소 장교 11명은 밥 1행담, 탕 1동이를 받았다. 정리소 서리(書吏) 16명과 서사(書寫) 1명, 고직(庫直)2명은 밥 2행담, 탕 1동이를 받았다. 이러한

메뉴는 다른 곳에서도 대체로 같았다.

〈표 3〉 외빈 및 신하들의 일상식 차림

대상	일시	상차림	주식	찬품	상	기명
외빈 5원	윤 2월 9, 16일	조반 주반 석반	반 5기	탕 5기 찬 1기 침채 1기 장 1기	대우판	반·갱: 유기 찬: 자기
추도외빈 9원	윤 2월 10~14일(석) 윤 2월 11~15일(조) 윤 2월 11~14일(석)	조반 주반 석반	반 1기	탕 1기	소우판 (독상)	유기
본소 당상 6원 낭청 2원 각신 3원 장용영제조 1원 도총관 1원	윤 2월 9, 16일	조반 주반 석반	반 1기	탕 1기 찬 1기 침채 1기 장 1기	소우판	반·갱: 유기 찬: 자기
내외책응감관 2원 검서관 2원 각리 2인	윤 2월 9, 16일	조반 주반 석반	반 1기	탕 1기	소우판	
별수가장관 20원	윤 2월 9, 16일	조반 주반 석반	반 2행 (飯2行)	담탕(談湯) 2동이 침채 2항(缸)		
본소장교 11원	윤 2월 9, 16일	조반 주반 석반	반 1행	담탕 1동이		
본소서리 16인 서사 1인 고지기(庫直) 3명	윤 2월 9, 16일	조반 주반 석반	반 2행	담탕 1동이		

(3) 궁인의 일상식

각 관아의 문서를 관장했던 아전인 서리(書吏)에서부터 궁인(宮人)을 칭하며 10인분 정도씩을 한 그릇에 담아 나누어 먹는 형태이다(표 4, 5).

〈표 4〉 궁인의 일상식 차림

대상	일시	상차림	주식	찬품	상	기명
궁인 30인	윤 2월 9 16일	조반 주반 석반	반 3합	갱 3합 채 3합 적 30곳	대우판	유합
서리 16인 서사(書寫) 1인 고지기 3명	윤 2월 9, 16일	조반 주반 석반	반 2행	담탕 1동이		

〈표 5〉 기타 궁인의 일상식 차림

대상	일시	상차림	주식	찬
연부	윤 2월 10, 14일(석)	조반		담탕 12동이(東海)
통장	윤 2월 11~15일(조)	주반	반 3행	찬 3쟁반(鎗盤)
석거청	윤 2월 11~14일(주)	석반		침채 1항
여령·악공	윤 2월 12일(석) 윤 2월 13, 14일 윤 2월 15일(조)	조반 주반 석반	반 3행	담탕 2동이 찬 2쟁반

2) 진찬(進饌)

(1) 자궁의 연상

◎ 자궁진어찬안

: 70기, 자기, 흑칠족반에 차려졌다. 70기 중 22기는 1자5치(45cm)를 고였으며 나머지 음식은 1자4촌~4촌까지, 고일 수 없거나 국물이 있는 음식은 고임의 높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 자궁소별미상

: 17기에 차렸으며, 진어찬안에 비해서 음식의 가짓수도 적고 고임의 높이도 낮다.

이 두상에 사용된 상화는 모두 42개로 대수파련, 중수파련, 소수파련, 삼색목단

화, 월계, 사계홍도별삼지화, 홍도건화, 홍도간화 등이며, 이 상화의 그림은 '정리의궤' 권수에 그려져 있다.

(2) 대전의 연상

◎ 대전진어찬안

: 20기, 자기, 흑칠족반에 차려졌다. 정조와 군주에게는 같은 음식이 차려졌는데 음식의 가짓수나 고임의 높이가 자궁인 혜경궁 홍씨의 상보다 적게 또는 낮게 차려졌음을 알 수 있다<표 6>.

◎ 대전소별미상

: 9기에 차려졌으며, 상화는 대전에게 26개, 군주에게 23개가 각각 쓰였다 <표 7>.

<표 6> 대전진어찬안의 찬품 목록

대상	대전(정조), 청연군주, 청신군주		
일시	윤 2월 13일		
기물, 그릇수	20기, 자기, 흑칠족반		
찬품	재료	高	상화
1	각색병 ① 백미병 백미2두, 점미5승, 흑두1두, 대조4승, 실생률4승 ② 점미병 점미1두5승, 녹두6승, 대조2승, 실생률2승, 건시2곳 ③ 삭병 점미8승, 흑두3승, 대조1승5합, 실생률1승5합, 청1승5합, 계피말1량5전 ④ 밀설기 백미3승, 점미1승5합, 대조1승5합, 실생률1승, 청1승, 건시1곳, 실백자2합 ⑤ 석이병 백미3승, 점미1승, 청1승, 석이5승, 대조1승5합, 실생률1승5합, 건시1곳, 실백자1합5작 ⑥ 각색절병 백미3승, 연지반완, 치자7분, 애3합, 감태1량 ⑦ 각색조약 점미3승, 진유3승, 흑두1승, 숙률1승, 실임자1승, 송고5편, 치자2전, 애3합, 감태1량, 청8합, 실백자1합 ⑧ 각색사증병 점미3승, 진유3승, 청8합, 신감초말2합, 실백자1합 ⑨ 각색단자병 점미3승, 석이1승, 대조1승5합, 숙률1승5합, 애3합, 실백자3합, 청8합, 계피말2전, 건강말1전	8촌	○

2	약반	점미4승, 대조6승, 실생물6승, 진유6합, 청1승2합, 실백자2합, 간장1합		
3	면	목말3승, 녹말5합, 간장5합, 생치2각, 우심육3량, 계란5개, 호초말2작		
4	대약과 (150입)	진말2두3승, 청9승2합, 진유9승2합, 실백자8합, 계피말2전, 호초말1전5분, 건강말6분, 실임자1합, 사당1원	8촌	○
5	각색다식 각색연사과	점미8승, 진유4승, 실백자1승6합, 세건반3승2합, 지초4량, 백당2편, 갈분3승, 황률3승, 송화3승, 흑임자3승, 청3승, 연지1완, 오미자2합	4촌	○
6	각색강정	점미1두, 세건반6승, 진유6승, 실임자3승, 흑임자3승, 실백자3승, 송화2승, 백당3승, 청1승, 지초6량	8촌	○
7	민강	민강15근	7촌	○
8	굴병	굴병220개	7촌	○
9	유자, 석류	유자15개, 석류15개		○
10	생이	생이30개		○
11	준시	준시258개	6촌	○
12	생물	실생물1두8승		○
13	각색정과	생강1두3승, 목과10개, 연근반숙, 두충2승, 산사2승, 동과1편, 생이7개, 길경1단, 유자6개, 감자6개, 연지1완, 치자1량, 산사고2편, 청5승	5촌	○
14	수정과	석류2개, 유자2개, 생리3개, 청5합, 실백자1합		
15	금중탕	진계3수, 황육4량, 저육4량, 해삼4개, 계란5개, 청근5개, 전복3개, 박고지1토리, 다사마2립, 청과2개, 표고1합5작, 진말1합5작, 호초말5작, 간장1합		
16	완자탕	청근5개, 해삼5개, 계란5개, 진계2수, 황육4량, 간4량, 저육4량, 전복3개, 곤자손2부, 청과2개, 녹말1합, 표고1합, 호초말5작, 간장1합		
17	편육	저육16편		○
18	절육	황대구7미, 건대구7미, 홍어4미, 사어4미, 광어6미, 문어2미, 전복4꽃, 엽포4첩, 추복3첩, 오적어3척, 건치3수	6촌	○
19	각색전유화	수어6미, 생치4수, 계란85개, 진유4승, 목말4승5합, 진말3승, 엽2합5작	8촌	○
20	어회	수어5미, 노어1미	6촌	
	청	청7합		
	초장	간장4합, 초3합		
	개자	개자7합		

〈표 7〉 소별미상의 찬품 목록

대상	대전(정조), 청연군주, 청신군주			
일시	윤 2월 13일			
기물, 그릇수	9기, 자기, 흑칠족반			
찬품	재료	高	상화	
1	미음	백미1승, 대조2승, 청2합		
2	각색병		5촌	○
	① 삭병	점미4승, 흑두1승6합, 숙울1승, 대조1승, 계피말5전, 청6합		
	② 각색절병	백미3승, 연지반완, 치자1전, 애3합, 감태3전, 진유3작		
	③ 건시조약병	점미3승, 건시4꽃, 흑두2승, 계피말3전, 청5합, 진유1승		
3	침채만두	백미2승, 목말7합, 송침채1약, 생치2각, 황옥2량, 저육2량, 태포2우, 실백자2작, 진유5작, 간장1합5작		○
4	다식과/만두과	진말5승, 대조1승, 황울1승, 건시1꽃, 청2승, 진유2승, 실백자3합, 건강말7분, 호초말7분, 계피말2전, 사탕반원	5촌	○
5	대조/생률	대조2승, 실생률4승, 실백자1합		○
6	각색정과	연근5분, 생강2편, 산사2편, 감자3개, 목과3개, 유자2개, 생이2개, 동과3편, 두충1승, 청1승	3촌	
7	별잡탕	진계2각, 황옥2량, 양2량, 저포2량2량, 곤자손1부, 수어반미, 계란5개, 전복1개, 청근1개, 청과1개, 해삼2개, 두골반부, 박고지1약, 진유5합, 녹말3합, 표고2작, 실백자2작, 호초말1작, 간장2합		
8	열구자탕	생치2각, 진계2각, 수어반미, 황옥3량, 곤자손1부, 요골반부, 저육2량, 우설2량, 양2량, 저포2량, 계란15개, 전복2개, 청근2개, 청과2개, 추복3조, 해삼3개, 표고1합, 진유6합, 녹말3합, 생충1단, 수근반단, 고사리1약, 박고지1약, 길경1약, 황률5작, 대조5작, 실백자5작, 간장2합		
9	저포	저포5부		○
	청	청2합		
	초장	간장7작, 초장3작		

(3) 제신의 연상

내빈에게는 11종의 음식과 8개의 상화(床花)가 들어있는 상을 15개, 여러 신하들에게는 지위에 따라 30개의 상상(上床), 100개의 중상(中床), 150개의 하상(下床)이 준비되었다. 상상에는 11종의 음식(내빈상과 같음)과 8개의 상화(내빈과 같음)

가, 중상에는 8종의 음식과 4개의 상화가 하상에는 6종의 음식과 4개의 상화가 제공되었다.

〈표 8〉 진찬 때의 내·외빈 및 제신 이하의 연상

찬품	대상	내·외빈	제신상상	제신중상	제신하상
	그릇수	15상, 11기	30상, 11기	100상, 8기	150상, 6기
병		각색병	각색병	각색병	각색병
유밀과		소약과	소약과	소약과	
강정		각색강정	각색강정	각색강정	
요화과		각색요화	각색요화		각색요화
과일		배·대추·밤/준시	배·대추·밤/준시	준시·배	건시·대추·밤
면		국수	국수	국수	국수
탕		잡탕	잡탕	잡탕	잡탕
절육		절육	절육		
전		어전유화·저육족병	어전유화·저육족병	어전유화·저육족병	
적		화양적	화양적	화양적	화양적
청		꿀	꿀	꿀	꿀
장		초장	초장	초장	초장

(4) 기타

각 영의 장관, 군병 7,716명에게는 떡 2개, 탕, 건대구 1편을 주었다.

(5) 양로연 상

양로연은 혜경궁의 회갑연을 마친 다음 날 잔치의 의미를 새기고자 화성의 노인과 한양에서부터 동행한 노인 관료를 위로하기 위해 왕이 베푼 경로잔치이다. 80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많고 61세 노인은 2명이었다.

노인상은 425상으로 4개의 자기에 음식을 담고 뉴반(싸리로 만든상)에 올렸다. 왕도 노인의 음식은 같은 수와 같은 음식이었으며 상은 주철운족반이었다(붉은 칠의 구름무늬가 있는 상)〈표 9〉. 치아가 좋지 않은 노인을 위한 것이라 부드럽고 무르며 소화에 좋게 조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양로연 상의 어상과 노인상 찬품

대상	그릇 수	찬품
정조	1상, 4기	두포탕, 편육, 검은콩찜(黑太蒸),
참연노인	425상, 4기	실과(배·곶감·밤)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찬품은 왕과 혜경궁 그리고 수행한 신하들이 행차 중에 먹은 음식내용이다.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와 수량 음식의 높이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상차림의 끝부분에는 어떤 꽃, 몇 개를 상화로 썼는지도 기록되어 있다.

궁중의 식문화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며, 행차에 초대 받은 내빈·외빈·참연노인과 수행원들의 생활사도 들여다 볼 수 있다.

2. 한국음식의 정의

강인희(1990)¹⁰⁾에 의한 ‘한국의 전통음식은 대략 1세가 이전부터 한국의 일상생활, 궁중의식, 통과례, 세시풍속 등을 통한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을 지니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전승되어 현존하는 음식으로서 한국인의 식생활에 유익하도록 합리적으로 보존, 육성해오는 음식으로 정의 되었고 2008년 농림수산 식품부에 의한’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서 한국 식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산업화가 가능한 음식까지 그 정의 및 범위가 다양하다.

최근 한식에 대한 정의는 식재료와 조리방법의 전통을 유지하는 측면과 한식의 고유성을 갖고면서도 시대에 맞게 발전, 계승되어 온 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의 크게 두 가지로 정리 될 수 있으며, 최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통성과 함께 현지적용, 발전 가능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개념으로 그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¹¹⁾.

10) 강인희, 『한국의 맛』,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11) 이민아, 전계서, 2009.

3. 한국음식의 현대화

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 건강, 다이어트, 자연환경의 보호, 동물학대, 다양성, 이국적인 맛과 환상, 건강식, 장수식, 채식주의에 대한 우려가 민족음식을 선호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¹²⁾ 특히 서구의 주류사회들의 아시아 음식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요리와 타이요리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서양요리도 아시아적인 방향으로 접근해가고 있다.¹³⁾

(Guy Sorman : 프랑스)은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내세울 만한 한국적 이미지 상품이 없는 문화의 위기라고 했고, 미래학자 (Alvin Toffler : 미국)는 한국음식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인지도와 호감도를 증진시켜 국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고 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맛과 질에서 우수하다고 국내외적으로 알려 졌지만 그동안 국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음식시대주의' 라고 명명 될 만큼 서구식에 치중하여¹⁴⁾ 전통음식에 대한 영양학적인 분석, 맛의 연구, 조리법의 표준화 같은 작업은 뒷전으로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음식은 서양음식과 달리 여러 가지 메뉴를 함께 섭취 함으로써 고유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부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가 많아 이를 얼마나 현대 감각에 맞는 모습으로 재창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식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음식의 맛, 식재료 메뉴구성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력의 경우 내·외부적으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맛이 좋은 음식,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 국에서 다양하게 유입되고 융합 된 음식들이 여러 가지의 조리방법과 식재료를 통해 상품화되고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한식은 타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를 고려하며, 세계 음식 트렌드, 국가별 선호도, 음식 문화 등 한식의 현대화와 연계한 한국음식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인 김치, 불고기 등은 높은 영양가와 독특한 맛으로 이미

12) 나정기(2008), 「한식당의 현지화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경영학회, 11(1), 307~336쪽.

13) 사카키바라에이스키, 전제서, 2007.

14) 유경희, 「한국음식의 세계화 전망」, 『울산과학대학연구논문집』, 29(1), 2002, 158쪽.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급 요리로 성장하였다. 전통음식은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지혜가 녹아있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통음식의 현대화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음식의 현대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독특한 고유문화는 분명 세계화에 있어 매우 높은 가치가 있으나, 반면에 우리의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외국인에게는 자극적이거나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서구적인 문화를 결합시켜 보다 순화시킴으로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음식문화전파에 있어 역사와 관련한 음식이야기, 식생활사 등 이를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된다.

4. 전통음식의 콘텐츠 개발 및 문화 연계

나정기(2007)¹⁵⁾에 의하면 한국음식을 지역적 특성과 기호에 맞게 현지화, 퓨전화, 간편식화 하는 세계화 아이템개발, 향토음식, 궁중음식, 약선음식, 사찰음식, 일상음식 등의 전통적인 콘텐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식은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등 식재료가 풍부하며, 식사구성 측면에서 다양성, 균형성, 절제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¹⁶⁾ 이러한 한식의 특성은 채식주의자들을 타깃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개발이 필요하며, 한식의 상품화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개발은 필요하다.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발달한 궁중음식 문화는 전국 각 고을에서 올라온 온갖 진귀하고 질 좋은 재료들이 모였고, 조리 기술이 뛰어난 주방 상궁들과 대령숙수들이 대대로 그 솜씨를 후손에게 전했기 때문에 궁중음식은 한국 음식의 정수(精髓)라고 일컬어진다. 한편 궁중에서는 국가적 행사나 외국 사신의 방문, 왕족의 탄신일 및 가례 때마다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연회음식이 유난히 발달했다. 궁중 잔치나 의례 때 차리는 고임상차림과 예법들은 민가에 전해져 혼례나 회갑 등 민가의 잔치에도 영향을 미쳤고, 의례중심의 상차림이 발달하여 음식과 관련된 예절을 중시하여 문화적으로 우수하며, 이러한 한식의 문화와 연계한 상품화 가능성은 세계화 경

15) 나정기,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10(2), 2007, 155-179쪽.

16) 김재수, 「한국음식의 국제화 방안」,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 22(5), 2005, 499-507쪽.

쟁요소로 판단된다.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에 베풀어진 음식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색채미, 그리고 조화미는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이다. 한국음식은 약식동원(藥食同源)에서도 나타나듯이 역사적으로 약의 효능을 가지며, 마늘, 생강, 대추, 은행, 황기, 잣, 호도 등의 음식재료가 약재성분을 보유하고 있다.¹⁷⁾ 그러므로 한국음식이 갖고 있는 건강지향적 개념과 이에 따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음식에 담아야 하며, 이것은 이야기와 연계되어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관심유도와 나아가 직접 구매로 이어지면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가치가 클 것이다.

5. 한국음식의 상품화전략

한식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음식의 재료, 음식의 만드는 방법, 음식명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 문화콘텐츠와 연관지어 WOM(World of Mouth)의 소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본다.¹⁸⁾ 본 연구에서 고찰한 '원행을 묘정리 의궤' 나타난 음식문화소재를 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한식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궁중음식, 향토음식 등 전통음식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일반인 및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상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한국의 전통음식에 관한 역사, 정보를 발굴 또는 개발하여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쉽게 한식에 대해 접하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문화공연, 문화재, 음식관광상품 등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인 한식의 재료와 양념에 대한 지나친 고집보다는 한식의 맛과 멋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서 흔히 이용되는 식재료를 응용해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 음식의 상품화 전략의 하나로 선택한 스토리텔링은 음식에 얽힌 배경을 이

17) 최준석, 정혜경, 『한국인에게 맞는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4.

18) 한국식품연구원, 「한식마케팅 모형 개발 연구」, 2008, 190-193쪽.

이야기로 만들어 문화와 역사를 담은 한국의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내국인에게도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일깨워 주며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마케팅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에 관한 마케팅 및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스토리텔링 마케팅

롤프 옌센(Jensen 2000)은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를 예고하며 21세기는 흥미 있는 이야기가 담긴 감성적 관광 상품개발이 관건이 되며 이는 꿈을 파는 사회로 상품 속에 꿈과 감성을 담은 스토리를 팔아야 하는 것이다. 지역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이미지나 전통 등 스토리텔링화 한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의 실현방법으로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Buitoni 2007). 꿈은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story’, ‘tell’, ‘ing’의 세 요소로 구성된 단어로 이야기와 말하는 것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야기(story)는 인간의 문화, 예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tell’은 말한다는 의미외에 시각은 물론 심지어 촉각이나 후각 같은 다른 감각들까지 포함한다. 특히 구연자와 청취자가 같은 맥락 속에 포함됨으로써 구연되는 현재 상황이 강조된다.¹⁹⁾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간적 특수성에 고유의 요리방법과 역사, 문화적인 배경과 이야기를 포함하며 이러한 특성들은 신기성(novelty)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흥미와 선택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느끼는 스토리 경험을 통해 교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영화, 드라마, 만화,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 기념품,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되어 음식도 상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음식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장소자산의 정체성이란 인간 환경 속에 존재하는 개체나 집단이 본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향인데 역사정체성,

19) 최혜실,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 미디어, 2007.

문화정체성, 경관정체성, 산업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형을묘정리의궤를 통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현대에 맞게 재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 된다. 역사 정체성에는 역사, 인물, 유적이 문화정체성은 문화, 미술, 음악, 음식이 경관정체성에는 자연, 건축, 환경, 체험이 산업정체성에는 관광, 첨단산업, 전통산업으로 이들 요소는 조선시대의 장소적, 문화적, 풍토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상을 심기에 적합하며 특히 식(食)은 더 효과가 큰 매개체가 될 수 있다.²⁰⁾²¹⁾²²⁾

스토리텔링은 분야별로 변형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임에는 틀림없으며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지와 관광객이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관광객의 체험과 추억의 관리를 통해 관광객, 관광지, 지역주민이 공동의 감성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³⁾

또한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분야를 소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어려웠던 역사, 전통, 문화, 설화 등을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재미있게 가공하여 원재료와 소비자의 연결을 원활하게 한다.

Choi & Lim(2008) 연구에 의하면 스토리발굴, 스토리 연출, 스토리체험, 스토리 공유의 4단계로 전개하였다. 스토리 발굴은 '원형을묘정리의궤'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성과 인물등에 대한 이야기를 도출한다. 스토리연출은 발굴한 스토리로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의 메뉴를 결정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 할 수 있도록 시각적, 미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스토리체험은 궁중의궤에 나온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시각, 미각, 청각 등을 활용해 음식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거나 듣는 것이 포함된다. 스토리 공유는 스토리를 체험한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구전이나 인터넷매체, 인쇄매체 등을 활용해 잠재고객들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다.²⁴⁾ 이러한 4단계를 거쳐 '원형을묘정리의

20) 유영준, 2006.

21) 김형국, 2002.

22) 김열규, 2005.

23) 한국관광공사, 2005.

24) Choi IH, Lim EM, 「The place marketing using storytelling an exploratory research」, Journal of Tourism Science, 32(4), 2008.

궤』에 대한 스토리가 확산되고 재 공유되는 현상이 발생되리라 사료된다.

최근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가공하여 광고 등에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만드는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성공전략을 살펴본다.

최근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마케팅이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효과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현황과 성공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야기로 승부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가공, 포장하여 광고, 판촉 등에 활용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상품 개발 과정 등 브랜드와 관련된 실제 스토리를 여과 없이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신화, 소설, 게임 등에 나오는 스토리를 원용하여 가공하거나 패러디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드라마 이야기, 연예가 소식, 정치인 이야기, 향간에 떠도는 소문 등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상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평범한 목걸이 보다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착용했던 이야기가 있는 목걸이를 더 좋아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 브랜드를 멋진 스토리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효과적이다. 흥미 있는 이야기가 담긴 상품은 단순히 우수한 품질이나 디자인을 가진 제품보다 더욱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에 대한 기능을 따분하게 늘어놓기보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꿈꾸는 바를 흥미 있는 이야기를 통해 부드럽게 풀어 가면 고객에게 다가가기 더욱 쉽다. 미국 주방용품 업체인 윌리엄 소노마는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 요리기구와 그릇 등 제품별로 장인, 역사, 캐릭터 등을 테마로 한 브랜드 스토리를 광고 및 판촉 활동에 활용하여 화제 화시킴으로써 인기를 모으고 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상품 차별화에 매우 유용하다. 온갖 노력 끝에 개발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이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브

랜드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만의 차별화 요소를 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브랜드가 가지는 이야기를 통해 경쟁 브랜드와 다른 아우라(고유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스타벅스는 커피 매장을 집, 직장에 이어 이야기가 있는 제 3의 공간으로 만들고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까지 승화시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 성공 포인트

소비자의 구매 요인이 제품의 기능 중심에서 감성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이해하고 호감을 갖게 만드는 감성적인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다.

단편적인 일회성 스토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스토리 창출을 통해서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미국 인형회사 아메리칸 걸은 새로운 인형을 선보일 때마다 그에 맞는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이에 맞춰 다양한 옷, 인형 등을 계속 구매하게끔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일종의 시리즈물로 나오는 브랜드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문화에 직접 빠져들어야 한다. 타겟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해야 소비자와 교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스토리텔링을 비단 마케팅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해볼 수 있다

2) Marketing Mix인7P's (열구자탕)

따라서, 한식의 위상을 높이고 상품화 전략 구축을 통해 우선적으로 한식에 대한 맛을 소비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Marketing Mix인7P's 각 요소에 대해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타난 신선로(열구자탕)을 7P's에 적용하여 상품화 전략의 예시를 들어보았다.

〈한국음식 신선로(열구자탕)의 상품화 전략〉

7P's	전략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메뉴개발: 한국음식의 전통과 맛 보존 • 맛 : 고기육수와 채소, 어류가 어우러져 담백한 맛을 내며 각각의 재료에서 우리나라는 재료들의 맛의 조화 • 효과 : 어육과 채소가 어우러져 영양학적으로 우수함 (성인병 예방과 건강식임)
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인력과정에 영어를 포함하여 세계인에게 의사소통에 문제없는 서비스 제공
P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음식의 가치 증대를 할수 있도록 역사적 문화유산과 연계
Promo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마케팅과 감성 마케팅을 연계하여 진행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행궁내의 전문적인 전통음식교육기관을 세움
Physical Evi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식문화 홍보지 'AgraFood' 매월 발간 : 영어, 일본어판, 190여개국에 연간 4만부 배포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음식을 통화 관광상품 연계

3) 한국의 문화상품 개발

(1) 문화 코드 개발 및 확산

- 음식과 함께 식기, 소품, 인테리어 등 한식당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한계 판매함으로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놀부집의 경우 가야금, 창 등의 공연과 함께 실제로 엿을 파는 엿장수, 월매 등 한국적 캐릭터를 통해 외국인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인기 끌고 있다.

(2) 한국 음식에 사용되는 요리기구, 그릇 등에 대한 홍보

한국 음식은 온도에 따라 맛이 민감한 만큼 '적온' 그릇에 대한 소개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선로의 소개와 함께 신선로를 담아내는 그릇에 대한 소개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의 음식문화를 소개한다.

다음 그림은 일본에서 비빔밥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돌솥이며 이 상품 안에는 관련된 나무 받침대, 수저, 전용집게 등이 패키지로 함께 판매되고 있음.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빔밥용 돌솥'



(3) 음식과 관련된 속담, 관용어 등 스토리 발굴

우리나라의 문화와 한국음식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아지노모토의 Cook Do Korea 사이트에서 한국의 반상기 문화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릇의 경우 남자는 몸체가 직선형이고 밑 부분이 약간 좁은 것을 사용하며 여자는 윗부분 보다 밑이 넓어지는 등근 곡선형 그릇을 사용한다. 속담과 관련하여 보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 눈칫밥을 얻어먹는 신세를 지칭할 때 서양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표현하지만 한국에선 ‘찬밥신세’로 표현한다.

음식과 함께 음식에 담긴 좋은 뜻을 소개하는 ‘떡담 마케팅’을 시행하는데 첫째로 한국 전통음식의 기초가 되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은 약물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뜻으로 ‘입으로 먹는 음식은 몸에 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 백세주(百歲酒)는 백세까지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셋째로 백설기에는 ‘100명이 나누어 먹으면 명이 길어진다. 는 의미가 있고 떡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실이나 쌀 등 아기의 장수와 부귀를 축원하는 답례품을 주는 것이 관례이다. 마지막으로 ‘소를 넣은 송편’은 소가 꼭 찬 송편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음식 소개와 더불어 재미있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

《한국 음식의 상품화 및 현지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그렇다면 한국음식의 세계화와 상품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5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1단계 : 글로벌라이징.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문화나 식습관을 모두 제로 상태에서 놓고 현지인의 입장에서 한국적인 것들을 재구성해야 한다. 단품 메뉴화, 메뉴의 코스화, 표준화 등을 실행 해야 한다.

2. 2단계 : 웰빙, 신 오리엔탈리즘, 발효적 요소, 영양학적 우수성, 칼로리 낮은, 건강에 좋은, 신비주의 강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음식과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양음식과 한국음식의 신비로움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또한 김치, 장류, 젓갈, 후식류(식혜, 떡, 한과, 정과)등의 우수성을 과학적용 입증한다. 그리고 곡류가 주식인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강조하여 건강식이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식단임을 강조한다.

3. 3단계 : 세련화 및 정교화, 그들이 원하는 동경하는 동양적 이미지 구사.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정교화 한다. 현지인 조사를 통하여 선호도를 분석하고, 우수한 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4단계 : 성장 확장 및 한국적 이미지로의 개편.

네번째 단계는 현지인들에게 익숙해진 한국음식 문화를 좀더 한국적인 이미지로 개편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음식으로서의 차별화의 도입이 필요한 단계이다.

5. 5단계 : heavy user 를 위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시도 및 차별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한국음식이 보급되었을 때 한국적인 메뉴와 문화를 접목시켜 다른 민족음식과의 차별화를 주는 단계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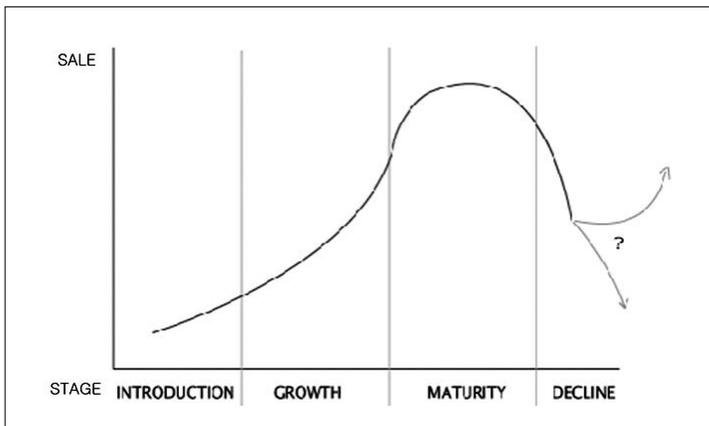
이러한 다섯가지 단계는 처음에는 외국인들 하여금 거부감을 없애 한국음식을 첫경험 하게 하고, 두번째 단계는 그들로 하여금 신비감을 유발하여 한국 음식을

즐거게끔 한다. 세번째로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마케팅적 요소를 가미하여 확산시킨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적인 요소의 도입을 통하여 또다른 관심 유도가 필요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한국적 특색을 입혀서 heavy user에게 차별화 및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제공하여 한국음식에 심취할 수 있도록 한다.

《Product Life Cycle(제품 수명 주기)》

이는 product life cycle과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도입기에 초기 수용자들을 한국 음식으로 유도하고, 성장기에 개선점을 보강하여 판매를 늘림과 동시에 시장을 확대하고 성숙기에서는 차별화를 시도하여 쇠퇴기로 진입되기 전에 다른 시장을 개척하고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음식은 일종의 문화이다. 외래문화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흡수된다. 음식문화의 경우에도 우리의 것을 글로벌한 세계의 음식으로 전파시키려면 점진적이고 친근하게 글로벌화 시켜야 한다. 그랬을 때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애용되는 한국의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최근 세계적으로 신 오리엔탈리즘(Neo Orientalism)으로 서양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아시아의 식탁은 신비감뿐 아니라, 21세기의 화두인 건강, 웰빙, 기름지지 않은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맛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유럽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광우병이나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곡물이나 채식, 건강식, 장수식, 이국적인 맛의 환상, 발효 위주의 동양음식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신 오리엔탈리즘(Neo Orientalism):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선(禪)·요가(yoga), 크리슈나 숭배운동 등에 의한 탄트리즘(Tantrism)·도교(道敎)·역경(易經)등 동양에서 기원된 종교나 사상에 대한 관심 및 이것들을 바탕으로 실천운동의 총칭). 이것은 2007년 NRA가 American Culinary Federation의 조리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 한다. 특히 서구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아시아 음식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서양음식도 아시아적 요인을 함께 포함하여 개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⁵⁾

따라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한식의 마케팅 모델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궁중의궤’ 드러난 소재의 내용을 가지고 전통음식의 콘텐츠개발 및 문화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으로 한국음식의 상품화전략을 제시하였다.

음식과 그 문화는 국가와 문화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유산의 의미도 갖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동경과 함께 그 자체가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각 국가의 지역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관광 자원들 가운데 관광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이며, 또한 관광지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역시 음식이라 할 수 있다.²⁶⁾ 그러므로 음식과 문화는 국가와 문화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으로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국가의 음식문화 또한 고유한 문화로서 함께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25) 사카키바라에이스키, 『식탁밧의 경제학』, 이콘출판, 2007.

26) 원용희, 『세계의 음식문화』, 자작나무, 1999.

‘원행음묘정리의궤’ 제4권 찬품(饌品)은 문자 그대로 왕과 혜경궁, 그리고 수행한 신하들이 행차 중에 먹은 음식메뉴이다. 여기서는 노량참에서 시작하여 시흥참, 사근참, 화성참, 진찬(회갑잔치), 원소참(현릉원)의 순서로 음식메뉴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먹은 음식을 다시 날짜와 시간별로 나누어 아침 간식인 조다소반과, 정식 아침식사인 조수라, 낮간식인 주다소반과, 정식점심인 주수라, 정식 저녁인 석수라, 밤간식인 야다소반과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있다. 이 문서의 기록이 놀라운 것은 음식의 종류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와 수량, 그리고 음식의 높이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찬품의 기록은 그 분량이 68쪽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찬품 끝에는 어떤 꽃 몇 개를 상화(床花)로 썼는지 기록되어 있다.²⁷⁾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함께하는 한국음식은 다양한 재료와 양념으로 이루어진 가장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음식이 갖고 있는 건강 지향적 개념과 음식 이외의 전통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융합한다면 세계화의 잠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음식문화 세계화와 상품화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음식문화 확산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무형의 유산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궁중음식’이 세계인이 공유 가능한 음식문화로서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가치를 찾아 볼 수 있다. 근년에 세계적으로 웰빙(Well-Being)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행음묘정리의궤」제 4권 찬품(饌品)에 나타난 음식메뉴는 독자적 음식문화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자연 친화적 건강기능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궁중음식에는 모든 먹을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 몸에 약이 된다는 약식동원사상과 음양오행의 우주 원리가 조화롭게 담겨있다. 둘째, 제철의 채소와 어패류·수조육류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리법으로 음식의 종류가 매우 많다. 셋째, 한 가지 음식에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복합적으로 쓰고, 천연 조미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영양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맛이 매우 다양하다. 넷째, 약리효과가 큰 마늘·생강·고추·후추 등의 양념과 인삼·대추·계피·감초 등의 한약재를 일상

27)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사, 1998, 110쪽.

음식에 사용한다. 다섯째, 참기름·들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적정히 사용한 저 열량의 건강음식이다. 여섯째, 영양과 기능성이 우수한 김치와 된장·간장·고추장 등의 장류와 젓갈 등 발효식품이 발달되어 있는 자연친화적 슬로푸드이다. 일곱째, 오미와 오색의 조화를 이루어 맛이 좋고, 보기에 모양이 아름답다. 여덟째, 재료를 채 썰고, 다져서 정성 들여 만드는 조리법은 소화 흡수를 잘되게 하는 건강 조리법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앞으로의 문화경쟁시대에 더욱 주목하여야 할 분야로 한국 음식문화의 과학적이고 미학적인 전통을 강조해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 가야 되겠다. 또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야 되겠다. 『원행을묘정리의궤』기록의 희소성과 역사성을 간파한 유네스코에서는 즉각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올렸다. 세계인류가 지키고 아껴야 할 귀중한 문화재라는 사실을 인증 받은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은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게 뇌둔다면 아무리 기록으로 남아 있어도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는 없다.

이처럼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타난 궁중음식 연구와 재현을 통해 종합예술문화로 복원이 될 때 위대한 무형의 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재창조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강인희, 『한국의 맛』,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김재수, 『한국음식의 국제화 방안』,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 22(5), 2005.
나정기(2008), 한식당의 현지화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경영학회, 11(1).
나정기,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0(2), 2007.
사카키바라에이스키, 『식탁밀의 경제학』, 이콘출판, 2007.
아광규, 『레비스트로스』, 대한기독교서회, 1973.
원용희, 『세계의 음식문화』, 자작나무, 1999.
『원행을묘정리의궤』, 수원시, 1996.

- 윤서석, 「전통적 생활의식의 연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2.
- 이민아, 「한식의 세계화 전략」, 식품과학과 산업, 2008.
- 최준석, 정혜경, 「한국인에게 밝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4.
- 최혜실,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 미디어, 2007.
- 한국식품연구원, 「한식마케팅 모형 개발 연구」, 2008.
- 한복려, 「조선왕조궁중음식」, 월간문화재사랑.
-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사, 1998.
- 허균, 「도문대작」, 서문.
- 황혜성, 「대한민속대전」, 고대출판부, 1980.
- Choi IH, Lim EM, 「The place marketing using storytelling an exploratory research」, Journal of Tourism Science, 32(4), 2008.
- Olsen MD, West J, Tse EC, 「Strategic manage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 Pearson Prentice Hall, NJ, 2008.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용건릉의 문화컨텐츠 개발과 관광활성화

한 숙 영 (세종사이버대학교)

-
- | | |
|-----------------|----------------------|
| 머리말 | 2.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의 |
| 1. 세계문화유산과 그 기준 | 문화컨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
| | 맺음말 |
-

머리말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가입한 이래, 2009년 11월 현재까지 8건의 문화유산과 1건의 자연유산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등재된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와 1997년 21차 세계유산회의에서 등재된 창덕궁, 수원시 화성, 2000년에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들이 그것들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2009년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6월 30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등재된 조선 왕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에 새로 등재된 조선 왕릉과 기존의 세계문화유산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과 2009년 등재된 용건릉은 각각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니 만큼 이를 적절하여 연계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기에 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원 화성과 조선 왕릉인 용건릉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 속에서 개발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지역주민과 외지인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시각에서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컨텐츠는 무엇인가?’ 를 인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들 중 어떤 것을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이 충족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컨텐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세계문화유산과 그 기준

1) 세계문화유산과 OUV 기준

세계 각국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본부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서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후 OUV로 표기함)’ 기준들 중 한 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세계유산제도를 총괄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각각의 유산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OUV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그 유산이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OUV의 기준은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것이 6개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에 관한 것이 4개이다. 이 기준들 중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OUV 기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OUV 기준(세계문화유산)

i	<p>사람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p>
ii	<p>오랜 시간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디자인 발전에 관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a landscape design.</p>
iii	<p>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p>
iv	<p>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s) in human history.</p>
v	<p>문화(복수의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사람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f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p>

vi	<p>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p>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f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p>
----	---

문화재청(2005).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매뉴얼

위에서 밝힌 OUV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킨 연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한 유산은 각각의 OUV 기준에 관한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전 및 관리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각각의 OUV 기준에 필요한 완전성과 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해야 하는 세계유산본부의 지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OUV 기준별 완전성과 진정성 적용 시 참고사항

OUV 기준	완전성	진정성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유산의 창의적 디자인이 완전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함. ● 물리적 상태가 건전하고 비교적 퇴락의 압력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유산의 물리적 조직이 그 디자인 혹은 기술 혁신적 특질을 온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함.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유산의 디자인 혹은 사상적인 영향 혹은 교류가 완전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영향 혹은 교류된 디자인의 명확한 특성에 대한 입증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된 문명을 고증해야 하는 고고학적 대상지의 경우엔 완전성의 조건에 대한 입증은 해당 유산의 규모와 관련 있음. ● 문화경관의 경우 살아있는 문화적 전통의 영속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체계적 지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 유물을 포함한 장소나 고고학적 대상지와와의 관계를 통해 해당 유산이 가리키는 역사의 물질적 증거가 진실하고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입증 ● 문화경관의 경우 초지 사용과 관련한 문화적 전통의 진실성을 입증

<p>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조직의 상태가 건강하고 비교적 퇴락의 압력이 없어야 하며 해상유산의 유형학적 가치들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역사경관 혹은 문화경관의 경우 건물적 구성이나 이와 관련된 공간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기능적인 형성과정 또한 입증되어야 함. ● 보다 넓은 맥락에서 해당 유산의 가치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즉 해상 유산의 경계와 버퍼존의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디자인, 주위환경, 사용, 전통과 같은 특성들이 해당 유산의 유형학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어야 함.
<p>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취약하다는 상태에 대한 입증과 동시에 퇴락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증명해야 함. ● 해당 유산의 사회 기능적, 물질 구조적, 가치적 측면과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그 관계들이 OUV를 전달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 환경, 재료와 형태에서부터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 이르는 속성들이 어떻게 해당 유산의 유형학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지 입증
<p>v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된 물리적 속성의 완전성과 '손상되지 않음'이 평가될 수 없을 시 완전성의 입증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유산의 물리적 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유산에서 정의된 전통, 신앙, 개념들의 진실성을 입증

박소현(2008). 하회·양동 마을의 세계유산적 가치, 페이지 14-15에서 재구성

2)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과 OUV 기준

세계유산본부가 제시한 OUV 기준 중 1997년 등재된 수원시 화성은 기준 (ii)와 (iii)을(WHC, 1997), 2009년 등재된 화성시 용건릉을 비롯한 조선 왕릉은 기준 (iii), (iv), (vi)을 충족한 것(ICOMOS-KOREA, 2009)으로 입증되었다.<표 3>

표 3. 수원 화성과 화성 읍건릉의 OUV 충족 기준

	OUV 기준	화성	읍건릉
i	사람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ii	오랜 시간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디자인 발전에 관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v	문화(복수의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사람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조선 왕릉 세계문화유산 신청 시 세계유산본부에 제시한 OUV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ICOMOS-KOREA, 2009).

유교와 동아시아 철학을 근간으로 한 왕릉의 발달(Development of royal tombs under Confucianism and East Asia philosophies)

자연을 존중하는 독특한 장례문화(Unique funeral culture respecting nature)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 건축과 기록의 전통(Construction and record-keeping traditions reflection important phases in human history)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 전통의 전승(Continuity of the Confucian tradition of ancestral worship)

수원 화성의 경우에는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갖춘 실용적인 구조로 축성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곽 축조의 모

든 과정을 일일이 기록한 화성성역의례가 있어서 그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가 수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원 화성이 매우 발달된 동서양의 기술을 서로 통합한 초기 근대 군사 건축물의 훌륭한 사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WHC, 1997)

2.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의 문화컨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문화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화적 요소에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그리고 역사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문콘텐츠학회, 2006)이라고 한다면,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에서 개발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로는 풍수사상, 효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사상, 궁중 음식, 영조-사도세자-정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풍부한 이야기 등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논고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즉 문화컨텐츠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이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이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씩 들고자 한다.

1)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을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화유산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 소재를 발굴하

여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을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옛날 프랑스 궁에서 살고 있던 왕족들이 입었던 옷을 입어 본다거나, 혹은 그들이 즐겨먹었던 음식을 맛본다든지 하는 행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가이드를 통하여 그 궁에 얽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다시 한 번 베르사이유 궁전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과 우리나라 수원 화성 및 화성 용건릉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곳인 반면에 우리나라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은 우리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장소가 아닌가?¹⁾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한류의 중심에 서있는 드라마와 문화유산을 설명해 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를 통하여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공해 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1)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라(드라마를 활용하라)

드라마 속에는 이미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산’이라는 드라마에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 그리고 정조시대의 문화, 효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사상 등 많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뿐 만 아니라 감동들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이야기 힌트를 조금만 주어도 스스로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을 그들의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1)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219명에게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결과, 수원 화성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171명(78%)이었으나, 화성 용건릉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약 10% 정도인 22명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화성 용건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불과 3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 1〉 드라마 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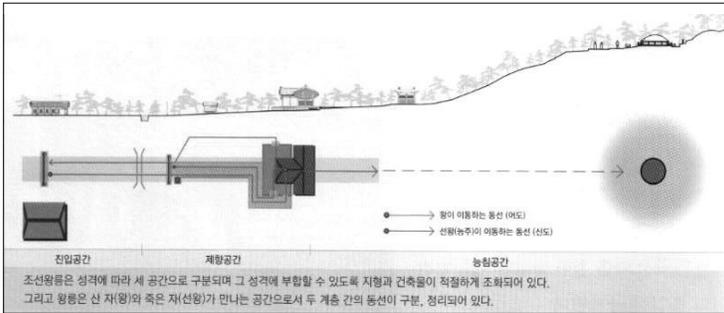


출처: <http://www.imbc.com/broad/tv/drama/isan/>

용건릉과 같은 조선 왕릉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왕릉은 죽은 자가 머물며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성역이라는 개념아래 성과 속, 신분이라는 유교적 이념상의 위계질서가 반영되도록 능력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능력은 크게 진입(속세)—제향(성역과 속세 만나는 곳)—능침(성역)의 세 공간으로 나뉜다.(〈그림 2〉 참조) 특히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공간인 제향 공간에는 두 계층 간의 동선이 신도와 어도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능력 자체가 자연 환경의 일부라 생각하도록 전통적인 풍수사상에 따른, 능력의 자연 친화적인 조형 방식은 같은 동양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다.(문화재청, 2009)

실제 용건릉을 방문해 보면 용건릉은 어쩌면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 역사이야기 중심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설명도 제향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용건릉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건릉이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공간으로 즉 문화컨텐츠가 풍부한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먼저 속세의 공간인 진입공간부터 성역의 공간인 능침 공간에 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용건릉 방문객들은 마치 그들이 그 곳에서 속세에서 성역까지 이르게 되는 체화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조선 왕릉의 능역 공간 배치



출처: 문화재청(2009).

(2) 연출하라(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하라)

문화유산해설사는 이미 우리나라 문화재 시설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유산해설사가 모두가 다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따분하기 그지없는 해설들도 많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설들의 대부분은 문화유산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재미와 감동을 더하지 못한 지식 전달 위주의 해설에 불과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에 담겨있는 이야기 소재들을 드라마와 같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개개인의 스토리텔링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문화유산해설사들 개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지속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의 고성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그 곳 해설사들이 허리에 차고 나오는 열쇠꾸러미를 기억할 것이다. 사실 고성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열쇠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곳 해설사들은 많이 열쇠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나오므로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시청각적 재미와 감동을 연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해설사도 단순히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

나서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특성에 맞는 연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방문객들에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체험을 제공하라

마지막으로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을 방문한 사람들이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을 단순히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중 하나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온 ‘완전성’ 이니만큼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에서의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사이버 공간, 즉 컴퓨터 키오스크를 활용한 간접적인 체험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키오스크는 설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단말기로 멀티미디어스테이션(multimedia station) 혹은 셀프서비스스테이션(self-service st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치는 입력 방법이 대부분 터치스크린 방식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PC나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방문객의 연령대나 교육수준이 다양한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 방문객들의 체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장치이다.

〈그림 3〉 멀티미디어 스테이션(multimedia station)



출처: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

헤드폰, 슬라이드나 필름, 그리고 컴퓨터 키오스크 이외에 방문객들의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근 많이 사용되는 테크놀로지 장치가 바로 스마트 테이블이다. 스마트 테이블은 대략 성인 방문객의 허리 정도의 높이의 50cm 평면 터치스크린 컴퓨터 모니터이다. 이 테이블은 서있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두 개의 유선 헤드폰을 포함하는데 이 헤드폰을 통하여 방문자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 스마트 테이블은 여러 디지털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있어서 방문객들은 터치스크린 화면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에 있는 유산들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었다. 체험하고자 하는 문화유산의 단순한 평면 이미지가 아닌 입체감이 살아있는 3차원 동영상을 보여 줌으로써 실제 방문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구보경, 2007).

〈그림 4〉 스마트 테이블



출처: http://www.metro-city.co.kr/advertisement/pop_01.html

또한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을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의 하나는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다.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학교 교육,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서울 및 경기 지역신문을 통하여 홍보하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 입구 근처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즉 지역신문을 통하여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고, 방문한 후에는 홍보관을 통하여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지식을 전달받고 그 곳을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현대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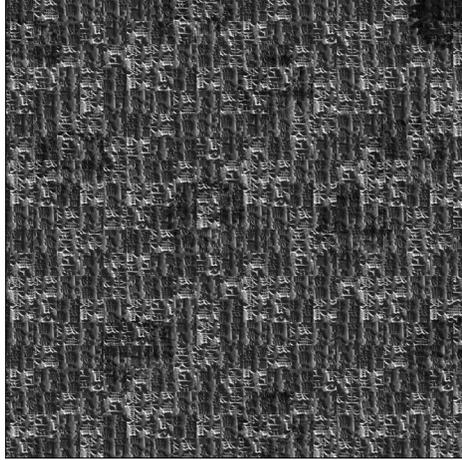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이 아무리 가치 있는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 모두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컨텐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

(1) 현대에 맞게 재현하거나 재해석하라 : 공모전을 활용하자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을 현대에 맞게 재현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에 깃들여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재현하는 일은 이미 수원 화성의 여러 행사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일은 현대 예술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모전의 산물로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에 대한 질 높은 관광 기념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 예술 작가들 중에는 이미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김시은(2009)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조형적 미에 관심을 갖고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5> 참조) 그녀는 이 작품에서 팔만대장경의 이미지를 디지털화 한 해바라기와 조합함으로써 외적으로부터 침략당한 아픔의 역사를 현대적인 조형미로 재탄생시켰다.

〈그림 5〉 Tripitaka Koreana



김시은(2009).

또한 현대미술작가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현대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외에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미디어, 즉 드라마,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등으로 변환함으로써 현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주민과 소통하라

세계문화유산 보존 대상으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 주변의 지역주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우선 수원 화성이나 화성 용건릉은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조선 왕릉이 가지고 있는 풍수사상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기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원의 화성, 화성의 용건릉은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 등과 같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은 세계문화유산의 숨결이 있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가

배여 있는 관광지 그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특히 화성 용건릉의 경우, 화성 태안 3지구에 진행 중인 택지개발 지구에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옥 마을 내에 정조 테마파크나 궁중 의·식·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관련 관광자원을 클러스터링 하라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용하라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뿐만 아니라 용주사를 비롯한 관련 관광자원을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수원 화성 주변을 연결하는 관광 루트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뿐만 아니라 용주사를 연결하는 약 14km의 관광루트, 즉 정조대왕의 효행 길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화성 8경인 용건릉(용건 백설), 용주사(용주범종), 제부도(제부모세), 궁평항(궁평낙조), 남양향라, 입파도(입파홍암),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제암만세), 남양성모성지 그리고 공룡알 화석지를 연결하는 관광루트의 개발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관광 루트는 기존의 관광버스를 이용한 길 이외에 자전거 길이나 도보 길과 함께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저탄소 녹색관광에도 부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수원역을 출발지점으로 하는 국내 관광객 중심의 관광형태 개발도 가능하다.

(2)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마케팅을 하라(엄서호, 2009)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이 세계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화성 사이트와 화성시청 사이트 간의 링크, 두 장소의 동시입장권 판매, 쿠폰 북 발행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맺음말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하고 훌륭한 문화적 요소들을 어떻게 최상의 문화컨텐츠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에 얽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소재를 발굴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하여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지닌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을 현대에 재현하거나 재해석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과 용건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지게 될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즉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 또한 수원 화성과 화성 용건릉 주변 즉 화성 8경과 환경적으로 클러스터링 해야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화성시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공동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보경,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미술관 체험」, 『미술교육논총』, 21(1), 2007.
-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매뉴얼』, 2005.
-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 김시은, 『2009 아시아 기초 조형연합학회 제주대회 논문집·자료집』, 2009.
- 문화재청, 『세계유산 조선왕릉』, 2009.
- 엄서호, 「지방관광 성공시대, 패러다임 변화가 핵심이다」, 『시장·군수학』, 비엔엠북스, 2009.
- UNESCO World Heritage Center(1997), 『WHC Nomination Documentation』.
- ICOMOS-KOREA, 『제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회의 자료집』, 2009.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통한 전통무예 계승과 관광자원화

김 준 혁 (수원화성박물관)

머리말

1. 『무예도보통지』간행과 장용영
2. 『무예도보통지』의 무예24기의 계승

3. 무예도보통지를 통한 관광자원화
맺음말
-

머리말

1790년(정조 14) 조선의 국왕 정조에 의해 새로운 무예서가 편찬되었다. 이 무예서는 정조의 국방개혁과 자주화의 의지와 함께 비운에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추숭이라는 큰 명분이 내포되어 있었다. 정조가 편찬한 이 무예서가 바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이다. 『무예도보통지』란 말 그대로 무예를 그림과 문자로 풀어놓아 그 뜻을 크게 헤아릴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무예를 익히는 모든 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실전(失傳)되었던 무예가 『무예도보통지』에 의하여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무예도보통지』에 24가지의 무예를 기록하였고 자신이 설립한 장용영(壯勇營)의 군사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였다. 이 무예를 우리는 ‘무예24기’로 부르고 있는데, 무예24기는 평화시에 큰 일을 대비한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과

한국인의 진취적인 기상이 담긴 무형의 유산이다.

수원 화성을 축성하신 정조대왕은 ‘문치규장(文置奎章)’, ‘무설장용(武設壯勇)’이라 하여 학문 육성은 규장각, 무예 육성은 장용영에서 하게 하였다. 특히 수원 화성에 설치된 장용영은 조선 최고의 군영으로 대부분 무과 급제자 출신이고, 이곳에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은 반드시 정조대왕의 지시로 완성된 무예24기를 수련해야 했다. 따라서 무예24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정선된 최고의 무예 무예라고 할 수 있다.

수원 화성에 설치한 장용 외영은 조선후기의 훈련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 화성은 조선의 축성법을 기본으로 중국과 일본의 축성 장점을 받아 전체 길이 5,744m로 축성되었다. 이 화성에 1793년(정조 17) 1월에 장용외영을 설치하고 5위 체제를 마련하였다. 4대문과 화성행궁을 호위하는 5위는 장안위(長安衛)·팔달위(八達衛)·화서위(華西衛)·창룡위(蒼龍衛)·신평위(新豐衛)로 조직되었고 전체 5,200명으로 구성되었다. 장용외영에 근무하는 군사들은 대부분 무과 합격자로 지상무예 18가지, 마상무예 6가지를 익혔고, 이들은 조선 최강의 군영으로 성장하였다. 화성은 북쪽과 남쪽은 가까운 반면 동과 서는 먼 거리에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동쪽의 연무대를 중심으로 화성 전체 면적의 1/3이 무예 수련 공간이었다. 따라서 화성은 무예24기의 역사적 무대이자 그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기에 충분한 관광자원이 된다.

그럼에도 화성과 같은 하드웨어형의 관광자원만으로는 진정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없고 화성 자체를 통해 관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화성을 기반으로 화성을 더욱 빛내고 관광객을 끌어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예도보통지』이다. 그림과 문자로 이루어진 무예도보통지는 단순한 무예서가 아니고 오늘날 21세기 문화원형의 창조와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관광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발표문에서는 무예도보통지의 의미와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대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무예도보통지』 간행과 장용영

『무예도보통지』는 사도세자가 편찬한 무예신보를 기반으로 간행되었다. 사도세

자는 어린 시절부터 무인적 기질을 보여 주었는데 1736년(영조12)에 3월 15일에 세자로 책봉된 사도세자의 책봉례를 보던 조현명은 사도세자는 북벌론을 주장하며 국방력을 확장했던 효종의 모습을 닮아 종묘사직에 끝없는 복이 온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사도세자가 어린 시절부터 무인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武에 관심이 많았다.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 놀이를 할 때도 반드시 병위(兵威)를 진설하곤 하였다. 영조가 시험삼아 그의 소질을 떠보려고 물어보면 조목조목 대답을 해내곤 하였는데 매우 상세하였다. 또한 병서를 좋아하여 속임수와 정당한 수법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묘리에 정통하였다고 한다.

당시 궁중에는 무예를 좋아하여 복원(후원)에서 자주 무예시연 했던 효종이 사용하던 청룡도가 저승전(儲昇殿)에 있었다. 이 청룡도는 쇠로 주조한 것으로서 당시 무예의 고수들도 무거워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15, 16세부터 이 청룡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신체조건과 무예에 대한 능력이 뛰어났다. 또한 정확한 활쏘기와 능란한 말타기 솜씨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자 책봉 시 조연명이 세자가 효종을 닮았다는 말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영조의 명에 15세의 나이에 대리청정을 시작한 사도세자는 새로운 무반층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중앙의 군영대장을 배출한 주요 무반 가문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주요 정치 세력과 연결되면서 무반 내에서 벌열화되어 있었다.

사도세자는 대리청정 초기 영조의 도움을 받아 무리 없는 정국운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는 기존의 무반 가문과 외척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영조의 측근 신하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간의 관계가 비정상적 형태로 발전하였다.

老·少論 대립관계에서 소론을 지지하던 사도세자는 탕평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노론을 후원하는 영조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치적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출중한 재능을 보여 온 무예서를 편찬하는 일이었다.

무예서의 편찬은 새로운 무반층 육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할 수 있는 일이었

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없는 명분있는 일이었기에 노론의 제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었다. 결국 『무예신보(武藝新譜)』(혹은 『무예신식(武藝新式)』)는 이러한 상황에서 편찬되었다.

사도세자의 무에서 편찬은 『무예제보(武藝諸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예제보』는 선조 연간 훈련도감 낭청 한교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교는 명나라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나와 있는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의 6기를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출정한 명의 장수들에게 두루 물어보아 『무예제보』를 완성하였다.

선조 년간에 만들어진 『무예제보』에 대해 사도세자는 연습하는 규정에 그 방법이 대부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철저하게 고증하여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래서 1759년(영조 35)에 『무예제보』 6기를 고증하고 이에 더하여 죽장창, 기창, 예도, 왜검, 교전, 월협도, 쌍검, 제독검, 본국검, 권법, 편, 곤 등 12가지 기예를 더 넣고 그림과 설명을 넣어 『무예신보』를 새롭게 편찬하고 훈련도감에 나누어 주어 무예를 익히게 하였다

사도세자는 『무예신보』를 편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우리 국토가 너무 좁아 武를 쓸 곳도 없지만 그래도 동쪽으로는 倭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이웃하였으며, 서쪽과 남쪽의 큰 바다는 옛날의 中原인 셈이다. 지금은 비록 국경 지대가 무사하다지만 국가가 견고할 수 있는 계책을 간구하여야 한다. 더구나 효종께서 뜻하신 바를 아직 펴지 못해 북쪽에 있는 작은 壇이 우리의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다. 兵器라는 것은 국가가 안정되어 아무 일이 없을 때라도 聖人들은 그것을 만들어 두고 외적을 대비했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효종이 마음에 두신 일까지 겸하고 있는 입장이니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즉 사도세자는 지금이 비록 국가의 안정기라 하더라도 武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효종이 북벌을 꿈꾸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무예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북벌이 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효종의 뜻을 이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남한산성의 치욕을 갚아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도세자의 호탕한 기운과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안타까

움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사도세자는 『무예신보』 편찬과 보급을 통해 조선과 중국, 일본의 무예를 새롭게 창조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자신이 새로운 무반층을 형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견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아버지의 숭무사상(崇武思想) 계승하여 군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창설한 군영이 바로 장용영이었다. 정조는 1782년(즉위 6)에 정조는 1685년(숙종 11) 무예별감 출신 30인을 훈련도감 국출신 3개 번과 교차시킨 선례를 따라 무예출신 및 무예별감의 장교를 지낸 경력이 있는 자 30인을 골라 명정전 남쪽에 근무하게 하였다. 이들 30인에 추가로 20명을 더 선발하여 장용위를 창설하였다. 장용위는 훗날 장용청과 장용영으로 승격될 때까지 척계광의 南軍 제도를 본받아 5개 시에 25개哨를 두었는데 中司 5개 초는 서울에 있게 하고, 前司 5개 초는 수원에, 左司 5개 초는 양성, 용인, 광주에, 右司 5개 초는 고양, 파주, 안산, 과천, 시흥에 後司 5개 초는 지평, 양근, 가평, 양주, 장단에 있게 했다.

장용위는 1788년(정조 12)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되고 1793년(정조 17) 수원도호부를 하성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장용영 내외영제(內外營制)가 성립되었다. 실제 정조는 장용영을 서울에 설치하여 내영으로 삼고 화성에 설치하여 외영을 삼는 것은 한편으로 왕도(王都)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선침을 호위하려는 것이며 장용이라는 칭호 자체가 오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조는 『무예도보통지』 편찬을 이덕무와 박제가가 근무하는 규장각이 아닌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에 서국(書局)을 개설하여 편찬하였는데 이는 장용영 군사들에게 『무예도보통지』의 기예를 익히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무예는 1759년(영조 35)에 사도세자에 의해 출간된 『무예신보』 18기에 더하여 기창·마상월도·마상쌍검·마상편곤의 4기와 격구·마상재를 포함하여 모두 24기로 정리하였다.

정조는 즉위 후 병조 및 각 군영에서 올린 단자를 보고 시험 과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그 중 관무재(觀武才) 시험 종목에 유엽전·편전·기추·조총만이 아니라 18기, 24기 무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 관무재는 훗날 『무예도보통지』에 정리된 마상무예들도 시험의 대상이 되

었다. 이 사례는 정조가 즉위 초부터 기예 명칭의 통일을 기함과 동시에 시험의 대상이 되는 기예에 대해 통제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즉위 초의 관무제는 무예 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조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으며 이는 마침내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조는 장용영 장관·장교 군사를 선발할 때는 물론 복무 중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무예24기를 시험함으로써 무예를 숙련할 수 있게 하였다. 무예24기는 장용영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험에 채택되었다.

이로써 『무예도보통지』는 장용영외영 군사들의 무예 훈련에 표준적인 교본이 되었다. 1793년(정조 17) 10월에 비변사가 올린 「장용외영군제절목」에 의하면, 외영군 가운데 보군이 머물며 방어할 때 날마다 무예를 연마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다. 즉, 번을 서는 군사들의 자체 훈련 과정에서 『무예도보통지』에 의거해서 마상무예 6기를 제외한 18기를 가르치고 또 시험 보게 하였으며, 각 초마다 전법교사 1명과 기예교사 1명을 두게 하였다.

외영 마군인 친군위는 행궁 호위 이외에는 기예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대부분 마상기예에 관한 것들로 『무예도보통지』 단계에서 새롭게 강조된 무예들이다. 친군위는 좌우열 장교 가운데 선발된 교관의 지도를 받아 마상 기예의 기초를 익혔으며, 이는 장용외영 별군관들의 시험 과목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이로써 『무예도보통지』는 장용영의 장교 이하 군사들을 강화하는 무예로서 완전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이 무예24기는 조선의 표준 무예로 확립되었다. 결국 무예24기는 장용영의 무예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무예로 평가되었다.

2. 『무예도보통지』의 무예24기의 계승

경기도의 문화 수부도시 수원시는 『무예도보통지』의 무예24기를 전통무예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2005년 ‘무예24기보존회’가 사단법인으로 창립되면서 전통무예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무예24기보존회’는 수원지역의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이 무예24기를 수련하거나 무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인물들이었다. 다만 ‘무예24기보존회’가 수원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무예24기보존회’가 수원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것은 앞서의 설명과 같이 수원에 장용영외영이 설치되었고, 장용영외영의 군사들이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무예 24기를 집중적으로 익혔기 때문에 수원의 무예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무예가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예24기가 수원의 전통무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수원시 역시 무예24기 보급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먼저 2002년 화성의 대표적 시설물인 연무대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전통무예전’에서 무예24기가 처음으로 시연되었다. 당시 무예24기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인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무예24기의 전통과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다. 그들이 비록 무예24기를 익히고 있다 하더라도 수원지역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무예인들이 수원지역에서 개최하는 전통무예전에 모습을 보인 것이고 경기도 문화재단과 수원시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무예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화성행궁 신평루 앞에서 주말에 공연을 실시하여 관람객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무예라는 것에 대하여 주로 중국의 무예만을 생각하던 것이 일종의 관념에서 벗어나 조선의 무예가 실존했음을 인식한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수원시는 무예24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였다.

먼저 『무예도보통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보다 깊이 있는 전통 무예전을 개최하였다. 2002년의 전통 무예전은 전통무예라는 개념의 무예들을 모두 선보이는 것이었다면 이때부터 실시한 전통무예전의 중심은 택견과 무예24기의 시연이었다. 택견은 이미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다양한 조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는 높았다. 그렇지만 『무예도보통지』의 무예24기는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하다보니 언론의 조명과 관람객의 높은 열광으로 전통무예의 주요한 기반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무예의 보급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2004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화성행궁에서 어린이 장용영 무예교실을 개최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무예를 익히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수강생 80명을 모집하여 처음으로 화성행궁에서 실시하였다. 4주에 걸쳐 본국검과 조선세법을 익히게 하면서 조선의 진정한 무예를 익히게 한 것은 지역 언론의 조명과 학부모들의 칭찬을 듣게 되었다.

2004년 이후 2005년부터 화성행궁 여름방학 무예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상설 무예교육으로 발전시켰다. 무예를 보급하기 위하여 신평초등학교, 삼일중학교, 수일고등학교에 상설 무예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신평초등학교는 4학년과 5학년 전체 학생들이 1주일이 한 번씩 무예를 배우고 있으며,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삼일중학교로 진학한 친구들이 무예24기 상설 동아리에서 체계적으로 무예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의 무예 교육과 다르게 성곽 내 지역 주민과 함께 무예 배우기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연무대와 화성행궁 앞 마당에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무예를 배우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무예24기 보존회의 사범들이 매일같이 지도하였다. 현재 이 무예를 배우는 이들이 성곽 내 지역주민이 약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성곽내에 무예를 수련하는 주민외에 성곽 밖에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예 수련반이 조직되었다.

중국의 태극권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벽에 공원에서 수련을 하듯이 무예24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수원지역 내에 있는 대표적인 공원에서 무예24기 수련이 시작되었다. 무예24기를 단순히 전통무예의 맥을 잇는 작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생활운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로 무예24기보존회의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수원의 효원공원, 만석공원, 광교공원에서 무예24기의 수련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원 지역 대표 공원에서의 수련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무예24기의 계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무예24기의 이론에 대한 체계적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90년 출간된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완역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문을 번

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 번역 능력을 갖추면서 무예 이론에 능하고, 무예를 능수능란하게 시연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최근 무예를 수련하면서 한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무예도보통지』의 무예와 국방사상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예도보통지의 완역과 무예24기의 올바른 시연을 위한 이론체계를 완성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 무예 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승단 제도 정립과 중앙전수관의 설립이다. 태권도가 국제적 지위를 얻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물론 태권도가 가지는 민족적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승단제도를 효율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기원이라는 상징적인 중앙 전수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예24기가 태권도와 같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무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승단 제도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전통 무예는 승단 제도라는 것이 없이 오로지 개인의 수련으로 무예의 수준이 결정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승단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무예 보급의 일차적인 관건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와 ‘무예24기보존회’가 다른 무예의 승단 제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승단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승단 제도의 확립은 전통무예가 현대무예와의 접목을 통해 대중적인 무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예 자체는 전통을 유지하되 발전과 조직의 형태는 현대적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승단 제도만이 아니라 전통무예에 대한 복식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예도보통지』를 계승하다고 명분을 내세우는 무예단체들이 10여개 단체가 있고, 이들 모두의 복식이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택견의 경우 여러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식의 일원화를 이루었다. 복식의 일원화라는 것은 결국 통합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예24기의 경우도 복식의 일원화를 통해 대중적 무예로 발돋움해야 한다.

세 번째로 무예 보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앞서의 말과 같이 바로 중앙전수관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각 학교와 공원에서 무예 수련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후에 대한 문제이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그리고 비나

는 등의 자연현상은 야외 공간에서의 무예 수련을 위축시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예를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이기에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원시의 각종 문화기관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수원시 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은 1년 중 사용기간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수원실내체육관을 새벽에 사용한다면 무예24기 보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주민자치센터 강당을 수련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수원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무예를 수련하게 되면 예산을 투여해서 수련관을 짓지 않아도 임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시간과 예산이 허락되면 행정동 당 1개씩 전수관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처럼 임시형태의 전수관을 극복하고 무예24기를 태권도와 같은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중앙전수관을 건립하여야 한다. 중앙전수관을 중심으로 무예 발전과 체계화된 승단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예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무예도보통지의 보급과 연구가 진행되면 무예24기를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주 사회 및 유럽에서 동양문화에 대한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무예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예 이론과 실기를 발전시켜 무예 24기를 대중화시키고 나아가 수원시 및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면 무예24기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 국내외에서 찾아 올 것이라 판단된다.

3. 무예도보통지를 통한 관광자원화

1) 무예 인형과 캐릭터 생산

『무예도보통지』는 문화컨텐츠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무예도보통지』에는 24가지 무예의 동작 하나하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에 문화원형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예도보통지』에 그려진 그림들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그림들을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국검의 검보에 나오는 무사의 자세와 제독검에 나오는 무사의 자세는 다르다. 이러한 다른 자세는 다양한 인형을 양산할 수 있으며, 맨손 무예인 권법의 경우 30여 가지의 자세가 모두 아름다움과 절제가 있다. 특히 권법보에 나오는 무사의 몸과 얼굴빛은 약간 살이 오르고 통통한 몸과 장난꾸러기와 같은 해학스러운 눈빛은 국내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관광기념품으로 매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되어진 전통 무기를 재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인 모두에게 무기란 신비로움과 소유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위한 칼과 총을 가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통지』에 본국검과 제독검·쌍검 등은 원형대로 제작할 수 있는 수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작하여 고급 상품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많은 이들이 선물용으로 구입할 것이다. 다만 검신에 날을 세우는 것은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신을 강철로 제작은 하되 날을 세우지 않고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통지에 나오는 검과 창을 원형의 크기대로 제작하지 않고 어린이용 소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관광지 및 대형 오락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무기들을 팔고 있는데 이는 국적이 없다. 국적없는 무기들이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장난감 무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은 생각없이 구입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통있는 관광자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통지에 나오는 다양한 무기들을 어린이용 무기로 만들어 관광 상품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지에 나오는 각종 그림을 캐릭터화해서 디자인으로 응용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각종 문구류에서 단체복 그리고 벽지 등도 가능하다. 앞서의 설명과 같이 통지에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를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 외에도 이를 디자인하여 다양한 매체에 활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실제 유럽 및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의상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의 디자인이 온갖 매체와 시설들을 점령하고 있

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수원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통지의 그림들을 디자인해서 다양한 캐릭터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무예 공연 지속 및 뮤지컬 작품 제작

수원시에서는 2004년부터 화성행궁 앞마당에서 무예 공연을 실시하였다. 처음 1년간은 오후 2시에 진행하였는데 화성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의 시간이 대체적으로 오전이기 때문에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오전 11시에 공연을 하고 있다.

이 공연은 현재까지 그 반응이 매우 높다. 30여분간 지속되는 공연은 처음 장창 시연으로부터 시작해서 본국검, 제독검, 교전, 그리고 권법, 마지막으로 월도와 협도 그리고 본국검을 이용한 실전 베기로 이어진다.

2004년 12명의 시범단원으로 구성되어진 형태에서 현재 25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시범단은 국내 최고의 무예 수준을 가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박진감 넘치는 공연과 무예도보통지에 의거한 고증된 시연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연이 발전되어 해마다 개최되는 수원화성 문화제 기간에 야조(夜操) 시연을 수원지역의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으며, 지상무예 18기와 함께 마상무예 6기의 대부분을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마상무예의 재현은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보다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5년여 동안의 무예 공연의 성과는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었고 더 나아가 수원이 전통무예의 본향(本鄉)임을 천명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예를 더욱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성행궁 앞마당의 11시 상설 공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상설 공연 30분 동안 관광객들이 있다가 공연을 마친 후에 대부분 이동하여 화성 밖으로 이동하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화성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오후 시간대에 마상무예 공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성내에 마상 무예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은 연무대 앞마당이다. 현재 국궁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마당은 정조시대에도 장용영외영의 기마병인 친군위가 마상무예를 익혔던 장소이다. 이 공간에서 2시 혹은 3시쯤 마상 공

연을 시연한다면 오전 11시에 있는 화성행궁 앞 마당의 상설공연 이상의 호응을 받아 낼 수 있다.

현재 화성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50%가 일본인으로 이들은 17세기 에도시대 도쿠가와 막부시대부터 조선 통신사에서 마상 무예단을 초청했었다. 조선통신사 사행중에서 일본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글씨를 쓰는 서예가도 아니고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도 아닌 마상재를 시연하는 무예단이였다.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마상재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화성의 연무대에서 마상재와 격구를 제외한 나머지 마상무예를 시연한다면 관광자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약 5억원에 이르겠지만 화성에서의 무예 공연을 통해 국내외인을 머무르게 하여 식당과 재래시장에서 재원을 지출하게 한다면 화성 인근의 상권의 부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외에 찾아가는 무예 공연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최근 화성을 찾는 외국 단체 관광객들중에서 고품격 관광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 수원시 화성운영재단 및 '무예24기보존회'가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관광단체가 원할시 그들의 입장에 따른 공연시연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면 이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공연 자체의 규모에 따라 관광객이 머무는 곳에서 시연할 수도 있고, 혹은 화성행궁으로 초빙하여 시연할 수도 있다. 결국 무예24기 공연은 화성의 무형의 관광자원으로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이와 함께 무예 24기를 소재로 하는 명품 뮤지컬을 만들어야 한다. 명품 뮤지컬로 성장하여 국내외에 호평을 받는 '점프'는 한국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으로 유쾌한 코미디를 혼합하여 화려하면서도 짜릿한 마살아츠를 선보이는 뮤지컬이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개성있는 캐릭터들의 절묘한 조합으로 관객들에게 박진감 넘치고 활력 넘치는 무대를 선사해 국내외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공연이다. 더불어 2008년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태권도를 중심으로 하는 창극과 무예시연을 합친 '태권 武 舞'가 호평을 받아 2009년에도 재공연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태권도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성공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예24기를 소재로 하는 뮤지컬을 창작하여 수원지역내에 있는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추진

하고 몇 년간 다듬어서 상설 공연으로 전환하면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세계 전통 무예 축제' 개최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의 기원이 한국은 물론 중국(장창), 일본(왜검), 베트남(등패), 몽골(격구) 등에 걸쳐 있다. 따라서 수원에서 '세계 전통 무예 축제'를 개최할 명분이 충분하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인 유형(有形)의 화성과 장용영 군사가 익혔던 무형(無形)의 자산인 무예24기는 수원의 자산이자 특별성이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유형무형(有形無形)의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무예24기의 고장 수원 화성에서 세계 전통무예축제를 연다면 수원을 유 무형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도시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수원은 무예24기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 안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고 2015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그리고 2020년에 세계무형유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림무예와 같이 개인 및 무예가문에 의해 전승된 무예는 존재하지만 국가에 의해 체계화된 무예가 전승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예도보통지에 의해 전승된 무예24기는 그 가치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는 충주는 전통무예 '택견'의 전수, 보급 및 발전을 위해 택견전수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택견전수관의 건립을 요청하여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주시 호암동에 건립비 총 21억 8천만원과 부지 2,069평, 연건평 291평의 택견전수관을 1997년 5월 31일에 건립하였다.

충주시는 택견전수관을 기반으로 1997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무예를 초청 '충주 세계무술 축제'라는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2003년 현재 6회를 맞게 되었다. 지난 2000년 제3회 충주 세계 무술 축제의 성과는 매우 컸다.

5대양 6대주에서 25개국 45단체 607명 외국인 시연자가 참여하여 세계 전통무술의 참여, 교류 체험의 장 마련하였으며 이를 관람하기 위해 54만 명이라는 엄청난

난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당시 홍콩스타 TV, 아리랑 TV 방영, 외국관광객 4천여 명 관람 충주지역의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기여를 하였다. 당시 9억여 원의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 추진 84억원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충주지역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술축제는 이후 무예 단체간의 불협화음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무예 24기의 본향으로 자리매김한 수원은 전통적으로 무예의 고장으로 평가받아왔다. 조선 성종대 완성된 조선의 지리와 풍속을 총 정리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수원은 무예를 숭상하는 도시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수원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서해안의 외적을 방어하는 군사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조선시대는 방어영(현재 해군 사령부)이 설치되었던 군사도시였다. 수원지역이 조선시대 군사요충지였기에 대부분의 군사들이 본국검을 비롯한 전통무예를 익혔고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무예의 산실이 되었다.

‘충주 세계무술축제’는 국내의 무술 문파는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무술단체들을 초청하여 백화점식의 나열식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수원에서 ‘성곽도시’, ‘전통무예’라는 테마로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행사를 개최하면 충주와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화성(華城)의 성곽을 배경으로 전통무예 축제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차별화 및 정체성 확보하고 화성의 연무대와 서북공심돈 등 군사시설물 일대에서 전통 무예 재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무예 축제 중 주요 행사를 조선시대 무과시험 형태로 재현하고 나아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주간→진법(陣法), 야간→연거(熨拂 들기)훈련 등 밤낮을 적절히 활용하여 체험 관광객 적극 활용.熨拂 들기에 전통복식을 착용한 관광객 대거 참여하여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와 새로운 진법의 시연은 진정한 동양 무예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장르의 무예 축제가 개최될 수 있다. 충주시가 백화점식 무예 나열의 한계를 극복하고 9억원을 투여하여 80여 억원의 이익을 가져왔듯이 수원시 역시 10월의 화성문화제 기간이 아닌 축제가 없는 5월에 대대적인 무예 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원이 널리 홍보되고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더불어 수원의 무예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

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무예도보통지』를 의의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예도보통지』는 우리 무예의 자랑이자 21세기 문화컨텐츠로 각광받을 수 있는 기록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사적 가치에 대한 판단만이 있어왔을 뿐 문화컨텐츠로서 관광활성화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수원시는 정조에 의해 건립된 화성과 장용외영이 있던 역사적인 도시로서 조선 시대 문예부흥기의 문화를 되살리는 작업을 오랫동안 추진하였다. 무너진 성곽을 복원하고, 성곽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성곽 시설물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는 등 현재까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여하였다. 더불어 2009년 46회 수원화성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원형의 복원에도 상당한 노력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조의 명에 의해 수원에 주둔했던 조선 최고의 군사인 장용영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그들의 무예와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2000년 이후 화성에 대한 연구와 장용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장용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예도보통지』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서 화성행궁 무예 상설공연이 개최되고, 무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성문화제 기간에 야간 군사훈련이 수원지역의 시민들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시작된 것은 불과 5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고, 고층의 통한 전통의 계승이 강조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수원화성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컨텐츠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무예도보통지』를 통한 무예24기이다.

향후 『무예도보통지』의 새로운 해석과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만들어 질 것이다. 나아가 『무예도보통지』의 기예가 전세계 최고의 전통 무예로서 상장하면서 이를 보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이 찾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비록 경제위기와 세수(稅收)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무예도보통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원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심 승 구 (한국체육대학교)

머리말

1. 국왕행차와 원행의 등장
2. 1795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

3. 화성행차의 국민축제화와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맺음말
-

머리말

18세기는 세계사적으로 변화의 시기였다.¹⁾ 지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종교에서 과학이 분리되고 이념에서 인간의 삶이 해방됨으로써,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해석의 틀이 바뀌었다. 근대로의 변화는 서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조선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청과 일본의 교류 속에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實事求是의 합리성과 民國사상이 강조되는가 하면, 백과사전학적 지식과 이용후생을 위한 과학과 실용적 지식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는 개혁군주의 꿈과 이상을 갖고 즉위하였다. 하지만, 그가 본 당시의 조선사회는 ‘큰 병을 앓는 사람이 眞元이 이미 비어버린 상태’로서 ‘元氣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 옛날처럼 회복시켜야 한다’ 고 할

1) 한국18세기학회, 『위대한 백년 18세기』, 태학사, 2007.

정도였다.²⁾ 이를 위해 정조는 정치적으로는 ‘蕩平의 시대’로 만들어 정치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民國의 시대’로 이끌어 새로운 왕조의 중흥을 펼치고자 하였다. 그의 치세 중 재위기간 24년간 13차례 방문한 화성행차는 바로 그러한 위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백성의 지지를 결집시켜 정치개혁을 완결하려는 정치이벤트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1795년(정조 19)의 화성행차는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 이상의 문화사적인 가치를 갖는다.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는 수천명의 어가 행렬은 화려한 의장과 삼엄한 호위체계 속에 장사진의 물결을 이루었다. 어가 행렬의 구성과 절차,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의장·무기·복식·탈것·음악·음식 등은 각기 18세기말 조선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일상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다. 더구나 8일 동안 곳곳에서 펼쳐졌던 행사와 절차를 기록한 현존 자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다.

후술하듯이,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는 조선왕조 518년간 가장 빛나고 신나는 행차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성행차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바라 본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³⁾ 이는 과거 화성행차 자체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어떻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도 절실하

2)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3) 이흥렬, 「낙남헌방방도와 혜경궁 홍씨의 周甲 -수원능행도와 관련하여-」, 『사총』12,13, 1968.
박광성, 「정조의 현릉원 展拜」, 『기전문화연구』10, 1979.
박정혜, 「수원능행도병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189, 한국미술사학회, 1991.
이흥구, 「현릉원 천봉과 정조대왕의 행행효성」, 『기전문화』9, 1992.
정승교, 「정조대 을묘원행의 재정운영과 정리곡 마련」, 『한국학보』82, 1996.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陵幸의 의의」, 『한국학보』88, 일지사, 1997.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이명규, 「원행정례에 나타난 京水路程語 연구」, 『인문논총』16, 한양대, 1988.
정병모,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판화사적 연구」, 『문화재』22, 1989.
최홍규, 「정조의 13차 현릉원원행과 음민정책」, 『정조사상연구』4, 2001.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계-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최홍규, 「정조시대의 활자본 의궤류 편찬-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정조사상연구』8, 2003.
허용호, 「화성행궁의 전통연희」, 『정조사상연구』6, 2003.
조병로, 「조선후기 현릉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창간호, 2005.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동길」, 『서울학연구』30, 2008.

다.⁴⁾ 이 글은 바로 그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다만, 국왕행차의 용례와 추이를 통해 원행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1795년 화성행차가 갖는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여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국왕행차와 원행의 등장

1) 국왕행차의 用例들

흔히 국왕의 궐 밖 또는 도성 밖 나들이를 ‘行次’ 라고 한다. 오늘날 ‘국왕행차’ 또는 ‘정조의 화성행차’ 라는 표현도 바로 그러한 관행에서 비롯된 말이다. 行次란 ‘가서 머물다’ 라는 뜻이다. 『書經』에 따르면, ‘王次于河朔’⁵⁾이라 하여 왕이 어느 지역에 머물 때 ‘次’ 라 하였다. 실제로 고려사나 실록에는 ‘上次于毋岳下’, ‘上次舊京’ ‘上次廣州山城’ 등의 표현에서 처럼, 국왕의 출입을 ‘행차’ 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록에서 行次라는 용어를 조사해 보면, 使臣行次, 天使行次, 赴京行次, 世子行次, 東宮行次 와 같은 사례만 확인된다.⁶⁾ 이러한 사실은 행차가 국왕을 제외한 세자 또는 그 이하의 신하들의 나들이나 여행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왜 군주의 거동에 ‘次’ 를 쓰면서 ‘行次’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는 간단치 않다. 다만, 국왕행차의 용례를 통해 그 의문을 푸는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원래 군주의 움직임은 ‘거동’ 이라고 불렀다. 『春秋傳』에 따르면, ‘舉動은 人君의 大節로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하여 거동이 國王의 出入을 뜻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⁷⁾ 거동의 본딧말인 거동은 원래 ‘一舉一動’ 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서, 주로

4)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및 화령전 궁중유물 복원전시연구』, 수원시화성사업소, 2006.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 복원과 전망」, 『인문콘텐츠학회』8, 2008.

심승구, 『1795년 정조대왕의 화성행차 재연 연시 고증연구』, 수원시, 2007.

심승구, 『수원 화성의 궁중문화 축제(진찬, 과거, 야조)의 고증연구』, 화성운영재단, 2008.

5) 『書經』 周書, 泰誓.

6) 고종 때에는 ‘大院君行次, 府大夫人行次’ 라 하여 대원군 내외의 출입에 행차를 쓴 것으로 확인된다.

7) 春秋傳曰 舉動 人君之大節 不可不謹也(『太宗實錄』卷2, 1年 8月 丙子)

국왕과 왕세자의 行動舉止를 폭넓게 드러낸 용어다. 거등과 함께 임금이 꺾 밖으로 출입하는 것을 '行幸' 라고 하는가 하면, 수레를 타고 꺾 밖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動駕' 라고도 불렀다.⁸⁾

行幸은 '一人之行 萬人之幸'⁹⁾ 이라 하여 '군주의 거등' 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군주가 도성 밖으로 멀리 떠날 경우 '巡狩' 라고 했다. 巡은 '길을 따라가다', 狩는 '보살피다' 의 뜻으로,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것을 말한다.¹⁰⁾ 巡狩는 천하에 통치권을 인정받는 절차인 동시에 제후국의 시찰을 통해 통제와 賑撫를 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깔고 있었다. 아울러 순행하는 동안에 세금을 감면하거나 죄를 용서해 주는 등 시혜를 베푸는 기회로 삼았다. 그러자 덕이 있는 군주상을 강조하기 위해 백성에 복을 준다는 명분으로 巡狩 대신 巡幸을 썼고, 이는 巡幸과 함께 군주의 꺾 밖 출입을 '行幸' 이라 하는 배경이 되었다.

국왕의 행행을 뜻하는 용어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는 국왕의 도성 밖 행행을 巡狩, 巡幸, 巡守, 巡行 등이라고 하였다.¹¹⁾ 이들 용어들은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을 통하여 민심의 수습하고 반란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방 시찰이었다.¹²⁾ 고려시대에는 국왕의 어가 행렬인 動駕를 '陪奉' 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조선 세종 원년(1419) 11월부터는 陪奉을 '行幸' 으로 고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³⁾ 천자국인 명나라의 왕실에서 사용하는 '陪奉' 이라는 용어를 제후국인 조선의 왕실에서 피하기 위해서다.

조선왕조는 이처럼 국왕의 거등을 뜻하는 용어로 行幸을 분명히 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그 주석을 달고 있다. 즉 『經國大典註解』에 따르면, 行幸은 巡幸과 같은 뜻으로, 임금이 수레가 머무는 곳에 民臣이 그 덕을 받는다고 풀이하면서, '繖倅' 이라고도 하였다.¹⁴⁾ 이처럼 行幸은 임금이 車駕가 이르는

8) 군주가 野外에서 帳次를 치고 머무는 것을 '野次' 라 하였고, 行宮에서 묵는 것을 '經宿' 이라 하였다.
9) 『經國大典抄解』 禮典, 行幸.
10) 천자가 제후한테 행차하는 것은 巡狩라고 하고, 제후가 조정에 와서 천자를 뵈는 것을 述職이라고 하였다(하워드 J. 웨슬러,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임대희 옮김), 고즈원, 2005).
11) 김영하, 「新羅時代의 巡守의 性格」, 『民族文化研究』14, 1979.
신형식, 「巡幸을 통해 본 三國時代의 王」, 『韓國學報』25, 1981.
김영하,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106, 1985.
12)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24, 2007.
13) 改稱陪奉爲行幸 國家襲高麗之舊 凡動駕稱陪奉 至是改之(『世宗實錄』권2, 즉위년 11월 정묘).
14) 『經國大典註解』下, 兵典, 侍衛條, 巡幸.

곳에는 행복이 깃든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실록에는 국왕의 행차를 ‘行次’ 라하지 않고 行幸이라고 썼는지를 엿보게 된다. 국왕의 거동이 유교사회의 최고 덕목인 덕치를 실현하는 행위의 하나인 만큼, 그 의미가 담긴 行幸을 쓴 것이다. 따라서 세자 이하 신하들의 경우는 가서 머문다는 의미의 行次를 썼지만, 국왕의 경우에는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는 뜻의 行幸으로 쓴 것이다.¹⁵⁾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行幸을 아예 幸行이라고도 불렀고, 실제 조선후기에는 行幸과 함께 幸行을 섞어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⁶⁾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왕의 행행은 그 목적과 장소에 따라 명칭을 陵幸, 園幸, 濶幸 등으로 불렀다.¹⁷⁾ 결국 1795년의 園幸은 국왕의 거동에 유교적 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과 의지가 담긴 용어였다. 즉 원행은 정조가 모후의 회갑연을 축하하고 현릉원 참배를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왕이 백성의 질고과 안녕을 돌봄으로써 태평성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차였던 것이다.

2) 園幸의 등장배경

한국사에서 선왕의 능침에 참배하는 의식은 고려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왕조가 유교식 국가전례인 오례를 도입하면서 吉禮에 五廟制와 함께 拜陵儀를 처음 받아들인 것이다.¹⁸⁾ 하지만, 고려시대의 선대 왕릉을 참배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왕조에 들어와 여러 왕들은 선대 왕과 왕비의 능침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이는 조선왕조가 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사회로의 이념변화 때문이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昏定晨省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춘추로 陵寢에 展拜해야 한다’¹⁹⁾ 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는 고려의 배릉의와 달리 새로운 陵參拜와 行禮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15) 『朝鮮語辭典』(1920년)에 따르면, 行次를 ‘長上の 여행에 대한 敬稱’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후 각종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에는 행차를 國字로서, ‘웃어른의 나들이’로 적고 있다. 그러한 관행은 자연 오늘날 국왕의 나들이를 행차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16) 그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幸行臚錄』의 명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7)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幸行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8.

18) 『高麗史』卷61, 志15, 禮3, 諸陵.

19) 上曰(중략) 父母在 昏定晨省 父母歿 春秋展拜(『承政院日記』 영조 4년 8월 7일, 을유).

조선왕조의 배릉의가 처음 정해진 것은 1418년(세종 즉위)이다.²⁰⁾ 그 후 1443년(세종 25)에 왕세자의 배릉의를 추가한 후, 정비과정을 거쳐 『국조오례의』(1474)에 확립된다.²¹⁾ 그 내용은 拜陵儀와 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이다. 전자가 춘추로 능침에 참배하는 의식이라면, 후자는 四時(사계절 첫 달 上旬 및 臘日), 俗節(설날, 단오, 추석,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삭망(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능에 제사하는 의식이다. 위의 왕릉 관련 제사는 제후국 예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배릉의는 동이 뜨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虎患의 염려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제사지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러자 1484년(성종 15년)부터는 동이 뜨기 전인 昧爽에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²²⁾ 배릉의는 춘추는 물론 국왕이 즉위 초에 종묘사직과 반드시 거행하는 국가의전으로 발전하였다.²³⁾

배릉의는 도성 밖으로 거동하는 어가행렬을 위해 수 천 군사들의 호위와 시위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멀리 陵幸을 할 경우에는 講武를 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²⁴⁾ 하지만, 국왕의 능행은 많은 물자와 인력을 수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때와 겹쳐 중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배릉의에는 임금의 어가행렬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의 행렬인 小駕鹵簿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도 수 천명의 규모였으므로 한번 배릉을 할 경우에는 군사들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이 支供과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渡江을 하기 위해 많은 장사 배를 빌려야 했기 때문에 여러 불편과 폐단을 감내해야 하였다. 특히 명사신의 잦은 접대와 함께 능행에 따른 畿甸 지역의 민폐로 인하여 능행은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중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배릉은 왕과 왕세자가 참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가 처음으로 광릉에 참배한 이후²⁵⁾ 소혜왕후(성종의 모후)와 정현왕후(성종의 계비)가 의릉에 잇따라 참배하였다.²⁶⁾ 그 후 명종대에 대왕대비와 왕대비가 정릉과

20) 『世宗實錄』卷2, 卽位年 12月 壬辰.

21) 『國朝五禮儀』卷1, 吉禮, 拜陵儀, 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

22) 『成宗實錄』卷172, 15年 11月 己丑.

23) 傳曰 卽位之初 親祭及宗廟各殿拜陵拜文廟等事 在所當先 其擇吉以啓(『中宗實錄』卷1, 1年 10月 壬子).

24) 『成宗實錄』卷242, 21年 7月 癸亥.

25) 광릉에 배릉한 후에 의릉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中宗實錄』卷69, 25年 11月 乙未). 이는 조선 초기부터 배릉의에도 의례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크다.

26) 『明宗實錄』卷4, 1年 7月 戊午.

효릉을 참배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禮文에도 없고 부녀에게 제사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왕비들의 능행은 철저히 조선후기까지 철저히 차단되었다.

한편, 17세기 이후 왕실의 추송 작업이 활발해져 갔다. 조선시대 왕위계승은 왕비의 적장자가 보위에 오르는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정변이나 반정, 그리고 後嗣의 부재 등으로 次子나 傍系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경우의 私親廟 건립을 비롯한 추송작업이 활발해졌다. 그 출발은 성종이 그의 생부의 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한 데서 비롯하였다. 그 후 연산군의 모후 폐비 윤씨, 선조의 생부 덕흥대원군, 광해군의 모후 공빈에 대한 추송이 이어졌다. 특히 인조반정 이후 자신의 정통성과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부 원종과 모후 계운궁 등에 대한 추송작업에 심혈을 기울인다.²⁷⁾ 하지만, 이는 사당과릉원을 조성하는데 치중했을 뿐, 배릉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園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세기 영조대에 들어와서이다.²⁸⁾ 종래까지 陵幸이 국왕의 선대 왕과 왕비의 陵에 참배하는 것이라면, 원행은 국왕의 사친이나 조모, 세자와 세자빈, 세손 등의 모인 園에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조는 즉위 후 생모 숙빈최씨를 추송하기 위한 淑嬪廟와 昭寧墓를 毓祥宮과 昭寧園으로 승격한 후에 비로소 원행을 시작하였다.²⁹⁾ 이처럼 영조는 사친 숙빈 최씨를 추송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숙빈의 묘를 궁으로, 묘를 원으로 올리면서 宮園制를 창설되었고, 이에 따라 원행이 시작된 것이다. 사친 추송을 위한 궁원제는 주자가례를 넘어 존왕적 예학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영조는 陵幸을 정비하기 위해 拜陵儀 대신에 幸陵儀를 만들어 『國朝續五禮儀』(1725)에 명문화하였다.³⁰⁾

영조대의 궁원제는 정조가 사도세자를 추송하는 예제적 기반이 되었다. 정조는 즉위 후 곧바로 궁원제를 적용하여 사도세자를 모신 垂恩廟를 景慕宮으로, 垂恩墓를 永祐園으로 격상시켰다. 이어 宮官을 새로 정하고 園官의 위격도 높여 경모궁과 영우원은 비록 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 궁원보다는 격이 훨씬 높아졌다.

27) 이현진, 「인조대 元宗追崇論의 추이와 성격」, 『북악사론』7, 2000.

28) 이왕무, 「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幸行」, 『장서각』15, 2006.

29) 『영조실록』권129, 29년 9월 계해.

30) 『國朝續五禮儀』卷1, 吉禮, 幸陵儀.

1789년(정조 13) 정조는 영우원을 수원으로 옮겨 현릉원으로 개칭하면서 위격을 왕릉에 버금가게 높였다. 이제 현릉원의 원관의 위격이 왕릉 관리인 령(종5품) 1인, 참봉(종9품) 1인으로 같아졌고, 왕릉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정조는 현릉원을 격상 시킴으로써, 사도세자의 아들로써 감당해야 했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³¹⁾

현릉원이 조성된 이후 정조의 원행은 1789년에서 1800년까지, 1797년의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한 차례씩 계속되었다. 12년간에 걸쳐 총 13차례를 방문한 셈이다. 1789년(정조 13) 현릉원을 화성에 옮긴 후 원행길이 종래 과천길 이외에 새로이 시흥길이 건설되었고, 그 후 안산길, 광주길이 추가되었다.³²⁾ 원행은 1899(광무 3)에 현릉원이 용릉으로 승격됨에 따라 능행으로 바뀌었고, 그 길도 원행길에서 능행길로 바뀌 불리게 되었다.

2. 1795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

지금부터 214년전 정조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성대한 퍼레이드는 18세기말 조선의 서울과 수원 지역 민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궁중의 생활상, 신식 성곽과 행궁, 행차 거리의 풍광, 밤낮의 군사훈련, 아낙과 아이들의 모습, 한강 주변과 배다리, 일상의 삶과 공간들이 윤2월의 날씨와 함께 정밀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한다.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가 갖는 문화적 가치는 곧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오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최고의 국가 이벤트의 하나였다. 우리 역사상 수많은 국왕의 행차가 있어 왔지만, 정조의 화성행차 만큼 철저히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8일 동안 진행된 공식·비공식적인 다양한

31) 정경희, 「1789년 현릉원 조성과 현릉원원소도감의궤」, 『규장각소장의궤 해제집』, 2003.

32) 원래 1789년의 원행길은 서울에서 배다리로 동작나루를 건너 남태령을 넘고 과천과 인덕원을 거쳐 지지대 고대를 넘는 길이었다. 그러나 1795년(정조 19)에는 새로이 시흥, 안양을 거쳐 수원으로 가는 금천로가 개설되었다. 1797년(정조 21) 8월에는 김포의 장릉(인조 생부 정원군의 무덤)을 들린 후, 부평 안산을 거쳐 수원으로 가는 코스를 택했다. 1799년 8월에는 광주의 현릉을 들린 후 과천을 거쳐 수원으로 갔다.

행사와 일들을 철저히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울 정도다. 18세기 영정조시대가 조선후기의 문화적 황금기라는 사실에서 볼 때, 정조시대의 문화적 절정을 반영하는 화성행차는 그 자체로 한국문화를 대표할 만한 상징성과 원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화성행차는 한국이 낳은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는 길이다. 화성행차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 수원화성, 용건룡의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이 길은 과거 정조시대의 행차 코스인 동시에 현재는 그 길을 열어 놓은 정조의 숨결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화성행차의 출발과 종착지인 창덕궁, 화성성곽, 용건룡 등 세 곳 모두가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은 이곳이 시대를 초월해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창출하는 보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산과 재, 강과 나무, 다리와 하천, 지명, 자연과 유적들 그 속에 감춰진 흔적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화성행차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함께 한 국민축제요 신나는 거리축제였다. 일찍이 어가행렬이 이처럼 당당하고 백성과 하나가 된 예는 드문 일이었다. 그런 사실은 당시 행차의 분위기에서 잘 드러난다. “혜경궁을 모시고 울적에 길 양쪽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처럼 둘러섰고, 임금의 행차를 보는 기쁨과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려는 정성을 안고, 곳곳마다 노래가 거리에 흘러 넘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감회를 이야기 했다”고 전한다. 이 기록은 능행도에 나타난 관공민인들의 정겨운 모습과도 일치한다. 백성과 소통하는 정치, 백성에게 다가가려는 정조의 거리행차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게 하는 귀중한 거울이 되고 있다.

넷째, 화성행차는 정조의 효심이 담긴 효행 길이었다. 정조는 화성행차에 배편 회갑연을 ‘천년 만에 처음있는 경사’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혜경궁과 고인이 된 사도세자의 회갑을 함께 축하드리는 경사스러운 잔치 길이었다. 더구나 조선 건국 이래 왕비의 능 행차가 금기시되고 있는 가운데 혜경궁과 두 군주들과 함께 행차에 참가한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실제로 임금의 생모와 누이들이 함께 행궁에 나와 잔치를 벌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나아가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뒤 다시 화성에 올 것을 기약한다. 하지만, 정조의 급서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화성행차는 효를 기약하는 약속의 길로서,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걸고 있다. 신나는 행차 속에도 효가 살아있다고…….

다섯째,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조선왕조 의궤 가운데 원행을 기록한 유일한 의궤이다. 화성을 건설하기에 앞서 ‘억만년 유구한 태평시대의 기업’의 뜻을 밝힌 바와 같이, 정조는 그만큼 화성을 중시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화성행차의 행사보고서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활자(정리자)로 찍어 내게 한데서 잘 드러난다. 이 의궤는 조선왕조 의궤 가운데 활자로 찍은 첫 번째 의궤이다. 활자로 찍어 많이 제작하여 확고한 군주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보통 필사로 제작된 의궤는 보통 5~8부 정도 제작되었지만 목판이나 활판은 대량생산이 가능하였다. 의궤 자료가운데 오늘날까지 많이 남아있게 된 배경도 활자 인쇄의 덕분이었다.

여섯째, 과학기술에 의해 발휘된 정조의 정치적 위업을 달성하고 또 시험하는 자리였다. 화성성곽의 축조와 배다리의 건설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왕조중흥의 역량을 기울여 새롭게 건설 화성은 물론이고 당시 배다리는 교량을 가설하기 힘든 큰 강에 배를 나란히 붙여 띄우고 그 위에 임시로 놓은 다리를 말하는데, 이는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었다.³³⁾ 종래 수백 척의 배가 필요하던 것을 48척으로 간단히 이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조의 원행이 가장 빛나는 국왕행차로 평가되는 이유다.

일곱째, 화성행차에서 일어난 각종 행사는 왕실문화와 민간문화의 교류가 일어나는 접점이자 새로운 교류가 일어나는 기회의 공간이었다. 진찬연을 비롯해 참가하는 각종 공연자들은 진찬연에 함께 모여 악, 가, 무의 정재를 선보이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당시 정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京妓와 鄕妓가 함께 한 공연에서 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궁중문화와 민간문화의 교류가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작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정재 가운데 ‘쌍포구락’이 처음 선을 보이는가 하면, 京鄕藝人들의 교류현상을 통하여 궁중예술이 민간예술의 현장에서 만나는 동시에 궁중예술이 지역에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궁중문화와 민간문화의 교류는 음악 분야 뿐 아니라 음식, 무예, 복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 볼 때, 화성행차가 갖는 진정한 문화사적 가치는 18세기말 京鄕의

33)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사 등의 제반 분야를 소통시키는 동시에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기회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정조가 통합과 민국을 통해 태평성대를 꿈꾸었듯이, 200년이 지난 지금 화성행차를 통하여 또 다른 미래를 위해 새로운 소통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화성행차의 관광자원화 방안

오늘날 문화유산 활용의 과제는 각 지역의 고유성에 입각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있다.³⁴⁾ 특히 수원과 같이 역사문화도시의 경우에는 그 같은 원형의 이미지 강화를 통한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이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 화성성곽을 비롯해 공간마케팅을 활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형성의 강화를 통한 공간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수원이 갖고 있는 최고 장점이자 매력은 바로 원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움직임이 읽어낼 수 있는 기록유산을 간직한 점이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하여 재현되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탄생, 이른바 화성행차의 원형 복원과 재현, 그리고 이를 기반한 전시 및 활용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국내 다른 역사문화도시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우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는 여러 문화유적이 경주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그 결과 별도의 설명없이도 이곳이 천년 고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현재 세계문화유산도시를 추진 중인 부여나 공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백제의 경우는 왕궁 조성을 통해 고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제문화의 원형에 대한 지역민의

34) 심승구,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문화재청, 2007).

심승구, 『문화재 활용가이드 북』(문화재청, 2008).

갈증은 여전하다.³⁵⁾ 이 문제는 원형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함을 통해서만이 풀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취볼 때, 수원은 위의 두 곳과는 다른 장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원형을묘정리의궐, 화성성역의궐, 현릉원원소도감의궐 등과 같은 세계기록유산인 의궐자료가 풍부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 기록 자료 속에는 200년 전에 화성과 인근 지역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 국왕과 신하들, 일반 백성 개개인과 그 역할, 그리고 여러 행사에 사용되었던 공간과 소품, 음식과 복식, 의장과 무기들이 그림 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자료의 현전은 과거 화성의 역사적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오늘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치의 원천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수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원형이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의 원형 또는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서 원형성과 잠재성, 그리고 활용 가능성을 매체에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가치(상품 또는 재화)를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³⁶⁾ 따라서 수원의 문화유산에 원형성이 있는 공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뜻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은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수원의 문화유산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련 의궐 자료를 비롯한 유적 유물들을 발굴, 수집, 복원, 제작, 관리, 전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연구조직 내지 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수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의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스페인의 톨레도 경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³⁷⁾ 스페인 카톨릭 교회의 총본산 톨레도 대성당이 그

35) 심승구, 「백제문화권의 컨설팅」, 『충남지역 5대문화권 컨설팅』(충청남도, 문화관광부), 2008.

36) 심승구, 「한국 술문화의 콘텐츠화 -술문화의 글로벌콘텐츠화를 위한 담론 탐색-」, 『술문화의 원형 콘텐츠화』, 인문콘텐츠학회, 2004.

37) 정보상,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웰빙여행』, 39, 행복한 책읽기, 2004.

자체가 관광의 대상이지만, 돈키호테의 이야기는 많은 관광객이 톨레도를 찾는 배경이자 그 공간을 즐기는 또 하나의 큰 매력이다.

셋째, 화성행차에 제공된 궁중음식의 개발과 이를 체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몇 가운데 개성있는 먹거리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수원만의 먹거리 문화를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향후 수원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이자 매력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수원의 대표상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로연때에 노인들에게 장수를 위해 하사하였던 ‘노란 손수건’ 과 ‘비둘기 지팡이’, 더운 여름 화성성역에 애를 쓰는 백성들을 위해 지급했던 더위를 잊는 ‘척서단’ 등의 음료 개발은 지역에 새로운 명물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정조가 거닐 던 공간을 찾아내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행차 길도 중요하지만, 정조가 걸었던 산책로 개발도 필요하다. 예컨대 “윤14일에 공식일정을 끝내고 정조는 성곽에 올라 주변 경관을 관람하였다. 이때 정조는 행궁을 나와 용성(甕城)을 두루 관람하고 장안문(長安門) 누각에 올라 갔다가 도로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으로 가서 용연(龍淵)을 굽어본 뒤에 도로 낙남헌 길을 따라 안으로 돌아왔다.”³⁸⁾ 이 길은 정조의 편안한 산책로였다.

위의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음식에 대한 언급을 잠깐만 피력하기로 한다. 『원행음묘정리의궤』에는 8일간 행차와 행사 때 제공된 음식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한 시대를 살았던 위로는 왕과 모후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음식문화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실제로 의궤 자료에는 진찬과 같은 잔치음식에 관한 자료는 물론이고 당시 행차에 참여했던 혜경궁, 정조, 군주, 문무백관, 장교, 서리, 내외빈 등에 이르기까지 신분별로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와 가지 수가 床花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또한 일정별로 제공되었던 조다소반과, 조수라, 주다소반과, 주수라, 석수라, 야다소반과 등의 3끼 식사와 2끼 간식의 음식에 대하여 음식 재료와 양은 물론 이를 담았

38) 『정조실록』권 42, 19년 윤2월 병신.

던 그릇과 함께 상세하게 적고 있다. 이는 앞으로 수원 지역만의 음식문화를 창출하는 매우 귀중한 원천이자 자산이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조·혜경궁·군주·궁인·내빈·외빈·당상·감관·장관·장교·서리·서민 등의 상차림을 유형화하되, 조다소반과·조수라·주다소반과·주수라·석수라·야다소반과 등의 식사와 간식으로 구분하여 메뉴를 구성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음식의 종류와 재료, 그리고 그 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한 음식의 맛을 되살려 내는 일이 요구된다. 다만, 떡이나 편육, 다식 등을 높게 쌓는 형태와 음식의 양과 같은 상차림의 원형성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만일 이러한 음식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면, 수원 화성은 한국 궁중음식의 새로운 산실이자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수원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 내에 궁중음식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을 확보하는 셈이다. 수원에서의 맛은 이곳의 흥미로운 이야기의 멋과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궤에 나타난 음식을 개발하여 최고의 문화상품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맺음말

과거의 회상은 과거를 기록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살아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⁹⁾ 이 말은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의 현재 모습을 잘 비추는 말로 보인다. 수원은 지난 1996년부터 화성문화제의 기간에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의 능 행차 퍼레이드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매년 10월 수원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정기행사로 추진해 온 정조의 화성행차 관련 재현행사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관광 축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화성문화제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정조는 재위 24년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을 방문하기

39) 하이비 콕스, 『바보제』(김천배역), 현대사상사, 1973.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성을 찾았다. 특히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해 8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화성방문은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 시흥로를 거쳐 수원 화성에 이르는 83리(62.2km) 구간의 행차였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 수원시가 주최하는 정조의 능 행차 퍼레이드 행사는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2007년부터는 서울시가 Hi-Seoul Festival 행사의 일환으로 창덕궁에서 한강까지 정조의 능 행차 재현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정조대왕의 화성행차를 원형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와 국민적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까닭은 화성행차가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국왕행차이자 최고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원형의 고증을 통해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는 점은 그러한 움직임에 배경이 되고 있다. 더구나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포함한 조선왕조의 의궤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고 용건릉을 포함한 조선의 왕릉이 역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됨에 따라 정조의 화성행차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정조의 화성행차는 단순한 전통문화를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과 수원 화성성곽, 그리고 용건릉을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특히 정조의 화성행차 결과보고서인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원형복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사실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진정한 배경은 그 속에 기록된 내용이 이 시대에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자료적 정리를 체계화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1795년의 화성행차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해 현릉원을 참배함으로써 효를 통해 신하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소위 ‘孝治天下’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효를 통해 신민의 충성을 이끌어내어 군주권을 확립하고 당대의 과제인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화성행차는 정조의 효심이 담긴 행차로서, 한국의 효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물론 인류의 보편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수도권권을 중심으로한 국민통합형 축제의 발굴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화성행차 재현행사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 줄 수 있다. 조선후기 최고의 군

주인 정조가 백성과 함께 펼치는 거리행차는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는 즐겁고도 신나는 국왕행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토대한 원형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국 최고의 문화축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시에 정조의 화성행차와 8일간 추진했던 각종 궁중의례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점에서 정조대왕의 화성행차는 한국의 대표 축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동시에 또 하나의 세계무형문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조의 효사상과 효 콘텐츠 개발 연구

임 형 진 (고려대학교)

-
- | | |
|-------------------|----------------------|
| 머리말 | 3. 효문화의 콘텐츠화 필요성과 방안 |
| 1. 정조의 효사상 전파와 통치 | 맺음말 |
| 2. 정조의 효사상 선양 작업 | |
-

머리말

정조대왕의 시대는 대내적으로 당쟁의 정점에 이르고 대외적으로는 서학의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되는 내외외환의 시기였다. 특히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정조의 왕위 등극은 기본적으로 국가 개혁정치를 이루기를 어렵게 한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조는 조선조의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성군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특히 유래가 없는 탕평을 통해 정쟁을 지양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냄으로써 조선 후기 평화의 진경문화시대를 개척해 냈다.

정조는 평등적 사고를 통해 신분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구상과 모순된 신분제도의 철폐를 단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시도는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보다 무려 70여년이나 빠른 시기였다. 특히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부 읍치로 옮긴 것을 계기로 유교적인 왕도정치의 요체로서 성군 절대주의적 이상과 민본주의의 구현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조선 성곽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화성을 축성하였다. 화성을 통한 평화와 국민 통합의 정치는 정조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조는 군주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동양 전래의 통치방법인 왕도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정조가 백성에 모범을 보인 통치행위가 바로 효의 실천이었다. 효를 통한 정조의 통치는 백성들을 감화시켰고 그것은 그대로 조선의 전성기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정조대왕의 이념과 실천이 살아있는 수원시는 정조의 이상과 꿈이 그대로 담겨 있는 도시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시는 국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형태와 의식을 통해 정조관련 선양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화성과 같은 거대 유형 문화재를 무대로 대규모 행사이벤트를 통한 시민들의 관심유도와 홍보성 위주의 정책에 집중된 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시대와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또 국내적으로는 다기능 다문화 다가치 사회에 접어들어 이때 이벤트성 행사가 가지는 한계도 점차 부각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정조대왕의 핵심적 통치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는 효사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노력도 부진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롭게 부각되고 또 전국민적 관심이 환기되는 이즈음 정조대왕의 효사상과 효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선양하기 위한 작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하나의 시론적 연구로서 정조대왕의 효사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효문화 콘텐츠 개발의 방향성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정조의 효사상 전파와 통치

유교에서의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인간의 사회화 과정이 가정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인류사회로 확대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공자의 정명사상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남의 노인이나 어린이를 우리 집 노인이나 어린이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에 놓고 움직이는 것과 같이 쉽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¹⁾

이는 효가 개인적 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와 정치, 인류애와 자연사랑에까지 확대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다. 또한 대동사회의 사람들이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내용과 같은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교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근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국가를 소유한 사람은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 고르면 가난이 없고 화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²⁾

이러한 유교의 이상적인 정치와 경제의 이념을 잘 인식한 정조는 효에 기반한 정치와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와 교육에도 힘쓰면서 효의 본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효를 통한 대동사회를 지향한 정조의 효사상은 그의 통치이념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³⁾

누구보다도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는 당시 선친인 사도세자의 왕릉을 정하고 이장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연계시켜 이를 몸소 실천하였다. 또 정조는 “이 백성들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고 이 세상을 당우(唐虞)의 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정조는 대우(大禹)와 같이 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문왕처럼 되지 못한다고 탄식하면서 그 효성이 백왕의 으뜸이요, 도통은 여러 성왕을 계승하여 인륜의 지극함을 밝히고 서물(庶物)의 품류를 살폈다.

조상의 훌륭한 업적을 잊지 않고 이어받는 것을 효라 하고, 자손에게 길을 열어 주는 것을 자(慈)라 하며, 일가들을 잘 돌봐주는 것을 목(睦)이라 하고, 그것을 들어서 백성에게 행하는 것을 인(仁)이라 하며, 효가 모든 활동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효가 기초에 공고히 자리할 때, 정치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조의 인륜에 대한 윤리의식을 두고 “왕이 명주실만큼 가늘게 말하면 나오자마자 띠처럼 커지고, 왕이 띠만큼 굵게 말하면 나오자마자 동아줄처럼 더 커지네”라

1) 孝(道)라고 하면 부모를 받드는 윤리를 뜻하지만, 사상적으로는 훨씬 뜻이 깊어 근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포괄하게 된다. 효사상은 역사적 존재란 인간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사상이다. 따라서 효는 어제와 오늘을 연결해서 내일로 이어가는 윤리이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도덕이다. 이하는 노태구, 「正祖大王 孝思想의 現代의 照明」, 민족사상연구소, 『효사상과 평화통일학』, 2006을 주로 참조함.

2) 오석원, 「유교의 효사상과 현대사회」, 『유교사상연구』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pp.501-503.

3) 김해영, 「正祖의 孝思想 研究」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p.105-107, 참조.

고 군주의 말이나 생각의 그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정조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⁴⁾ 정사가 미치는 것은 얇고 풍속에서 얻는 것은 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를 잘 살피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는 것이다. 아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 그 공경함을 넓히고 근본을 따르기 때문에 우(虞)·하(夏)·상(商)·주(周)가 서로 계승하면서 덕있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거나, 관리를 친히 하는 것에는 차이가, 이것 모두 아버이를 섬기는 데서 비롯된다.

정조의 효사상은 부모에 대한 효성을 기초로 하여 백성에 다가가고 있다. 즉 정조는 효가 개인적 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와 정치 그리고 인류애와 자연사상에 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유교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균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출발점이 바로 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정조는 몸소 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는 노인을 봉양할 것과 농사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정조는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윤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노인이 편안하고 상하가 화합하면 그 기운은 풍년으로 이어진다고 하여 민생이 안정되고 상하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다. 이 때 백성들에게 기본윤리를 가르치는 방법 내지는 수단을 정조는 백성들이 『소학(小學)』과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익히고 향음주례(鄉飲酒禮)와 향약(鄉約)의 실천을 통하면 윤리가 습득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조는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계기로 일반 백성의 교화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는 정조의 이런 관심의 구체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오륜행실도』는 효자, 충신, 열녀의 행적을 기록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연장자와 연하자의 처신과 벗의 사귀에 모범이 될만한 47인을 골라 그 행적을 기록하고 그림과 찬(贊)⁵⁾을 넣어 『삼강행실도』에서 미비한 것을 채워 넣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가 이것이다.⁶⁾ 『이륜행실도』는 형제와 붕우(朋友) 등 2부로 나뉘져 있으며 종족과 사생(師生)이 각각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4) 위의 글, p.184.

5) 찬(贊)이란 남의 아름다운 행적을 기리는 문체의 한 가지(praise).

6) 김해영, 앞의 글, p.57.

화(和)가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덕목이라면, 경(敬)은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오륜행실도』는 상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니 당연히 경(敬)의 실천이 중심이 된다. 그렇지만 이에 조용하여 정조는 화(和)의 정치를 구현할 때에만 비로소 요순의 가르침이 실천되고 삼대의 이상정치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⁷⁾

한편, 정조는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열면서⁸⁾ 신민들과 그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 양노연을 개최하고 효행이 뛰어난 사람을 표창했는데, 이는 막상 자신이 다스린 시대를 뒤돌아보니 역사에 기록할만한 공적도 없고 민간의 풍속도 쇠신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특히 당대의 사회의 분위기가 안일과 방종으로 흐르고 아버이를 섬기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기본윤리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는 정조로 하여금 윤리의 실천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강을 굳건히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조는 1797년이란 시점을 바로 흐트러진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고 국가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이에 대한 정조의 윤음을 보면 구구절절 백성을 교화하려는 정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소학』과 『오륜행실도』 그리고 향음주례와 향약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조는 『소학』이 초학자들에게 학문의 기본을 갖추고 인간의 기본 도덕을 터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했는데, 이는 정조 자신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인 영조의 가르침으로 『소학』을 익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문을 연마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조는 유교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효에 대한 교육을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나 『향례합편(鄉禮合編)』 또는 『소학(소학)』 등을 간행 보급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화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효를 궁극적으로는 소외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여 고루 잘 살게 하려는 정조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주의 인심이 백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자신과 백성의 관계는 물론 천지만물까지도 저절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조는 누구보다 잘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7)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2000, p.157.

8) 1751(정조19) 閏2월13일,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가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된 것을 말한다.

정조 효사상 실천의 백미는 사도세자를 위한 지극한 효성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진찬례(進饌禮)이다. 1795년의 정조의 효성의 화성 행차는 많은 반대와 우여곡절을 거쳐 완성단계에 있는 화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계기이자, 화성 성역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확인하고 집권 후반기의 개혁정국을 알리는 시위였다.

이날 정조는 화성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거행한 후 군주와 신료·백성이 함께 효도를 실천하고 그 귀감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 효행자를 표창한 바 있었다. 정조는 백성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향촌사회의 상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정화를 통해 국가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백성 교화를 위한 교재로 편찬한 『향례합편(鄉禮合編)』의 간행이다. 이 『향례합편』은 신도시 화성 52개 면을 포함하여 전국에 배포,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이후 효행과 양로, 향음주례, 향약의 실천을 통해 유교윤리에 입각한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려는 데 그 목표를 둔 것이었다.

정조는 왕 21년(1797) 정월 초하루에 양로(養老) 무농(務農)의 운음을 전국에 배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효사상을 고취하였다. 『일성록(日省錄)』과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수록된 『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운음(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繪音)』이 바로 그것인데, 정조는 여기에서 국왕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 자궁(慈宮,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했으니, 전국의 신민과 그 즐거움을 함께 할 것을 기약하며 노인을 높이고 효행을 널리 알리는 전례에 최선을 다했다.……아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 그 공경함을 넓히고 근본을 따르기 때문이다.

정조는 이렇게 선친인 사도세자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에 대해 극진한 효성을 다한 군주였다. 특히 비운에 간 사도세자를 추존하기 위해 묘를 화성으로 옮기고 현릉원이라 이름 붙이는데 하면 13차례에 걸쳐 선친의 묘소를 찾았다. 또한 그는 재위 24년간 70여회나 경기도 일원에 산재한 왕릉을 찾아 나섰다.

국왕이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알기 위해 궁성 밖을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영조 때 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영조는 시민, 향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자주 궁성문이나 도성문에 임했다. 영조가 이처럼 도성 안 또는 도성문에서 백성들과 만났는데 비해 정조는 도성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또한 즉위 이후 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민접촉을 시도한 영조와 달리 정조는 즉위 초반부터 대민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정조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민접촉을 시도한 것은 왕세손으로서 영조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면서 일찍이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왕세손으로서 1765(영조41) 명릉 배알 때 영조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의 중간 왜곡 없이 직접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 하였다.¹⁰⁾ 이는 임금과 백성 사이에서 국왕의 덕의를 왜곡하고 ‘중간에 소멸시켜버리는’ ‘탐오하고 교활한 관리들’을 제거해야만 성왕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의 정치관에서 비롯되었다.¹¹⁾

이렇게 보면 정조는 효의 개인적 기능인 자신과 부모에 대한 효행을 넘어 사회로 더 나아가서는 정치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정조의 효사상을 단순하게 효치로만 바라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을 만큼 정조는 효에 대한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선친을 추존하고 능침천봉과 화성건설 그리고 화성행궁에서의 진찬례 등 정조의 행위 하나하나가 당대 백성들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즉 교화의 중심이요, 주체였다는 것은 그의 효사상이 가족제도를 비롯하여 정치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대동사회를 추구하는 정조대왕의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조의 효사상 선양 작업

9)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학연구원, 1985, 참고.

10)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은 정조시대 대표적인 민심청취 제도였다. 정조는 취임 초부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백성과의 소통을 이루어 냈다. 특히 능행 중에 가장 많은 활용이 되었는데 상언 3232건, 격쟁 123건 등 총 3355건이 있었고 중요한 점은 이들 민원을 정조는 환궁 즉시 대부분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8, p.74.

11)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pp.330-1.

1) 수원시와 정조¹²⁾

정조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정조의 효사상 정치를 실험할 수 있는 기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정조대왕 이전의 수원은 일찍이 고구려 시대에는 매홀이라 불려 졌으나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수성군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고려 태조가 남쪽을 칠 때에 이곳 사람인 김철과 최승규 등이 귀순하여 힘이 되어 준 공으로 수주로 승격시켰다.

성종 때는 단련사를 두기도 했으나 목종 때에 이르러 없애 버렸다. 현종 9년(1018)에는 지수주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쌍부, 용성을 관내에 배속시켰다. 원종 12년(1271)에는 천양을 방위하던 몽고군이 대부도로 들어와서 주민들을 해치고 노략질을 함에 지역주민들이 몽고군을 살해하고 반기를 들자 부사 안열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들을 토벌하였다. 이 공로로 수원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수주목으로까지 승격되었다. 그러나 충선왕 2년(1310)에 여러 곳의 목을 축소시킴에 따라 수주목은 수원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13년(1413)에 도호부가 되었으며, 세조 때에 진을 설치하고 판관을 둠으로써 한성 수호를 위한 4보의 하나로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수원이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은 정조 18년(1794)부터 20년까지 약3년에 걸쳐 화려하고 웅대한 규모의 성곽을 축성하고 행궁을 건립하여 수원을 소경으로 한 때부터였다.

정조는 즉위 초 부친인 사도세자의 수은묘 원호를 영우원으로 고치고, 원침의 형국이 협소한 것을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 길지를 택하여 묘소를 이장할 뜻을 품고 있었다. 정조 13년 7월 11일 국왕의 심중을 잘 알고 있던 금성위 박명원(사도세자의 친누이 화평옹주의 남편)으로부터 양주 중량포(中梁浦) 배봉산의 영우원은 묘역이 매우 비좁고 초라하여 서둘러 천장해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다.

즉위 초부터 이장할 뜻이 간절했던 정조는 이를 계기로 숙원이던 선친묘의 천장 문제를 공론화시켰다.¹³⁾ 정조는 왕 13년 7월 11일 2품 이상의 대신들을 희정당(熙政堂)에 모이게 한 후 이 자리에서 박명원의 상소를 낭독케 하였다. 국왕은 가슴이

12) 수원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1994.

13) '정조실록' 13년 7월 乙未.

막일 정도로 올음을 삼키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니, 대신들은 어느 한 사람도 천봉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왕은 오래 전부터 능터로 미리 봉표(封標)해 둔 여러 길지(吉地)들, 예컨대 영릉(寧陵)¹⁴과 건원릉(健元陵) 오른쪽 등성이인 원릉(元陵)¹⁵과 함께 3대 길지의 하나로 지목되어온 수원도호부 읍치가 들어앉은 수원 화산(花山) 등을 후보지로 거론하였다.

그 결과 수원부 읍치가 위치하고 있는 용복면(龍伏面) 화산이 최종 낙점되었다. 이곳은 일찍이 효종의 사후 윤강(尹絳)·윤선도(尹善道) 등의 조신(朝臣)과 홍여박(洪汝博) 등의 술사가 이곳을 능묘 후보지로 적극 추천할 만큼 ‘坐定한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것과 같은 형국’(盤龍弄珠之形)¹⁶, 또는 ‘여의주가 서로 마주보면서 하늘을 향하는 형국’(對珠向空之說)¹⁷을 지닌 최길지의 명당으로 꼽혀 왔다.

한편 천봉지인 수원 화산은 수원부의 진산(鎭山)이기 때문에, 영우원을 그곳으로 천봉하기 위해서는 화산 기슭 일대 용복면에 위치한 수원부의 읍치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조는 즉각 천봉과 이음에 따른 수원부민들의 불편과 고충, 민심의 동향에 유념하여 그 대책을 하고하는 한편, 경기관찰사에 서유방(徐有防), 수원 부사에 조신태를 임명하여 이음과 천릉작업에 따른 행정을 관장케 하였다. 그리하여 새로 옮겨지는 능원의 산역(山役)이 7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8월 9일 신원(新園)의 원호를 의논을 통하여 ‘현릉(顯隆)’이라 정했는데, 이는 ‘현부(顯父)의 은혜에 융성하게 보답 한다’는 의미였다.¹⁸ 현릉원의 공역은 10월 16일야 완공되었는데, 이장할 때 소요된 총 경비는 184,600여 냥(兩), 쌀 6,326 석, 목면 279동(同), 베(布)가 14동이였다.¹⁹ 현릉원 천봉이 계획될 때 정조는 영릉(寧陵: 효종의 능) 이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화 되었던 난간석(欄干石)을 제외하고, 모든 석물(石物)은 광릉(光陵: 세조의 능)의 예에 따를 것을 하고한 바 있었다.²⁰ 그리하여 현릉원은 합원(合園)의 제혈(制穴)로 설치하는 만큼 전후의 석물을

14)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孝宗陵.

15) 현 구리시의 속칭 東九陵 내에 있는 英祖陵.

16) 『정조실록』13년 7월 乙未.

17) 앞의 책, 13년 7월 丁酉.

18) 앞의 책, 13년 8월 壬戌; 『弘齋全書』권55, 雜著.

19) 앞의 책, 13년 10월 庚申.

20) 앞의 책, 13년 8월 己巳.

배설할 곳이 매우 비좁으니, 병풍석 이외의 석물은 광릉의 제도에 따라서 혼유석(魂遊石) 1좌(坐), 장명등(長明燈) 1좌, 망주석(望柱石) 1쌍, 문·무석 각 1쌍, 양(羊)·마(馬)·호석(虎石) 각 1쌍을 마련케 하였다. 영우원 구원 터에는 산 이름을 딴 배봉진(拜峰鎭)을 설치하여, 묘역의 수리·관리 등을 관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어 정조는 원소 부근의 면리와 신읍치로 이사한 민인들에게 호세를 면제해 주는 복호(復戶) 10년을 내려줄 것, 신한곡을 탕감해 줄 것, 또 수원부의 모든 면리에는 1년간 급복(給復)해 줄 것, 가장 오래된 환곡 3년 조는 탕감해 줄 것, 수보미(需保米)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해 주도록 조치하였다. 수원부민 중 장헌세자의 온양 온천행과 이번의 정조의 행차를 맞이한 자 가운데 70세 이상의 조관(朝官)과 80세 이상의 사서(士庶)들에게도 가자(加資 :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올림)토록 하였다. 경내의 유생과 무사들에게 다음 이듬해 원행 때 문·무과 별시를 설과하여 시취(試取)케 했고, 교속(校屬)으로서 오래 근무한 자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조천(調遷)시키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과천현민 중 70세 이상의 조관, 80세 이상 사서에게도 가자하고 오래된 환곡 2년 조를 탕감케 했으며, 수보미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거나 수량을 나누어 대봉하고 두 해 동안 행차가 지나간 연로의 민인들에게는 1년간 급복토록 하였다. 광주부의 행차가 통과한 연로의 면에 대해서는 환곡 1년분의 탕감, 사천장(沙川場) 부근의 민인들에 대해서는 금년분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효행의 도정인 현릉원 원행에 따라 불편을 준 읍민뿐만 아니라, 도하(都下)의 공인과 시인(市人)들에게도 베풀어졌다. 즉, 원소에 대령했다가 공물을 바친 공납인들에 대해서는 전부터 남아 있는 것 가운데 3천 석에 한도에서, 대령한 공납인들에 대해서도 넉넉히 탕감해 주도록 하였다. 또한 영여와 어가를 앞뒤에서 끈 군사들과 각 전(塵)의 상인들에게는 요역 20일에 한해서, 각 차비(差備) 상인들에 대해서는 10일에 한해서, 반인(泮人)들의 현방(懸房) 속전은 10일에 한해서 면제해 주는 특별혜택을 각각 내려 천봉에 관련되어 애쓴 민인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신읍치는 처음부터 그저 민가를 옮겨 종전대로 개축해주자는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신읍치에다 좋은 집들을 짓도록 하고, 산업을 일으켜 주민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하는 방도를 생각하였다. 또 한편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읍 조성의 모

든 절차를 전담 집행한 변암 체제공은 경세실용·이용후생의 학에도 능하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정책수립자였을 뿐만 아니라, 박지원, 박제가 등의 이용후생학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숨은 후원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당초부터 수원 신읍의 이상도시를 구상하였을 것이며 부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다. 읍치이전 초기부터 충분치는 않으나 주거의 배치·전장²¹⁾의 교환·배분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이주시켰고 구읍 주민만으로는 도시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양과 외읍의 장사치들도 입주를 권장하여 처음부터 다른 지방의 읍내들 보다는 비교적 정비되고 신읍으로서의 활기도 띠었던 것이다.

수원의 신읍치에는 성곽을 쌓기 전에 이미 초라하기는 하나 시가가 형성되고 수백호에 달하는 민가가 들어서서 여염²²⁾이 형성되어 있었다. 성곽에 걸리는 가옥이 헐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성곽을 원형으로 모양나게 쌓으려고 하니 동북쪽에 위치한 많은 민가가 성곽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큰 문제가 생겼다. 중론은 이 곳에 위치한 민가를 철거해 버리자는 데 기울어졌지만 지은 지 4~5년도 안되는 이주민들의 가옥을 또 헐어 버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풀이 되던 중 마침 성역착공에 앞선 왕 18년 정월 화성에 내려온 왕이 읍기를 살펴보고 팔달산에 올라, 화성 터를 두루 돌아 본 다음 『북리의 인가를 철거한다는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닌 것 같다.……이 고을의 속칭은 유천이니 북리의 인가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은 모름지기 세 번 꾸부리고 세 번 꺾어서 천자를 상징하고, 유천의 성이 남북으로 약간 길쭉해져서 흡사 버들잎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도 유천의 뜻에 더욱 근사하지 않느냐』하고 단을 내림으로써 북리인가를 철거하지 않고 성을 바깥으로 내어 쌓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 둘레가 결정되니 우선 남문과 관아 중심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십자로와 북문이 일직선이 되게 도로의 선을 그었다. 이리하여 화려한 성곽에 싸인 읍치는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남부의 두 개의 방으로 구분되었고 남부는 20개 동, 북부는 14개동으로 모두 34개의 동이 생겼다. 이와 같은 신읍치의 건설은 정조 13년(1789)에 시작하여 동21년(1797)까지의 8년간에 걸쳐 신도시 화성의 건설이 끝났으며 그때의 읍의 면적은 불과 1.3km²에 불과하였다.

21) 전장(田庄) : 자기가 소유한 논 밭

22) 여염(閭閻) : 백성들의 살림집이 모여 있는 곳.

정조 13년 구읍 당시의 수원부 가호는 244호, 인구는 677명이었고, 신읍치 지역 팔달산 기슭 신기리 일대도 그 원주민호를 63호로 기록할 정도로 하나의 대취락·한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읍 후인 정조 17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성내 민호 1,347호, 인구 약 5천명, 그리고 수원부 전체의 민호는 14,693호, 인구는 55,680명을 헤아리는 대응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상업도시로 전환되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수원부의 민호 1,842호, 인구 4,926명과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정도로 3백여 년 만에 10배 이상 크게 증가된 셈이다. 18세기 말 화성성역 이후의 수원지방은 장용외영이 설치되면서 군사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농업·상업 등의 중심도시로서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된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²³⁾

18세기 이후 서울을 중심에 두고 4도²⁴⁾로 둘러싸인 수도권은 인구와 경제력이 꾸준히 성장하는 지역이었다. 수도권은 한성부와 4도 유수영 등 국가의 상급행정기관이 집중되고,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軍營과 鎭營들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었으며, 한강의 수운이 통하고 전국으로 이어지는 X자형 간선도로망이 모여드는 교통 중심지였다.

정조는 능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士民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수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략적 요충지를 보강하는 등 수도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했다. 1795년 혜경궁의 회갑연을 수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수원의 위상을 한층 향상시킨 것이며, 군왕과 백성이 하나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효를 표면에 내세움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든 신료와 백성들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군사훈련을 통하여 국왕의 강력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견제세력을 자신의 의도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²⁵⁾

삼남 지역에서 서울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인 화성은 수도권 남쪽 중심 지역으로 정조의 개혁정치를 목적으로 한 정치·경제·군사도시로 성장했다. 이러한 수원은 국왕 정조의 배후도시로서 정조가 즉위 직후부터 실현하고자 한 탕평과 개혁의 상

23) 최홍규, 「정조의 신도시 화성건설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사상연구』, 2006, p.56.

24) 4유수부를 말하는 것으로, 남으로 수원, 북으로 개성, 서쪽으로 강화 동쪽으로 광주를 이룬다.

25) 김성윤, 「조선후기 정조대의 수원육성과 천도시도」, 『부대사학』20,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6.

장이었다.

2) (사)한국효사상연구회

(사)한국효사상연구회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효사상과 문화진흥을 위해 2005년 1월에 창립된 사단법인체이다. 사단법인 한국효사상연구회(이하 효사상연구회)는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인 효를 현대의미에 맞는 아름다운 3세대 가족문화로 계승, 정착시키고 나아가 효문화의 확산과 세계화를 통해 한국 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한다는 설립목적を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효사상연구회는 첫째, 수원은 화성, 정조대왕과 함께 효의 본산지로서 세계의 효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효를 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효 콘텐츠 개발 둘째, 효 콘텐츠 개발원 건립 및 교육자료로 사용할 각종 자료수집 셋째, 효문화의 대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사업 및 홍보 넷째, 효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정보교환 다섯째, 기타 효연구회의 목적사업에 부합 또는 관련되는 필요한 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입각해 그동안 효사상연구회는 수원시의 효문화 진흥과 보급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관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구조로 인해 적극적이고 활기찬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다고 보아진다. 실제로 2005년 9월에 전개했던 학술대회와 어린이용 효 교재 편찬 및 보급이 대외적 활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었다. 다만 수원시가 운영관리하던 효행기념관을 위탁관리 해 오며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효문화의 선양 보급에 힘써 온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효사상연구회는 설립 초기의 목적과 사업에는 부합하지 못한채 소극적 활동에 그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09년 1월부터 새롭게 이사진을 비롯한 조직체계가 개편되고 새로 출범하는 자세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및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새롭게 형성된 집행부서는 예산편성은 물론 나름대로 수원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 의욕적인 활동 준비를 마쳐가고 있다. 그래서 효사상연구회가 마련한 2009년 사업계획서는 비로소 연구회 설립에 취합하는 활동이 본격화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효사상연구원의 가장 큰 유형적 관리물인 효행기념관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계획이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가장 극명하게 들어나는 지지대고개에 위치한 효행 기념관은 그동안 수원시가 효행의 도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념관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시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은 물론 연계시설의 전무함과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 온 상태였다. 그러나 효사상연구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변경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전시물의 변경은 물론 찾아오는 관람객에 살아있는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 효 해설사 배치와 전국 관광여행사 등과 연계한 수원시 관광광의 시발지로 설정 노력, 시 관내 학생들의 참관 활성화와 초중등 학교생의 효 교육장으로 활용 등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효사상연구원이 구상하는 계획은 이밖에도 효 문화 홈페이지 개편, 효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3세대 효 강연회를 개최해 현대적인 효 문화 정착과 시민교육강좌를 마련하고 효 문화 음악 웨스티발로 3세대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 정조대왕의 효사상의 현대적 조명의 학술발표회, 효사랑 삼각근 캠페인을 마련해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과 후원자들의 3세대 신 가족 만들기 사회캠페인 전개, 성년식 거행, 한여름 밤의 3세대 효 문화축제, 효 문화 연극제, 정조대왕의 제례행사 거행, 정조대왕 탄신일 경축행사, 효 동영상 공모전, 효 백일장 개최, 효 문화 투어, 효동 효순이 CI 대중화 추진, 수원시의 효 관광지도 제작, 효 테마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준비 등 대단히 의욕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효사상연구회의 발전적인 계획안은 그동안 거론되었던 수원시와 정조대왕의 효 문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아무리 좋은 계획도 구상에서 그치고 구체적 실천의 단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역시 탁상공론이고 여전히 수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효 문화의 자원을 가진 도시이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안타까운 도시에 머물게 된다. 이제 계획이 실천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효사상연구원만의 몫은 아닌 것이다.

3. 효문화의 콘텐츠화 필요성과 방안

1) 정조의 효치와 효문화 콘텐츠의 필요성

정조대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기본 이론은 효치(孝治)였다. 그것은 그가 즉위 이후 벌인 정치적 사안들이 뛰어난 권모술수나 과단성을 과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그의 통치행위의 상당 부분이 비명에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그 효성은 다른 차원으로 승화된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행길에서 많은 백성들을 만났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자애로운 아버지[君主]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정조는 백성들과 거리를 좁히는 데 전력을 다하였고, 사망 직전까지도 백성들의 일반 민원사항을 직접 보고 판결할 정도였다.²⁶⁾ 이런 통치행위는 백성의 부모로서 군주의 위상을 확보하는 ‘효치’의 실천이다.

그 시절 정조가 의도하는 효의 의미는 분명 부모와 자식 관계의 가족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그것은 인간 삶에서 개인적·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행위의 근원에 자리하면서, ‘인간됨’을 지향하는 교화의 핵심이었다. 즉 효는 도덕을 실천하는 근원적인 힘이고, 우주적 생명력이며, 인간의 삶을 지속하는 기본 바탕이다. 따라서 자기 생명력의 근거를 확인하여 행위 규범을 정할 수 있고, 자기 위치를 인식하여 질서 의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을 실천하여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을 지닌 효는 인간의 성장 과정 전체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당위적 사명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고,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며, 자기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²⁷⁾

비록 효라는 개념이 과거의 통치기재였다해도 그 가치가 축소될 이유는 없다. 특히 정조대왕의 효를 통한 통치행위가 그 정당성을 담보 받은 이상 그러한 행위의 계승이 위축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변화와 빠른 신기술의 출현, 인구와 도시의 폭발적 증가, 새로운 조직과 제도의 발생, 과도한 물질문명과 복잡한 조직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이해 집단의 출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도덕 문제들은 한두 가지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도덕의식의 약화가 가장 두드러진 현대 사회의 병폐이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

26)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27) 신창호, 「정조의 효사상 실천방안에 대하여 : 다산과 관련하여」, 『민족사상연구』제14호, 2006.

쟁 사회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치지 않고,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현대사회가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정책과 과학 기술 만능주의를 불러일으켜 도덕의식을 약화시킨 점과 무관치 않다. 이에 따른 인간성 상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간성 상실로 인해 현대인은 육체적 쾌락과 물질적 만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하고 자살, 살인 등 너무 쉽게 생명을 포기하거나 훼손하는 생명 경시 풍조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문제는 그대로 대 사회의식의 결여로 이어진다. 특히 만연한 이기주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개인, 지역, 집단들 간의 대립, 갈등, 충돌 현상을 야기한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단에 속하게 되면 도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지경이며 또한 개인은 집단에 소속되어 집단의 이름으로 행동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양심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저지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심화되고 분업화 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직업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와 지역 간 지역 자치 단체 간의 대립의 심화는 더욱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더 이상 사회에 도덕적 행위규범을 요구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 구조의 도덕적 타락 문제 역시 심각한 지경이다.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특정한 기업이나 정치 집단이 일으키는 불법과 비리가 발생하는 등 사회 고질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불법과 비리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 의식의 개선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즉,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바탕한 제도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의 바탕 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명확한 전제가 있어야 하며 둘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진 규칙과 질서에 합의해야 하고 셋째,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해야 하며 그리고 시민들의 도덕심과 질서 의식의 함양을 길러 주어야 한다.

정조대왕 즉위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기본적인 통치행위의 바탕을 효에 두었다. 그의 모든 행위의 기준 역시 효였다. 그리고 그 효

의 실천을 왕 스스로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하들을 따르게 했고 또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다. 즉, 효라는 전래의 유교적 덕목이자 인간의 기본 윤리의식을 철저히 행함으로써 모든 통치 행위의 근간을 삼았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조는 정국을 주도하고 조선 역사 이래의 진경문화를 꽃피우는 효치를 실천 한 것이다.

효를 통한 통치는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효의 도시 수원이 이러한 효 문화를 선도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한다면 정조대왕의 꿈이 21세기에 이어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효 문화 콘텐츠의 방향

효 문화의 개발과 보급은 분명 과거와 같은 모습은 탈피해야 한다. 특히 과거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강요 위주의 효 문화와 주입식위주의 교육도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 효 역시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가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정조대왕의 도시이자 효치를 몸소 실천해 백성들의 감동을 자아낸 현장으로서의 수원시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수원시의 효 문화 선도사업은 전술한 (사)효사상연구회가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효 문화의 본격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 등 대외적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효 문화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현재의 효사상연구회의 확대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 문화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가 효 문화 사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효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유형의 자산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효 문화를 비롯한 통합과 화해의 정치사상과 같은 정조대왕 관련 무형의 유산에 대한 발굴과 선양사업들은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화성운영재단을 비롯해 화성사업소, 화성박물관, 역사박물관 등 많은 조직을 구성했지만 오히려 이런 많은 조직들이 정조대왕의 무형의 가치를 개발하는 데 혼선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조대왕을 위한 종합 연구조직이 필요하고 아울러 우선적으로 효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팀의 구성이 요구된다.

효 문화 콘텐츠 개발조직은 이미 효사상연구회에서 2009년도 사업구상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포괄적인 언사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므로 효사상연구회 산하 혹은 유관기관들과 논의하여 가칭 “효 문화 연구소”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 종합적인 콘텐츠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칭 “효 문화 연구소”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되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정조대왕의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과 화성연구소와 같은 지역 연구가들과 효 실천 모범 인사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전문가들까지를 포함하는 구성이 좋겠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효 문화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 뒤에 나와야겠지만 여기서는 그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효 문화연구소는 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부, 효 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부, 효 문화 전파와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이벤트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부, 유관 단체와의 연계 및 대 사회활동과 사업활동을 위한 대외사업부, 홍보 및 출판담당부서 등으로 세분화 해 조직한다. 연구소 각각의 조직들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서 효 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게 한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효 문화 연구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콘텐츠 개발연구부에서 효 문화의 개발과 선양 보급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효 문화의 콘텐츠는 전문가들의 협의와 토의 끝에 마련될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상되어야 하며 연구는 효 문화의 이미지 제고를 바탕으로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21세기의 적합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을 통해 효 문화를 한국의 또 다른 세계화시대의 대표 아이টে으로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효 문화는 학술적 내용은 물론 문화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효 문화의 계승과 보급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교육이다. 그러나 효에 대한 교육이 과거의 형태를 답보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기존의 교육방식을 바탕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와 영역의 교육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일테면 학생들에게 하는 효 교육을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우고 또 방과 후 학교를 통해 문화 체험과 외국어 교육 등 학과 수업 이외의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 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과 후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일정 정도 정규 교육이수과목으로 설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동적인 교육 체계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효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 수요자는 당연히 찾아와 정해진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일 뿐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찾아가는 효학교’와 같이 학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각급학교를 찾아가 효 문화와 관련된 강좌와 이벤트를 연결해 흥미로운 학습이 되도록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때 이벤트는 학생들이 호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백일장, 미술대회, 컴퓨터 게임대회, 연극대본이나 영화 시나리오 공모, 노래말 공모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밖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적 영향력이 큰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실시하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 대상 교육에는 효 사상이나 실천과 같은 것에 국한하지 말고 대중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 강좌를 포함해 병행 실시하면 대중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좌는 가급적 정기 강좌로 만들어 효 사상과 실천방안이 꾸준히 강조되고 또 숙지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교사연수 프로그램 역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의실에서만의 효 교육이 아닌 전국적인 효행 성지 등을 답사하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들의 효 인식 제고는 물론 풍부한 교육용 학습자료를 제공해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행사 이벤트부는 효 문화의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효 문화 진작과 인식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목적을 가진다. 효 문화 축제, 3대 가정 함께 살기운동 전개, 효 문화 음악 페스티벌,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과의 효 사랑의 삼각끈 잇기 캠페인, 성년의 날 행사, 효행 가정 선발대회, 다문화 가정의 효 체험 프로그램 개발, 효 문화 영화제와 연극제, 효 문화 동영상 공모전 등의 효 문화 행사 주관은 물론 정조 대왕과 관련된 효 문화 사업의 개발 등을 주로 맡는다. 특히 정조대왕과 관련된 진

찬례 재현, 항공에서의 공동 진급잔치 장소로 제공, 뒤주에 들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체험, 지지대 고개에서의 효행길 행사 등은 오직 수원시만이 가능한 효 문화 행사이므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면 전국적인 관심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도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부는 최근 점점 확대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효 문화 선도 작업을 책임진다. 즉, 사이버 효학교와 같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공간을 넘어서는 효 문화 전국화 또는 세계로의 확산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부는 사이버 상에 적합한 효 문화의 콘텐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세계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니만큼 그들과 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효 게임을 비롯한 음악, 춤, 영상, 애니메이션 등 개발 노력에 따라서는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사이버 공간일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 상의 효 관련 학술자료는 물론 일반적인 정보창구로서의 역할과 전자도서관의 역할도 충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대외사업부는 효 문화와 관련된 유관 사회단체들과의 연계사업과 효 문화의 사업적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캐릭터 산업과 같은 소프트한 효 문화 상품의 개발을 통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효행공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효 이미지 제고 등을 추진한다. 효 문화의 소프트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사업 등은 전문 사업체와의 제휴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참여 단체나 기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업체들에게 사업 참여 자체만으로도 효 문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부가적 효과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효행 공원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효행공원의 위치는 국도 1번 도로 옆으로 서울로 가는 길목이자 수원의 관문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하며 주변에는 노송지대를 비롯해 광고산으로 가는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지지대 고개와 노송길은 수원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효 문화 지역이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효행공원은 거의 방치되어 인적마저 드문 수원에서도 가장 외진 지역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그나마 효행기념관을 의무적으로 찾는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에게는 인식 자체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외사업부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은 물론 전문 업체와 시급히 제휴해 효행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테면 효행기념관과 노송지대 그리고

길 건너의 지지대 고개 기념비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하나의 효 테마타운이자 체험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지대 고개 정상에서 양쪽의 길을 연결해 수원의 랜드마크가 되는 조형물을 설치해 진정한 효의 도시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수원의 관문인 이곳에 효의 도시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없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대외사업부는 이밖에도 관광산업 차원에서 효 문화 투어와 효관광 지도 제작, 효 문화 산업의 수출 등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홍보 및 출판부는 효 문화 관련 홍보를 위한 사업과 관련 출판물을 담당한다. 여기서는 효 문화관련 자료의 수집 및 출간, 연구도서 발간과 특히 어린이 용, 중고등 학생용 및 성인용의 효 교재 제작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효 교재들이 준비 출판되어 효 문화의 전파에 일익을 맡아 주어야 한다. 또한 홍보 및 출판부는 정기 간행물과 소식지 등을 발간해 꾸준한 효 문화 전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아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효 문화 전파사(홍보대사)로 임명해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각종 행사를 통해 선발된 수상자들을 일회성 행사의 주인공으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효 문화 전파사로 임명해 그들로 하여금 입체적인 효 문화 전파의 전위대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임명된 효 문화 전파사들은 향후 수원시의 효 사상과 문화 산업의 인재로 효 문화 계승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효문화 연구소의 콘텐츠 개발 방안〉

부서	역할	사업
연구부	효 문화 콘텐츠 개발연구	- 효 문화의 마스터 플랜 - 효 문화의 종합적 매뉴얼 - 효 문화 콘텐츠 개발
교육부	효 문화의 계승과 교육	- 방과 후 학교 활용 - 찾아가는 효학교와 이벤트 행사 병행 - 상설 시민강좌, 문화강좌 - 교사연수교육

문화행사 이벤트부	효 문화 전파 확산의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 문화 축제(3대 가정 함께 살기운동, 효 문화 음악 페스티벌,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과의 효 사랑의 삼각근 잇기 캠페인, 성년의 날 행사, 효행 가정 선발대회, 다문화 가정의 효 체험 프로그램, 효 문화 영화제와 연극제, 효 문화 동영상 공모전 등) - 정조대왕 관련 행사(진찬례 재현, 행궁에서의 공동 진갑잔치 장소 제공, 뒤희에 들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체험, 지지대 고개에서의 효행길 행사)
인터넷부	사이버 상의 효 문화 개발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효학교 홈페이지 개설 - 사이버 게임 등 - 사이버 도서관
대외사업부	대외사업 및 효 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 문화 사업화 작업(캐릭터 사업 등) - 효행공원 활용 - 수원시의 랜드마크 조형물 건립 - 효 문화 산업 수출 등(관광 활성화 방안 강구)
홍보 출판부	홍보 및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 교재 발간 - 소식지 발행 - 정기 간행물 발간 - 효문화 홍보대사임명, 활동지원

맺음말

모든 계층의 인간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위 규범으로서 효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의 본분과 의무를 지닌다. 효는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교화의 내용이다. 원래 효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싹텄다. 그러나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사회 질서의 윤리 체계로 승화되었다. 그것은 효가 인간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핵심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효를 교화의 근원으로 삼고,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를 시도할 때, 효치가 된다. 이때 효치는 교화의 방법론으로 자리한다. 효치의 핵심은 '교화-도덕의 함양-충고'이다. 삶의 예술이 될 만한 내용을 잘 선정하고 가다듬어 위에서 교육하는 양식이 교화이다. 그 교화에 따라 스스로 삶의 예술을 익히는 작업이 도덕의 함양이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조심스런 충고가 요구되고, 이는 인간 사이의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²⁸⁾

효는 분명 오래된 과거의 개념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 사회의 주요 덕목이다. 분명 인간사회는 효라는 기재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고 또 주면서 지금까지 인륜이라는 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조선조 정조대왕은 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실천한 군주였다. 특히 그가 마지막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수원시는 그러한 그의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수원시는 정조의 숨결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그 흔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도시인 것이다.

물론 수원시는 효라는 주제 말고도 다양한 가치들이 살아있고 활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도시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수원은 정조대왕에 의해 완성된 도시이고 그 도시 건설의 핵심적 이념은 효 사상이었다는 점이다. 그 시절 정조대왕은 효라는 주제로 거대한 이벤트를 완성했고 그것에 신하와 백성들은 감동해 조선 최고의 문화적 전성기를 만들었다. 이제 효의 도시 수원시가 가장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계승하는 것은 후손된 당연한 도리이자 흔쾌해 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범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주변을 감동시켜 따라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효 문화를 수원시가 선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아진다.

참고문헌

『정조실록』 『弘齋全書』

김해영, 『正祖의 孝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노태구, 「正祖大王 孝思想의 現代의 照明」, 민족사상연구소, 『효사상과 평화통일학』, 2006.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오석원, 「유교의 효사상과 현대사회」, 『유교사상연구』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2000.

28) 신창호, 앞의 글 참조.

- 김성윤, 「조선후기 정조대의 수원육성과 천도시도」, 『부대사학』20,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6.
-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8.
-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 수원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1994.
- 신창호, 「정조의 효사상 실천방안에 대하여: 다산과 관련하여」, 『민족사상연구』제14호, 2006.
- 이덕일, 『정조와 철인정치의 시대』1, 2, 고즈윈, 2008.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학연구원, 1985.
- 임형진, 「정조대왕과 평화통일학의 모색」, 『민족사상연구』제14호, 2006.
- 최홍규, 「정조의 신도시 화성건설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사상연구』제14호, 2006.

정조의 기호남인 사상 포용과 화성 건설

상대영 (인천대학교)

-
- 머리말
1. 정조의 불교인식
2. 정조의 서학 인식

3. 畿湖南人과 화성 축성
맺음말
-

머리말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조선의 22대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조선의 지배 이념은 성리학이고, 왕은 그 이념의 수호자이어야만 하였다. 정조 역시 세손 시절부터 철저하게 성리학 이념을 교육 받고 그 논리대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어졌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은 성리학이 이념으로 채택되었던 그 옛날의 조선이 아니었다. 억눌렸던 상공업이 발달하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등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다.

세손 시절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여의었고 그 자신 온갖 생명의 위협을 견뎌내며 그 자리에 섰지만, 정조의 왕권은 그다지 공고하지 못했다. 정조는 자신이 기획한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양한 왕권 강화책을 구사하는데, 그 절정이 바로 화성 축성이다.

화성 축성은 1790년 姜游의 건의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실록에 나오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기 이전에 이미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왕권 강화의 배후 기지로 수원을 선택하였고, 그 빌미를 만

들기 위해 천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수원부 읍치를 조성하고 조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화성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대역사에 정조는 숙종대에 권력에서 밀려났던 남인들을 기용하여 그들의 머리와 노력으로 결실을 보게 하였다. 왜 그랬을까. 집권 서인들이 화성 축성을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여기에는 정조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집권 초 정조는 이념의 수호자답게 성리학 이외의 사상이나 이념을 배척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이념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주사를 건립하였다. 이같은 사고의 변화에는 그에 의해 기용된 남인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교와 서학에 대한 남인들의 의식 변화와 정조의 사상 변화 추이가 화성 축성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조의 불교인식

1) 18세기 기호남인 실학자들의 불교인식

정조의 학문과 사상의 다양성은 정조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여기에는 18세기의 사회변동에 고무된 흔적이 역력하다. 이미 18세기초부터 실학의 기운이 넘쳤고 정조대에 들어서서는 크게 융성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 실학자들 대부분이 불교를 이단으로 평가하면서도 포용하는 입장이었다.

남인계열 실학자의 거두인 성호 이익의 불교관은 당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익은 유학을 바탕으로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그는 불교를 ‘無君之教’¹⁾로 보면서도 불교의 좋은 점은 인정하여 당시 고통받는 불교계의 현실을 개혁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학자들의 속물근성을 비판하였다.

1) 『星湖僊說』卷21, 經史門, 高麗昏君.

“지금 儒術하는 자들이 말끝마다 이단을 배척하지만, 그 마음이 과연 이것을 붙들어야 하고 저것을 배척해야 하는 것을 밝게 아는지 알 수 없다. 만일 도를 보기를 밝게 하지 못하면 믿기를 독실히 하지 못한다. 나는 이 도를 믿어 지키기를, 불문에서 그 스승 높이듯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장차 어떻게 정밀하고 전일한 篤學을 배척하겠다는 것인가? 우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다. 나는 俗儒들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바가 네 가지 있다고 본다. 스승을 높이고 도를 믿는 것이 한가지요, 안일한 마음이 없는 것이 두 가지요, 食色을 끊는 것이 세 가지요, 대중을 사랑하는 것이 네 가지다.”²⁾

이러한 이익의 불교관은 일반 유학자들에 비해 파격적인 것이었으며 사상적 포용·융통·다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익은 ‘일반 백성들이 감히 간악한 행동을 못하는 것은 유교 성인의 덕화에 젖은 것이 아니라 부처의 冥罰을 받을까 두려워서’³⁾라고 하여, 백성교화의 측면에서 불교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림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자신들에게 약간이라도 해로움이 있으면 자신들이 받드는 성인을 초개와 같이 버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⁴⁾ 이와같이 이익은 불교의 좋은 측면을 말하면서 사회적·종교적으로 불교를 인정하는 면을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교가 대 사회적·시대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반성이었다.

한편 노론계열 실학자인 북학파의 홍대용도 불교에 대해 포용적인 인식을 취하고 있었다. 홍대용은 이미 젊은 시절 『楞嚴經』·『圓覺經』 등 여러 경을 읽고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佛書는 사람의 마음을 논함에 있어 그 말 만듬이 기이하고 놀라워 반성하고 깨닫는데 용이하다”⁵⁾라고 하여 불교 사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유교만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평가하지 않고 모든 학문과 사상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그는 孫蓉洲에게 보내는 글에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 『星湖僊說』卷13, 人事門, 俗儒斥佛.

3) 『星湖僊說』卷16, 人事門, 楊墨僧徒.

4) 『星湖僊說』卷16, 人事門, 楊墨僧徒.

5) 『湛軒書』內集 卷2, 「桂坊日記」, 乙未年 8月 26日.

“이단의 학문이 비록 여러 가지 있으나,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데는 한 가지이니,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좋아하는 바를 따르고, 저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여한다면 무엇이 손상되겠습니까? 가지런히 하기 어려운 것은 物이요,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장 심하니, 사람마다 각각 좋아하여 숭상하는 것이 따로 있거늘, 뒤라서 능히 이것을 통일하겠습니까? 그런즉 각각 그 선을 닦고 각각 그 능한 장점을 다하여 사욕을 버리고 선량하게 하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大同하는 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⁶⁾

당시의 유학자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홍대용은 시강원에서 세손 시절의 정조와 ‘주자를 비롯한 고명한 사람들이 佛道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 토론에서 정조는 불경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며 승려들의 佛書를 존봉하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⁷⁾

결국 남인계열의 실학자나 북학파 계통의 실학자나 유학을 바탕으로 두고는 있으나 불교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정조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불교관을 수용하였을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를 위하여 선대의 불교정책과 다른 정책을 펼쳐나갔다.

2) 정조의 불교인식과 정책

정조는 즉위 초 불교가 이단이라는 점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정조는 즉위 초 晝講에서 『論語』와 관련하여 宋德相과 대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성학과 이단의 도는 다르지만, 공부에는 진실로 차이가 없다.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儒者들이 혹 일찍이 좋아하다가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기도 했다. 佛氏에 이르러서는 우리 유학과 그 구분이 털끝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르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 이치에 근사하지만 진리를 크게 어지럽히는 것이다.”⁸⁾

6) 『湛軒書』外集 卷一, 杭傳尺牘, 與孫蓉洲書.

7) 『湛軒書』內集 卷2, 「桂坊日記」, 乙未年 8月 26日.

8) 『正祖實錄』卷6, 2年 12月 辛未.

정조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대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왕실의 원당을 금단케 해달라는 상소에 대해 이단을 물리침은 우리의 家法이라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있다.⁹⁾

그런데 정조는 승려들의 苦役을 보고 받고는¹⁰⁾ 신하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9년(1785) 2월 경상도관찰사 李秉模와 비변사가 건의하는 형식을 빌어 남·북한산성 義僧防番錢을 반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는 “승려들의 고역을 수습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德意를 받드는 도리가 아니다. 승려들도 백성인데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곡식을 아끼지 않겠다”¹¹⁾고 하였다. 즉위 초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그 사이 정조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정조대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불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조의 불교관은 이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위 14년(1790) 2월에 현릉원의 齋宮으로 용주사를 창건하였으며, 14년 8월 안변 석왕사에 비석을 세우라고 명하고 이듬해 5월 친히 비문을 내려 주었다.¹²⁾ 이 비문에서 정조는 “불교는 三教 중에 가장 늦게 나왔지만 그 영험함은 가장 두드러진다. 儒者는 이를 믿지 않지만 또한 왕왕 믿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부처에게는 자비가 있어 지성으로 빌면 무량한 呪力을 받을 수 있다”¹³⁾라며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정조는 용주사를 창건하고 부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석왕사의 비문을 짓는 등 好佛의 경향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또 20년(1796년)에는 “본인이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 일찍이 몰랐으나 『父母恩重經』의 내용이 너무나도 적절하고, 중생을 인도하여 극락으로 가게 함이 유학의 報本篤倫의 뜻보다 뛰어나니, 『부모은중경』을 널리 나누어 주라”¹⁴⁾고 하고 『奉佛祈福揭』를 지어 재를 올리게 했다. 봉불기복계에서 정조는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 偈語를 지음으로써 三業의 공양을 드리며 은혜에 보답하는 복전을 짓는다고 밝혔

9) 『正祖實錄』卷1, 卽位年 6月 癸丑.

10) 『正祖實錄』卷19, 9年 2月 辛巳. 정조는 암행어사의 啓達과 道臣의 장계에서 승역의 폐단문제를 듣고 있었다.

11) 『正祖實錄』卷19, 9年 2月 辛巳.

12) 『正祖實錄』卷32, 15年 4月 辛酉.

13) 『弘齋全書』卷15, 碑, 「安邊雪峯山釋王寺碑」.

14) 『弘齋全書』卷56, 雜著, 「印頌恩重經揭語仍倣其體命諸臣和之」.

다.¹⁵⁾ 불경에 대한 정조의 관심과 식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조선의 유신들이 불교를 가리켜 無君·無父之敎라고 해서 탄압을 서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은중경』은 孝順思想을 고취시킨다하여 널리 讀誦·書寫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배이념인 성리학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국왕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조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시책이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고 원찰 건립의 합리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왕권 강화와 연결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정조 재위기에는 불교에서 화엄학이 강세였다. 화엄학에는 왕권강화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화엄학의 승려들, 특히 화엄학 고승인 蓮潭有一이 나온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¹⁶⁾ 蓮潭有一은 자신의 저서인 『蓮潭集』에 존왕양이의 대의를 밝힌 詩를 많이 썼다.¹⁷⁾ 당대 최고 승려가 ‘존왕양이’에 대해 글을 쓴다는 사실은 정조의 불교인식이 華嚴學으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조 사후 화엄학은 급격히 기운이 약해지고, 그 대신 禪을 주제로 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진다.¹⁸⁾ 세도정치가 시작되는 정조 사후에는 왕권강화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는 화엄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 정조의 서학 인식

1) 기호남인의 서학인식과 西器論

16세기말 이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학은 17세기 명·청 교체기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청의 안정과 병자호란 이후 본격적인 전파가 시작되었다. 청과의 외

15) 『弘齋全書』卷55, 雜著, 「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16) 『東師列傳』卷3, 「蓮潭大師傳」.

17) 李英茂, 1990, 「蓮潭大師」, 『한국불교인물사상사』, 民族社.

18) 대표적으로 순조 때 白波와 草依의 논쟁을 들 수 있다.

교관계가 회복되면서 조선에서 연행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이들은 북경에서 천주교당을 방문하는 것과 더불어 서양의 서적을 수입하였다. 이에 조선 사회에 西學 書가 크게 유포되어 당시 名卿碩儒치고 서학서를 비치해 읽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¹⁹⁾

당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던 서학서는 서양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였고, 병자호란 이후 집권층은 국가안정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앙적 측면이 아닌 기술서 위주로 서적을 수입하였다. 선조년 간부터 현종대에 이르기까지 서학 관련인 인문과학서와 자연과학서가 대략 50여 종이 들어왔다. 이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간행한 서학서가 총 186종이라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 1/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²⁰⁾

서학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利器 중 특히 器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성호 이익이었다. 이익은 부친 이하진이 연행 시 수천 권의 서적을 구입해놓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서학서를 접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자신이 서울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최신 서적을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익은 조선후기 서학서와 관련하여 당대 최고의 정보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²¹⁾

성호는 종교 관련 서적보다는 기술 관련 한역서학서에 해당하는 曆算·천문·지리·과학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대체로 19종을 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성호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농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 발전을 위한 성호의 실학정신이 서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성호는 당시 조선에 전래된 서학 관련 서적을 모두 열람한 것으로 보여진다.²²⁾

성호는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뻬또하(방적아)의 저술인 『七克』이 유교의 克己 논설과 같은 것이라고 간주하여 자연스럽게 기편 서학을 적극 수용하였다. 성호는 인간의 운택한 삶을 위해 物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기편서학이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즉 기편서학이 이용후생이라는 관점에서 뛰어나다며 조선의 낙후성과 서양의 선진성을 곧잘 대비하였다. 또 서양과학과 문물에 대해

19) 『順菴集』卷17, 雜著 天學考.

20) 노대환, 「조선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83, 1997, 133~134쪽.

21) 노대환, 앞의 논문, 136쪽.

22) 이원순, 『朝鮮西學史研究』, 일지사, 1986, 116쪽.

적극적인 찬사를 보내고 수용을 강조하였으며 理篇 서학의 몇 부분만을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성호가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천주교가 인간의 利慾을 다스리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탄생 목적은 救世이며, 救世는 慾을 없애고 理를 회복시키는 일이므로 이는 ‘存理去慾’이라는 성리학의 명분과도 들어맞는다. 천주와 마귀는 논하는 설이 섞여 있어 해괴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理를 버리고 慾을 쫓는 세태’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²³⁾

성호의 이와 같은 서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후학들에게 서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기호남인계열이 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성호 이익의 조카이자 제자인 이가환은 정조가 훗날 체제공의 뒤를 이어 재상으로 키우고자 한 인물이었다.²⁴⁾ 이가환은 어린 시절부터 재주와 지혜가 남보다 뛰어났고 성장하자 풍채와 태도가 우람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문장이 조선에서 으뜸이었으며 기억력이 귀신같았다고 황사영이 평가할 정도였다.²⁵⁾ 그는 성리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天文과 기하학에 능통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서학서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승훈은 중국한역서학서인 『職方外記』·『西學凡』 등 서학서를 읽으면서도 천주교를 믿지 않다가 이벽과의 대화를 통해 서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성호의 직전을 이은 제자답게 서학의 器의側面에 관심이 많았다.²⁶⁾

체제공은 이익의 器篇西學을 계승한 인물이므로 개량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조선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는데 성리학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서학을 성리학을 대체할 만한 학문으로 평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유학을 존중하였고 이를 정학이라고 확인하였다. 그가 서학을 無父無君之教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학에서 上帝가 친히 강림하여 인간의 현실 세상에 간섭하여 인간을 도와준다는 학설에 대하여는 신선하게 평가하였으며, 더불어 서양의 과학기기 문명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²⁷⁾ 이러한 서학 인식은 훗날 정조를 보좌하는 과정에서 기호남인과 연관된 서학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포

23) 『星湖塞說』卷11, 人事門, 七克.

24) 『與猶堂全書』卷15, 墓誌銘, 貞軒墓誌銘.

25) 『黃嗣永帛書』46行.

26) 원재연, 『正祖代 西學과 天主教 普及』,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13쪽.

27) 趙珖, 『樊巖 蔡濟恭의 西學觀 研究』, 『史叢』17-鄭在覺博士 華甲紀念論叢, 1973, 309~312쪽.

용하며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기호남인 계열에서 성호를 계승한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는 다산 정약용이다. 그가 처음 서학서를 접한 것은 동부승지를 사직하는 疎에서 밝혔듯이 약관 초기였는데, 당시 서학서를 보는 유행에 따른 측면이 있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천문의 曆象과 農政의 水利器, 측량의 推驗法을 말하는 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해박하다고 칭찬하였다. 약관의 나이에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진출을 준비하던 다산은 서양의 기술 학문을 사모하였고 다양한 서적을 탐문하였다.²⁸⁾

당시 정약용은 서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死生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앙적 측면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과거를 위해 성균관에 들어온 이후 성리학에 치중하였고 진산사건 이후 서학과 거리를 두었던 것은 사실이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모두가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었기에 정약용 역시 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일찍부터 공부해온 서양의 과학기술 분야는 정조의 부름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릉원 천봉을 위한 배다리 제작과 화성축성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2) 정조의 서학 포용과 西器利用論

정조년간에 들어와 남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서학은 신앙의 실천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자신의 왕권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였고, 특히 군왕중심의 정치노선을 추구하는 남인계열의 신진학자들을 적극 등용하였다. 이러한 남인의 등용은 일당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던 노론을 자극하였고 노론 신료들은 채제공·이기환·이승훈·정약용 등 남인의 중심인물 중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인의 약점인 서학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노론 신하들의 이와 같은 서학문제 거론을 정치적 의도라고 파악한 정조는 서학에 대하여 온건하게 대응하면서 탕평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³⁰⁾

정조대에 들어와 서학의 신앙 문제 제기된 것은 이른바 명례방 사건이라 불리우는 추조적발사건에서 비롯되었다. 李堧과 洪福榮, 문인방 등의 역모사건을 수사하

28) 『茶山詩文集』卷9, 疏, 辨訪辭同副承旨疏.

29) 정약용, 위의 책.

30) 박현모, 「西學과 儒學의 만남-18C말 천주교 논쟁과 정조의 대응-」, 『정치사상연구』4, 2001, 4~6쪽.

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명례방에 거주하는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기호남인 계열의 이승훈 등이 형조 관원들에게 우연히 발견되어 적발된 사건이었다.

당시 장령 柳河源은 서양 관련 책들이 관상감의 역관들을 통해 들어오면서 전국에 퍼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도는 다만 하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임금이나 부모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말로써 백성들을 속이고 세상을 현혹시키니, 그 해독은 홍수나 맹수보다도 심하다며 邪敎를 금지하고 엄벌할 것을 청원하였다.³¹⁾ 유하원의 상소는 서학을 無君之敎로 규정하면서 정조에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교를 없애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내용이지만 정조의 친위세력인 기호남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국 이승훈이 개입된 추조적발사건은 서학을 사교로 규정지은 최초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정조는 유하원의 상소에 대하여 서학을 신앙적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를 차단하였고, 당시 명례방에 있던 서학 신도들에 대하여는 잡범으로 규정하여 모두 풀어주었다. 당시 이율, 홍복영, 문인방 등 역모사건에 연관된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고 정감록을 위주로 하는 邪敎 세력들도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을 명했지만, 서학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서 잡범으로 규정하고 사면해준 것³²⁾은 서학에 대한 그의 포용론과 더불어 자신의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에게 두 번째 서학 문제로 발생한 泮會事件 역시 기호남인과 관련된 일이었다. 명례방 사건에 관계되었던 이승훈이 또 다시 반회사건에 관련되었다. 반회사건이란 이승훈·정약용 등이 과거공부를 핑계대고 성균관 근처 마을 반촌에서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다 같은 남인 유생 李基慶에게 발각·폭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기경이 당시에 공론화시키지 않았지만 훗날 이승훈·정약용과의 개인적 감정과 천주교의 제사문제와 연계되면서 정조에게까지 알려졌다. 이기경은 이승훈과 자신은 함께 공부하는 절친한 친구로 정약용·강리원과 함께 서학서인 『天主實義』를 보았는데 그 중에는 간혹 좋은 내용도 있지만 이치에 어긋나고 윤리를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고변한 것이다.³³⁾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기호남인은 信西派와 功西派

31) 『正祖實錄』卷19, 9年 4月 戊子.

32) 『正祖實錄』卷19, 9年 4月 癸巳.

33) 『正祖實錄』卷33, 15年 11月 甲申.

로 나뉘게 되었다.

정조는 기호남인의 이승훈이 관련된 반회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포용론을 발휘하였다. 즉 정조는 천주교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였지만 이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노론과 남인의 정치적 대결로 확대되어 남인이 정치적으로 타격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정조의 이와 같은 공론화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문제는 다음해 채제공이 우의정으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³⁴⁾ 기호남인이 우의정으로 발탁된 것은 노론으로서는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노론에서 반회사건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1788년(정조 12) 8월 당시 정언이던 이경명이 상소하여 ‘요망한 학설로 종당의 화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를지 모를’ 서학을 엄히 다스릴 것을 요구하자³⁵⁾ 정조는 다음 날 어전회의를 열어 서학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확히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吾道와 정확을 크게 천명한다면 이런 邪說은 일어났다가도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그 책을 불살라 버린다면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정조는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면서 오히려 정확이 바로 서지 않아서라고 공박하였다. 더불어 정조는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오히려 邪學에 빠진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서양의 邪學이 여러 도에 두루두루 편재해 있으나 유독 영남과 海西에 들어오지 않았다. 영남은 퇴계의 유풍이 남아있고, 해서는 울곡이 베푼 교화의 영향을 또한 볼 수 있다. 내가 사학에 미혹된 무리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혹 너무 느슨하게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저 미혹된 자는 술 취한 사람과 같으니 술이 깨면 다시 정상인이 된다. 만약 그가 취했다 해서 재

34) 『正祖實錄』卷25, 12年 2月 甲辰.

35) 『正祖實錄』卷26, 12年 8月 辛卯.

36) 『正祖實錄』卷26, 12年 8月 壬辰.

빨리 법률을 사용해서 후회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 하는 것이니 내 어찌 이를 할 수 있겠는가?”³⁷⁾

이와 같이 정조는 서학이 비록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정확히 바로 서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정조가 이처럼 서학에 대한 대응을 온건적으로 한 것은 자신의 왕권강화를 위해 西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남인을 등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국정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이었다. 정조는 수학·역상과 관련된 서적의 수입 문제를 이가환에게 문의할 정도로 서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³⁸⁾

정조가 화성축성의 설계를 喪中인 정약용에게 맡긴 것은 그가 일찍부터 서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西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 축성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정조는 1781년(정조 5)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내각방서록』에 포함된 『기기도설』·『직방외기』·『서방요기』 등 서양의 과학과 인문지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 중 『기기도설』을 내려주었다. 정약용은 정조로부터 『기기도설』을 받아 引重과 起重의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起重架圖說』을 작성해 바치고 화성건설에 실제 이용하였다.³⁹⁾

농업과 상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구한 정조는 장기적인 정국운영과 훗날에 있을 신도시 수원 건설과 화성 축성을 西器에 능통한 기호남인과 함께 하고자 서학을 포용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3. 畿湖南人과 화성 축성

1) 현릉원 천봉과 수원 신읍치 조성

조선후기 정조 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화성 건설은 단순히 정조의 효심으로

37) 『弘齋全書』卷162, 日得錄, 文學.

38) 『與猶堂全書』卷15, 墓誌銘, 貞軒墓誌銘.

39) 노대환, 「정조의 서기 수용논의와 서학 정책」, 『정조시대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238쪽.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조는 즉위 초부터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정치권 내부 제 집단간의 권력 관계로 인하여 본인이 추구하는 개혁정치를 완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혁추진을 위해 정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정치력으로 개혁반대론을 제압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의 마지막 대안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도시 수원 육성과 화성 축성이었다.⁴⁰⁾

1762년(영조 38)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정조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반대 세력의 위협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형식적으로는 사도세자의 형인 眞宗(孝章世子)의 후사로 국왕이 되었지만, 사도세자의 아들이므로 ‘죄인’의 자식이라는 명에는 늘 따라다녔다. 특히 즉위 후 ‘逆賊之子 不爲君王’이라는八字뽀말이 돌아 정조에게 매우 큰 정치적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왕조의 중흥은 자신의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나 가능하고,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도세자의 복권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⁴¹⁾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창덕궁 인근에 景慕宮을 설치하고 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매달 경모궁을 방문하면서 사전 정치작업을 해왔던 정조가 1789년 천하명당지라는 화산 아래에 현릉원을 조성한 것은 사도세자의 복권 작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수원 읍치의 이전, 화성유수부로의 승격, 장용영외영의 설치, 화성성곽의 건설, 혜경궁의 회갑 잔치 등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정조가 자신의 정통성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었다.⁴²⁾

정조는 화성건설과정에서 화성은 ‘사도세자의 원침을 호위하고 행궁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다고 신료들에게 강조했다. 다시 말해 화성 건설은 사도세자의 복권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고, 훗날 자신이 왕위 양위 후 거처할 수원과 개혁정치를 실현할 군왕인 본인을 지키고자하는 의도였다.

정조는 혜경궁이 칠순이 되고 왕세자가 15세가 되는 1804년에 왕위를 아들(훗날의 순조)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현릉원과 가까운 화성행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40) 김성운,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華城축조와 水原 육성』, 지식산업사, 1997, 241~242쪽.

41) 박현모, 『正祖의 聖王論과 更張政策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42) 김문식, 『正祖의 華城 경영과 문헌 배포』, 『奎章閣』23, 2000.

겠다는 계획을 가졌다.⁴³⁾ 정조가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으로 은퇴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려는 의지 때문이었다.

정조는 자신이 국왕으로 있으면서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싶었지만 선왕 영조와의 약속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물론 국왕으로서 생부인 사도세자를 추존할 수도 있었으나 『繼志述事』를 기본 방침으로 내세우면서 영조의 정치적 뜻과 행위를 계승했다고 강조하는 정조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한다면 ‘壬午禍變’이 영조의 잘못된 판단에서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정조가 국왕으로 즉위하던 날 작성한 율음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종통을 중요하게 여기시어 나에게 효장세자의 후사가 될 것을 명령하셨으니, 예전에 선대왕께서 올린 상소를 보면 ‘근본을 돌로 하지 않는다(不貳本)’는 나의 뜻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엄히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정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다. (사도세자에게 올리는) 향사의 절차는 대부로서 제사지내는 예를 따라야 하며, 大廟와는 동일하게 할 수 없다. 혜경궁에 대해서는 경외에서 올리는 공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어야 하겠으나, 대비와 같을 수는 없다. 유사로 하여금 대신과 의논하여 절목을 정하여 아뢰게 하라”⁴⁴⁾

정조는 온 신료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정조의 이 한마디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 벽파세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정조는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밝힘으로써 사도세자를 일정정도 복원시키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 벽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도세자의 완전한 복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복권하는 최선의 선택은 자신이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뜻을 수차례에 걸쳐 혜경궁과 신하들에게 강조하였다.

43) 1804년 왕위 양위에 대한 문제는 혜경궁의 『閑中錄』에 일부 기술된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44) 『正祖實錄』卷1, 卽位年, 「綸音」.

“삼가 생각하건대 혜경궁에게 지어 내려 보낸 책에는 다음과 같은 정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자가 나서 甲子年이 되면 15살이 되어 임금의 자리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니 임금 자리를 전한 후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으로 옮긴다면 景慕宮에서 시행하지 못한 일도 펴 방도가 있을 것이다. 나는 영조의 지시를 직접 받았으므로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끝없이 원통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의리이다. 오늘 여러 신하들이 나의 의리를 따라서 감히 의논하지 못하는 것도 의리이며 다른 날 여러 신하들이 새 임금의 의리를 따라 받들어 가는 것도 역시 의리이다. 그리고 현릉원의 誌文을 친히 지었는데 거기에 써어 있기를 ‘말아들을 기다려서 중대한 일을 맡겨 크게 보답하는 소망과 축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⁴⁵⁾

정조는 영조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양위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789년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원자를 얻어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정조의 화성 건설을 통한 양위 의지는 현릉원 천봉 이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양위 후 화성으로 거처를 옮기고 사도세자를 복권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싶진 않았다. 정조가 조정에서 제작한 중요 문헌들을 화성행궁으로 보낸 것은 말년을 단순히 독서로 소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사도세자의 복권은 원대한 정국구상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었다.

정조는 영우원의 풍수지리상 문제점을 논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영우원을 천봉할 의지가 있었음을 신료들에게 천명함과 동시에 천봉을 위해 전국 여러 지역을 후보로 제시하였다. 그 중 정조는 유일하게 수원 읍내의 능원지를 칭찬하였다. 당시 수원 읍내에 國陵으로 置標하였던 곳은 세 곳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는 수원 부 관아 뒤의 봉표처를 선호하였다.

정조는 수원부의 자리를 풍수의 대가인 도선국사의 말을 빌어 ‘반릉농주의 형국이다. 참으로 福龍大地로서 용이나 혈이나 지질이나 물이 더없이 좋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천 리에 다시없는 자리이고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자리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대를 이어줄 자식을 낳게 해줄 천하의 명당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정조는 일찍 아들을 여의고 15년여 년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는

45) 『高宗實錄』卷39, 36年 8月 3日.

데, 현릉원으로 친원한 후 후궁인 綏嬪 朴氏를 통해 원자인 순조를 얻었다.

정조는 읍치 이전에 따라 수원부내에 새로운 관아와 민호를 건설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마련하기에 앞서, 민생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의 행정적인 읍민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하였다.⁴⁶⁾

첫째, 구읍민들의 이주비용으로 균역청의 돈 10만 냥을 수원부에 내려 주어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할 것.

둘째, 수원부에 맞닿은 광주부의 일용·송동 양 면을 수원부에 이속시킬 것.

셋째, 수원부에 구금되어 있는 모든 죄수들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모두 특사로 석방시키는 한편, 수원읍민으로서 유배 중에 있는 자도 죄의 경중을 묻지 말고 모두 특사 귀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각 유배지의 수령·방백에게 하명하고, 이러한 뜻을 민간에 널리 알리도록 할 것.

넷째, 원소 부근의 면리와 신읍치로 이주하는 민인들에게 10년 동안 무과세의 특전과 500결을 給復하고 신한곡을 탕감해 주며, 또한 수원부의 각 면리 민인들에게는 復戶 1년을 급여하고 구환곡 중 가장 오래된 환곡 3년조를 탕감해줄 것.

수원도호부 읍치를 팔달산으로 옮기기 이전부터 정조는 새로 이전할 읍터를 오래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현릉원의 친원과 읍치의 이전, 그리고 신도시의 건설은 유형원의 선견지명과 경륜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⁴⁷⁾

구 수원은 도성을 수호하는 도호부의 하나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하다보니, 사람의 원활한 소통보다는 폐쇄적인 형세를 취하고 있었다.⁴⁸⁾

여기에 비해 새로 옮겨 온 팔달산 아래는 삼면이 넓게 개방돼 있고 지형도 평탄하여 수원부사 조심태의 견해대로 삼남으로 통하는 요로였다.⁴⁹⁾ 도시 이전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다녀온 정조는 이곳이 삼남의 대대로 사람들의 생활과 제반 物理가 크게 승하다는 점을 이점으로 들었다.⁵⁰⁾

46) 앞의 글

47) 『正祖實錄』卷38, 17年 12月 丁卯.

48) 김동욱, 위의 책.

49) 『正祖實錄』卷30, 14年 5月 丁酉.

50) 『正祖實錄』卷27, 13年 7月 15日 己亥.

2) 기호남인과 화성 건설

1793년(정조 17) 1월 정조는 水原都護府를 華城留守府로 승격시키면서 화성유수부에 壯勇營外營을 신설하였다. 화성유수부의 승격은 1년 뒤에 있을 화성축조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었고, 화성 축성은 왕권을 강화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하고자 한 정조의 장기적인 정국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작업이었다. 이와 더불어 화성유수부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배후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었으므로 장용외영을 신설하였다.

1789년(정조 13) 현릉원 원침 이전으로 수원 신읍치를 건설한 후부터 화성 축성의 준비는 시작되었다. 현릉원 천봉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 6월에 부사직 姜游가 수원 신읍치에 성곽을 축성하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수원은 곧 충용청의 바깥 군영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鎭이고 더구나 또 막중한 능침을 받드는 곳이니, 의당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읍을 옮겨 설치하였으나 城池의 방어설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에 옮겨 설치한 것을 계기로 성지도 아울러 경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옛사람의 말에 ‘金城湯池’라고 한 것은 곧 참호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산을 의지하여 쌓게 되어 참호를 설치할 수 없으니, 이는 옛 제도가 아닙니다. 새읍은 이미 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한다면 실로 성을 설치하는 조건에 맞을 것입니다.”⁵¹⁾

강유는 수원 신읍치에 성을 쌓아 구읍치를 방어하던 禿山城과 연계하여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면 어떠한 적이라도 감히 쳐들어 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군사들을 불러들여 집을 짓게 하고 復戶 5백 결 내에서 그 절반을 군병에게 떼 주어 살아갈 길을 삼게 하며, 또 각 군문으로 하여금 신읍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게 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게 한다면 토지 없는 군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이라 하였다.⁵²⁾

51) 『正祖實錄』卷30, 14年 6月 己未.

52) 위의 글.

강유의 수원 신읍치 축성론을 이어 1791년(정조 15) 정월에 부사직 申基慶은 수원 신읍치에 축성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신읍은 곧 경사입니다. 빙 둘러서 사방에서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마땅히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질이 사석토질이니, 고대에 판축하는 제도대로 지대를 넓히고 搗築을 견고하게 하고 모래로 덮는다면 그 완고함은 석성보다 나을 것이고, 만약 모래, 돌, 흙을 섞어서 쌓는다면 그 견고함은 곱절이나 더할 것입니다.”⁵³⁾

이와 같은 강유와 신기경의 상소는 수원 신읍치에 성곽을 축조하고 강력한 군병을 설치하여 현릉원과 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는 다름 아닌 정조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했다. 정조가 수원으로 사도세자의 원침을 천봉한 것은 이 지역을 친위지역화하고 본격적 개혁의 진원지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수원 읍치 이전과 상권 부양책의 추진, 장용외영 주둔, 화성 축조로 구체화되어 갔다.⁵⁴⁾

정조는 화성축성에 대하여 “현릉원을 보호하고 행궁을 호위하기 위함”⁵⁵⁾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국왕 자신을 변란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시해사건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왕권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변란을 막고자 하였다. 수원 신읍치를 육성한 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친인 사도세자를 추존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정조는 1804년 왕위를 세자였던 순조에게 물려주어 조부인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케 하고 자신은 수원에서 상왕으로 국정을 경영하고자 하였다.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화성을 축성한 이유가 다름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조가 수원을 자신의 정국구상의 핵심거점으로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 수원이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군사상의 요지라는 점이다. 수원이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삼남의 튼튼한

53) 『備邊司謄錄』178책(冊) 15年 正月 21日.

54)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1997, 241~242쪽.

55) 『華城城役儀軌』卷2, 節目, 守城車節目.

배후지를 바탕으로 서울 이북의 적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둘째, 수원은 교통상의 요지여서 타지역에 비해 상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단순한 군사거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하삼도의 곡창과 군사를 보호하고, 군사적으로 주요한 거점이 되며, 장기적으로 거점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수원이 적격이었다.⁵⁶⁾ 따라서 정조가 군사력의 중추를 수원에 집결시키고 왕의 거처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원에 자신의 친위부대를 반드시 주둔시킬 필요가 있었다.

정조는 수원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1789년 현릉원을 천봉한 직후 수원도호부를 방비하던 총융청 소속의 향군 5초를 장용영으로 이관하여 장용영 향군 5초를 설치하였다. 수원은 현릉원 천봉 이전부터 왜구를 방비하는 군사적 요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총융청에서 독산성을 중심으로 향군 5초를 설치하였다. 총융청은 1초당 125명의 정원이었는데, 정조는 장용영으로 이관한 향군을 장용영 편제에 맞춰 각 초당 2명씩 증원하여 1초당 127명 도합 635명으로 조직하였다. 이들은 정조의 현릉원 행차를 수가하고 현릉원과 수원도호부를 호위했다.

이후 축성과 성제에 대한 논의는 국왕을 비롯한 조정의 대소 신료들 사이에서 한층 공론화되고 구체화되었다. 1792년(정조 16) 겨울 홍문관 수찬 정약용이 왕명을 받들어 수원성의 規制를 지어 올리니,⁵⁷⁾ 이것이 바로 축성에 관한 구체적인 초기 계획안이다.

이 계획안에서 다산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적인 설계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산이 정조에게 올린 「성설」이 이후에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그 큰 줄거리는 정조 16년 겨울에 입안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 계획안은 뒤에 『華城城役儀軌』권1, 「御製城華籌略」의 기본 뼈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⁸⁾

정조는 수원 신도시 육성을 위하여 1793년 1월 좌의정이자 기호남인의 영수인 채제공을 화성유수로 임명하였으며, 능침을 호위할 변화한 대도회 건설을 명목으로 본격적인 募民 방안을 강구하고 기타 지역민들에게 수원으로의 이주를 권고하

56) 金成潤, 위의 책, 250~253쪽.

57) 丁奎英 편, 『俟菴先生年譜』, 正文社, 1984.

58) 최홍규, 「화성축조와 화성성역」, 『水原市史』, 수원시, 1996.

였다.⁵⁹⁾ 또한 정조는 그에게 수원의 모민책과 시전 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맡겼다. 정조와 채제공은 10만호의 건설을 목표로 상업 활성화와 농업 활성화를 진행시켰다.

단시일에 성내외에 시장이 건설되고 서울, 개성, 평양 일대의 상인들이 옮겨왔으며, 성곽 주위에 저수지와 둔전을 개간함으로써 수원은 일시에 조선에서 가장 큰 대도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⁶⁰⁾

이러한 조선후기 정조시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현재까지 수원이 농업도시와 상업도시로 성장하며, 100만도시의 대도회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성역과 신도시 건설을 주관할 총리대신에 초대 유수를 지낸 영중추부사 채제공을, 그리고 수원부사를 거쳐 훈련대장으로 재임 중에 있던 조심태를 제3대 水原留守 겸 監董堂에 임명하여, 성역을 전담케 하였다. 이 날 새로 임명된 감동당상 조심태의 장계에 대해, 정조는 ‘공사를 감독하는 최선의 방법은 물동계획을 기동성 있게 처리할 것’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소신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⁶¹⁾

그리고 정조는 筵席에 동석한 채제공 등 조신들에게 우리나라와 중국의 성제를 본뜨고, 또한 스스로 ‘널리 고증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후인들로 하여금 오늘의 조정에 인재가 많았음을 알게 하도록 힘 쓸 것’을 강조하는 등⁶²⁾ 화성 성역이야말로 온갖 경륜을 투영하여 이룩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며, 역사적 사업임을 상기시켰다.

한편 축성비용에 대해서는 앞의 『반계수록』 兵制後錄 城池條에 담긴 유형원의 제안에 크게 계발을 받은 데다가, 채제공·조심태 등 관계 중신들의 건의도 같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금위영·어영청의 停番錢 10년분을 우선 取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⁶³⁾

1789년 수원 신읍치 이전부터 구상하고 진행되던 화성성역은 마침내 1794년(정조 18) 1월 15일 정조의 하명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⁶⁴⁾ 그리고 화성성역이

59) 『正祖實錄』卷37, 17年 3月 癸卯.

60)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61) 『正祖實錄』卷38, 17年 12月 乙丑.

62) 『華城城役儀軌』卷1, 啓辭, 癸丑 12月 8日.

63) 『華城城役儀軌』卷1, 筵說 癸丑 12月 6日.

64) 『正祖實錄』卷39, 18年 1月 癸卯.

仙寢을 위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행궁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화성건설의 숨은 뜻을 온 신료와 백성들에게 나타내었다.⁶⁵⁾

따라서 화성성역은 단순히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축성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행궁을 대대적으로 증축했으며, 또 도심부를 관통하는 하천의 준설과 가로 정비도 함께 진행되었다. 성밖에는 저수지가 조성되었으며 서울로 연결되는 신작로가 열렸다. 이러한 기반 시설 공사와 함께 驛村을 이전하고 시장을 건설하여 화성 신도시가 교통과 상업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런 종합적인 작업이 화성 성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이 작업을 통해 화성은 비로소 하나의 대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⁶⁶⁾

맺음말

수원은 정조의 야심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팔달산 동쪽 들에 건설된 그야말로 신도시이다.

정조는 세손 시절 불교나 서학 등 성리학 이외의 사상이나 이념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즉위 후에는 성리학을 정학으로 삼고 다른 사상이나 이념들은 이단으로 규정하여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선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려는 남인과 북학과 계열의 실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불교와 서학의 장점을 인정하였다. 정조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던 집권 서인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새로운 논리로 무장한 남인을 비롯한 실학자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그 자신도 성리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의견을 펼쳤다.

정조는 화성 건설을 자신의 왕권 강화와 연결시켰다. 따라서 자신의 배후 기지가 될 수원에는 단순한 방어 개념의 성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사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성곽을 요구하였다. 화성 축성에는 집권 서인들은 배제되었고,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남인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65) 『華城城役儀軌』卷2, 碑文, 華城紀蹟碑.

66)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화성은 한 쪽으로 편향된 이념 대신,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화성 건설에 투영한 정조와 남인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 결과 화성은 지금까지의 성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성곽으로 탄생하였다. 결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한국 유일의 성곽 구조로 말이다.

〈華城府城操圖〉의 자료적 가치

김 태 완 (수원화성박물관)

머리말

1. 〈華城府城操圖〉와 화성축성
2. 〈華城府城操圖〉와 군사배치

맺음말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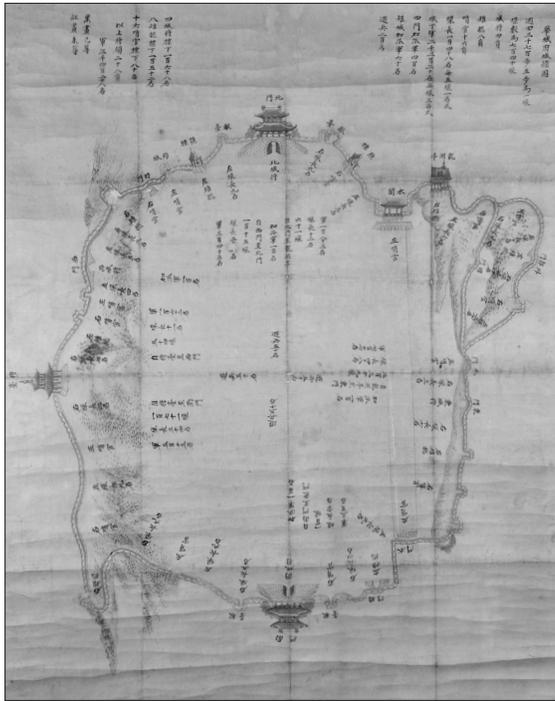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우리나라 성곽발달에 큰 분기점이 된 매우 중요한 성곽이다. 또한 축성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실학자들이 참여했고, 정조대의 정치 상황 및 군사개혁과 맞물려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다.¹⁾ 그러나 정작 화성 축성과정이나 화성에서 어떻게 군대가 배치·운용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하다.

우선 화성 축성과정을 보면, 1792년 겨울 정약용이 정조에게 「城說」을 올렸을 때 성은 둘레는 3600보(약 4.2km)였고, 이 내용은 『華城城役儀軌』권1, 「御製城華籌略」에 변경없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완공된 화성의 둘레는 4600보(약 5.4km)로 늘어나는데, 언제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또한 군사부분도 최근 장용영의 설치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는 했지만, 장용

1) 수원 화성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노영구, 2007「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다산 정약용의 築城 기술론」『茶山學』10 및 노영구, 1999「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진단학보』88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외영의 군대가 화성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²⁾

하지만 최근 수원화성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공개한 〈華城府城操圖〉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본 논문은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화성부성지도〉의 자료적 가치를 화성 축성과 군사 배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1] 〈華城府城操圖〉(육군박물관 소장)

1. 〈華城府城操圖〉와 화성축성

2) 장용영에 대한 연구성과는 김준혁, 2007『朝鮮 正祖代 壯勇營 研究』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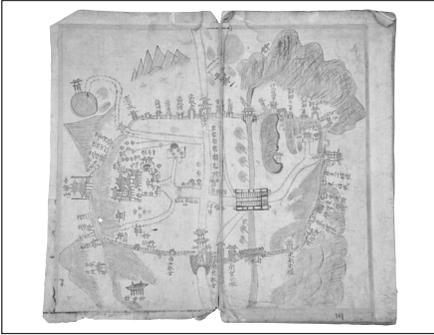
〈화성부성조도〉는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가로 100cm, 세로 76cm의 장지에 화성을 그린 회화식 지도이다. 이 지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맨 윗부분에는 그림의 제목과 화성에 배치된 군사의 종류와 숫자의 총수 및 아래 회화식 지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그 아래에는 화성지도와 각 시설물에 배치된 군사의 종류와 숫자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華城府城操圖〉의 上段 註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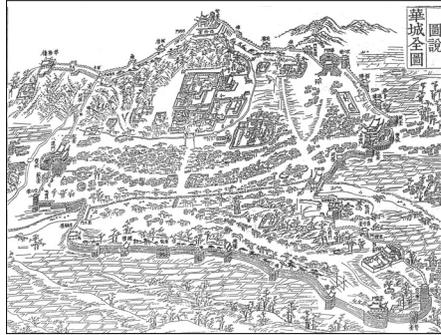
위부분의 주기 사항 중 처음 2줄과 마지막 2줄이 화성축성과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화성에 배치된 군사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처음 2줄은 “周面三千七百步，五步爲一塚，塚數爲七百四十塚.”라고 되어 있어, 화성의 크기가 3,700보이고 총 740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2줄은 “黑畫已築，紅畫未築.”이라고 되어 있어, 아래에 있는 회화식 지도에서 검은 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이미 쌓은 부분이고, 붉은 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아직 쌓지 않는 부분이란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렇다면 〈화성부성조도〉는 언제 그리고 왜 그린 것일까? 현재 화성을 그린 지도는 1799년경 그려진〈華城圖〉와 1801년 간행된 『화성성역의궤』에 있는 〈華城全圖〉, 그리고 1911년 만든 〈화성지적현황도〉가 남아 있다. 이 세 지도와 〈화성부성조도〉를 비교해 보면 서 제작연도 및 〈화성부성조도〉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華城府城操圖
周面三千七百步 五步爲一塚
塚數爲七百四十塚
城將四員
雉總八員
哨官十六員
塚長一百四十八名 每五塚一名式
城丁軍二千二百二十名 每塚三名式
四門加派軍四百名
雉城加派軍六十名
遊兵二百名
四城將標下一百六十八名
八雉總將標下一百五十二名
十六哨官將標下八十名
以上將領二十八員
軍三千四百二十八名
黑畫已築
紅畫未築



[그림2] <화성도>(수원박물관 소장)



[그림3] <화성전도>



[그림4] <화성지적현황도>(1911)

우선 화성의 북쪽 부분을 살펴보자. 『화성성역의궤』 권5, 「재용편」에는 화성의 북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평지 북성(무릇 8개소로 화홍문 북쪽으로부터 북동포루의 동쪽까지 124보 3척, 포루의 서쪽으로부터 북동성가귀의 남쪽까지 128보, 북동적대의 서쪽으로부터 북용성의 동쪽머리까지 42보, 용성 서쪽머리로부터 북서적대의 동쪽까지 41보 4척, 적대의 서쪽으로부터 북서포루의 동쪽까지 156보, 포루의 서쪽으로부터 북은구까지 92보 5척, 또 북포루의 동쪽까지 37보, 포루의 서쪽으로부터 서북공심돈의 동쪽까지 100보, 공심돈의 남쪽으로부터 서용성의 북단까지 15보 4척, 도합 737보 4척임)

화성의 북쪽 부분 그림

<p>화성부성조도</p>	
<p>화성전도</p>	
<p>화성도</p>	
<p>1911년 지적도</p>	

화성의 북쪽부분인 화홍문으로부터 서북공심돈까지의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성부성조도〉의 특징은 謙樓³⁾와 暗門이 있다는 점과 西北空心墩이 없다는 점이다. 우

3) 국방군사연구소, 1997「장조정식」『병학지남연의3』, 133쪽에서 “이층집을 樓라 하고 軍幕을 舖라 한다.”고 하였다.

선 암문은 계획만 되어 있고 쌓지 않은 부분인데, <화성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은구가 위치했던 곳으로 보인다. 성밖 도랑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1794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북지 굴착공사를 했고, 북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1794년 4월 7일부터이기 때문에 북은구도 이 비슷한 시기에 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성성역의궤』에는 북은구를 언제 쌓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적혀있지 않다.

그리고 초루는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북서쪽 성벽에서 초루와 옆의 치성의 자리는 현재 北西砲樓(1794년 9월 24일 완성)와 북포루(1795년 2월 20일 완성)의 위치와 일치해 보인다. 그리고 북동쪽 성벽자리에 있는 초루의 자리는 현재 北東砲樓(1794년 9월 23일 완성)가 위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화성부성조도>의 초루는 현재 화성의 砲樓의 초기 형태로 보인다.⁴⁾ 다만 성의 안쪽부분만 그려졌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벽돌로 마감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화성부성조도>의 다른 부분에서는 초루가 보이지 않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화성의 북쪽 부분을 가장 중요한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초루와 같은 방어시설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북공심돈은 현재 화서문의 바로 옆에 세워져있으나, <화성부성조도>에서는 화서문과 암문 사이에 설계된 치가 서북공심돈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성부성조도>에서 동북공심돈과 남공심돈도 그려져 있지 않고, 공심돈들이 남공심돈이 1795년 10월 18일, 서북공심돈이 1796년 3월 10일, 동북공심돈이 1796년 7월 19일로 다른 시설물들에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직 공심돈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⁵⁾ 이는 정조가 1797년 동장대(東將臺)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城制가 固陋하여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본래부터 雉堞의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새로 쌓은 성은 처음으로 치첩의 제도를 도입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따로 모서리를 만들어 성 전체를 싸안았으므로, 매 치첩에 두서너 사람만 세우더라도 좌우를 살피기에 편리하여 적의 동태를 엿보기 쉽고, 밑에서 쳐다보면 도리어 치첩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분간할 수 없도

4) 『다산시문집』권10, 「성설」 砲樓圖說 중 “砲樓 7개이다. 북문의 좌우에 각각 하나씩, 남문의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장대의 남쪽에 두 군데, 서문의 남쪽에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화성부성조도>에서 보이는 초루의 위치와 일치한다. 다만 나머지 5곳에 대한 부분은 <화성부성조도>에서는 빠져있다.

5) 『다산시문집』권10, 「성설」 砲樓圖說에서도 공심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록 되어 있다. 이제야 우리 나라도 성의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譙樓나 墩臺 등속은 가끔 엉뚱한 모양만 낸 것 같아서 실용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留守와 都廳 李儒敬이 다투어 논란하던 것으로 결국 도청의 주장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지만 나의 본뜻은 아니다.⁶⁾

즉, 초루를 砲樓라고 보면, 포루와 공심돈은 원래 계획에 없었고, 이를 두고 당시 화성유수였던 조심태(1794년 2월~1797년 7월)와 도청 이유경 사이에 심각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유경의 의견대로 포루와 공심돈이 정리되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정연식은 화성의 공심돈이 전투용과 척후용, 두 가지 계통이 있었다고 하였는데,⁷⁾ 현재 조심태와 이유경 사이의 논란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으로 화성의 남쪽 부분을 살펴보자. 『화성성역의궤』권5, 「재용편」에는 화성의 남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평지 남성(무릇 7개소인데, 남은구로부터 남서적대의 서쪽까지 44보 1척, 적대의 동쪽으로부터 남옹성의 서쪽머리까지 41보, 옹성 동쪽머리부터 남동적대의 서쪽까지 41보 1척, 적대의 동쪽으로부터 남암문의 서쪽까지 22보, 암문의 동쪽으로부터 남공심돈의 서쪽까지 30보 4척, 공심돈의 북쪽으로부터 남수문의 서쪽까지 73보, 수문의 동쪽으로부터 동남각루 아래까지 30보, 합계 282보임)

화성의 남쪽부분인 남수문으로부터 남은구까지의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성부성조도>의 특징은 남공심돈과 남은구가 없다는 점이다. 상남지를 1794년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팠고, 남쪽 성벽을 4월 16일부터 쌓기 시작했으며, 하남지는 1796년 7월 7일부터 27일까지 팠기 때문에 1794년 여름에는 남은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⁸⁾ 다만 『화성성역의궤』에는 북은구와 마찬가지로 남은구를 언제 쌓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적혀있지 않다. 남공심돈은 위에 언급한 대로, 기본 계획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서북공심돈과 달리 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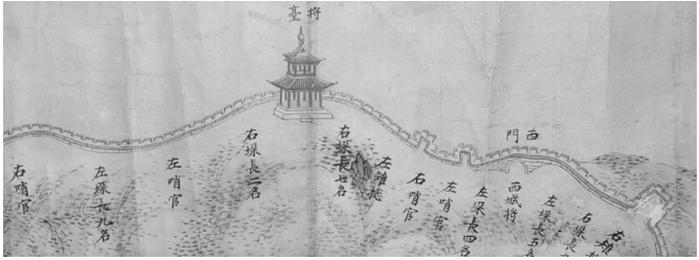
6) 『正祖實錄』卷46, 21年 1月 更午.
7) 정연식, 2001「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역사학보』169.
8) 비교적 늦게 하남지를 정비한 것은 축성공사 중 흙의 필요성에 의해서 팠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정약용의 설계와 비교해보면 팔달문과 장안문 양쪽 적대에는 敵樓를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⁹⁾ <화성부성조도>에서는 적루 없이 적대만 세우도록 되어 있고, 이후 이 것은 계획대로 되어 『화성성역의궤』에 적혀 있다.

화성의 남쪽 부분 그림

<p>화성부성조도</p>	
<p>화성전도</p>	
<p>화성도</p>	
<p>1911년 지적도</p>	

화성의 서쪽 부분 그림

화성부성조도	
화성전도	
화성도	
1911년 지적도	

그 다음으로 화성의 서쪽 부분을 살펴보자. 『화성성역의궤』 권5, 「재용편」에는 화성의 서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9) 『다산시문집』 권10, 「성설」 砲樓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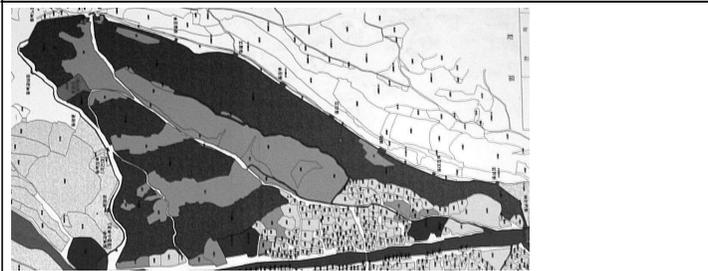
산상 서성(무릇 10개소인데, 화서문 남쪽에서 서쪽 1치의 북쪽까지 216보, 1치의 남쪽에서 서쪽 포루의 북쪽까지 121보 4척, 포루의 남쪽에서 서쪽 2치의 북쪽까지 140보, 2치의 남쪽에서 서쪽 암문의 북쪽까지 130보, 암문의 남쪽에서 서쪽 포루의 북쪽까지 126보, 포루의 남쪽에서 서쪽 3치의 북쪽까지 140보, 3치의 남쪽에서 서남 암문의 서쪽까지 101보, 포루의 동쪽에서 남치의 서쪽까지 90보, 남치의 동쪽에서 남쪽 은구의 서쪽까지 47보. 합계 1,193보 4척)

화성의 서쪽부분인 화서문으로부터 남치까지의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성부성조도>의 특징은 화서문에 웅성이 없고, 서암문과 서남암문이 없다는 점이다. <화성부성조도>에서 화서문은 누각도 없고 웅성도 없는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95년 11월 13일 홍예가 완성된 뒤, 12월 11일 상량해서 이듬해인 1796년 1월 8일 누각을 완성한 뒤,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웅성을 쌓았다.

화서문에서 서장대까지 단지 치가 2개만 계획되어 있고, 서장대에서 팔달문까지는 치 2개만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화서문에서 서장대까지는 치 2, 砲樓 1, 角樓 1로, 서장대에서 팔달문까지는 치 4(용도의 치 2 포함), 角樓 1(용도 포함), 암문 2, 舖樓 1, 砲樓 1로 방어시설이 대폭 증가되었다. 그럼 화성의 서쪽부분이 이렇게 방어시설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뭄으로 축성공사가 중지된 후, 성벽의 높이가 낮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지형의 이점을 계산에서 더욱 낮아진 팔달산 주변의 성벽을 치성을 비롯한 각종 방어시설로 보완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시설물 중 서암문이 1796년 6월 18일 홍예가 완성되었고, 서남암문은 8월 6일 홍예가 완성되어, 8월 11일에 서남포사가 완공되었다. 용도는 7월 16일 공사를 시작해서 9월 7일 완공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늦은 시기에 착공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성의 동쪽 부분 그림

화성부성지도	
화성전도	
화성도	
1911년 지적도	

그 다음으로 화성의 동쪽 부분을 살펴보자. 『화성성역의궤』 권5, 「재용편」에는 화성의 동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산상 동성(무릇 14개소인데, 동남각루 아래에서 동쪽 3치의 남쪽까지 89보

3척, 3치의 북쪽에서 동쪽 2포루의 남쪽까지 123보 1척, 포루의 북쪽에서 봉
돈의 남쪽까지 105보, 봉돈 북쪽에서 동쪽 2치의 남쪽까지 114보, 2치의 북쪽
에서 동쪽 포루의 남쪽까지 110보, 포루 북쪽에서 동쪽 1치의 남쪽까지 110보
2척, 1치의 북쪽에서 동1포루 남쪽까지 125보, 포루 북쪽에서 동쪽 웅성 남쪽
까지 180보 2척, 창룡문 북쪽에서 동북노대 남쪽까지 96보, 노대 북쪽에서 동
암문 동쪽까지 376보, 암문 서쪽에서 동북포루 북쪽까지 137보, 포루 서쪽에
서 웅성 동쪽머리까지 76보 4척, 웅성 39보, 웅성 서쪽머리에서 화홍문 동쪽
까지63보, 합계 1,751보임)

화성의 동쪽부분인 동남각루로부터 동북각루까지의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성부
성조도>의 특징은 이중성으로 설계되었다는 것, 수문이 있다는 점, 그리고 동장대,
동북노대, 봉돈 등 중요시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이중성 부분은 정약
용의 설계로 보인다. 『다산시문집』권10, 「성설」砲樓圖說 중에서

敵臺는 9개이다. 남문과 북문의 좌우에 각각 하나씩, 동문과 서문의 좌우에
각각 하나씩, 東郭門의 북쪽에 1를 설치한다.

角城은 7개이다. 동암문의 북쪽에 2, 동곽문의 남쪽에 2, 동문의 남쪽에 2,
서문의 북쪽에 1를 세운다.

라고 나와서, 정약용이 설계할 당시 동쪽 성을 이중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화성에서 이 부분만을 이중으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동북공심돈이 자리하고 하고 있는 부분은 仙岩山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지
세가 높아 만약에 적에게 이 고지를 내 준다면 화성의 방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에 본성에 덧대어 외성을 쌓아서 이 지역을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이후 축성과정에서
이중성을 본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북쪽 성벽
이 취약해지는 것을 동북공심돈, 동북노대 등의 방어시설로 보완하였다. 그리고 성
의 동북쪽이 크게 팽창하게 되어 원래 팔달산 정상에 설치한 장대 하나로는 완벽하
게 지휘할 수 없어 동장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장대와 동장대와의 신
호 및 연락이 문제가 되어 중포사를 설치하는데, 이는 동장대가 1795년 7월 15일
터 닦기를 시작해서 1795년 8월 25일 완공되었는데 이후 1796년 8월 6일 중포사
가 완공되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화성부성조도>에서 보이는 수문은 위치상 동지(하동지 1794년 4월 7일 ~21일, 상동지 1795년 9월 14일~23일)와 관련되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수문과 이중성은 화성의 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약용의 「성설」에서는 3,600보로 설계된 것이 <화성부성조도>에서는 3,700보로 확장되었다가 최종적으로 4,600보로 축성된다. 이에 대한 단초는 『화성성역의궤』권1, 「연설편」갑인년 정월 15일조에 나타난다.

임금께서 화성부로부터 환궁함에 신하들이 배석하였다. 이때 임금께서 군복을 갖추고 가마를 타고 팔달산에 올라 두루 성터의 형세를 살펴보기를 마치고, 감동당상 조심태에게 하교하여 말씀하시기를, “장대의 터는 높고 우뚝하여 바라보기에 마땅하며, 모양은 웅장하고 밝아서 참으로 이른바 하늘이 만들고 땅이 설치한 것이라 하겠다. 북쪽 마을의 인가가 이리 저리 흩어져 있는 곳은 3번 구부리고 3번 꺾어서 성을 쌓으면 川자 모양을 할 것이니 柳川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花請觀에 돌아오셔서 陪從한 時原任 대신에게 입시하라 명하시고는 하교하여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팔달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營府가 웅장하고 閭閻이 즐비하여 참으로 큰 도회지이다. 5, 6년 동안에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도회를 이룬 것이 이처럼 빠른 것을 보니, 나는 실로 매우 기쁘다. 억 만 년의 유구한 계획은 人和가 가장 귀한 것이다. 조금 전에 성터의 기를 세운 곳을 가늠하여 보니 성 밖으로 나갈 인가가 꽤 많을 듯하던데, 만약 모두 헐어서 철거한다면 어찌 인화를 귀히 여기는 뜻이 되겠는가? 성터의 남북으로 거리가 또한 너무 가까우면 이것은 더욱 먼 장래를 경영하는 도가 아니다. 이제 이에 성을 쌓는 데 이미 벼들잎 모양을 하고 있고 또 川字의 모양을 본떠서 구불구불하게 터를 정하였으니, 인가는 자연히 성 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곧 이어 말을 타고 출발하여 행궁의 案山에 이르러서, 조심태에게 하교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이른바 一字文星 자리인데, 여러 의론도 이곳을 문성 자리로 여기고 있다. 문성은 돌이 겹치었으니 용연과 砂角이 좌로부터 안으로 굽어들어 2가지가 여미어진 것 같다. 마땅히 內文星에 축성하고 城形을 조금 줄여서 사각을 물리고, 外문성에는 따로 토성을 쌓음으로써 內城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外문성으로부터 축성을 시작하여 용연의 모래펄을 건너 질러 내문성과 같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하였다. 용연에 이르러 여가를 멈추고, 구암(龜巖)을 가리키며 하교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자 문성을 2겹으로 하여 옹호하는 것은 더욱 完厚하고 공고한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였다.

최초 설계 후, 1793년 12월 8일 성터와 수원부를 그려오라는 정조의 명령에 따라 12월 9일 훈련대장 조심태와 도청 이유경이 화성 성터를 살피러 나가고 그림을 올린 뒤, 정조가 1794년 1월 15일에 화성을 둘러본 후 개진한 의견이 바로 위의 내용이다.

화성 축성 중 민가의 철거 문제로 정조가 화성의 확장을 지시했고 그때 아마 최초의 설계변경이 되어 100보가 확장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본디 외성은 토성으로 쌓으려 했기 때문에 화성의 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외성을 먼저 쌓으라는 정조의 지시에 의해 외성을 석성으로 쌓게 되면서 4,600보로 화성이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화성부성조도>는 언제 그려진 것일까? 아래의 표와 <화성부성조도>를 비교해 보면 대략 지도가 그려진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도에서 축성계획 중으로 나타나는 장안문 누각의 경우 1794년 9월 5일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장안문의 웅성은 완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완공일은 1795년 2월 27일이다. 즉 『화성성역의궤』의 기록과 <화성부성조도>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시설인 동장대의 공사가 1795년 7월 15일에 착공하여 1795년 8월 25일에 완공되고, 창룡문이 1795년 5월 8일 착공한다. 이 시점에서 동쪽 성벽의 이중성 문제가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795년 초에 당시 화성 성역을 책임지고 있던 훈련대장 조심태와 도청 이유경이 화사를 동원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부성조도>의 군 배치도에서 보이는 것을 미루어 보면, 혜경궁 회갑연시 성조 및 야조를 위해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안문의 웅성이 1795년 2월 27일 완공된 것과 팔달문의 웅성은 1795년 4월 21일에 착공하는 것은 혜경궁의 회갑연을 위해서 정문인 장안문의 웅성은 먼저 공사하고, 그 안에 끝날 가능성이 적은 팔달문 웅성은 회갑연 뒤로 미뤄서 착공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화성의 중요 공정

시설/공정	터담기	흙예 완성	주춧돌	상량	누각 완공	옹성 시작	옹성흙예 완성	옹성 완공
장안문	1794. 2.28	1794. 7.10	1794. 7.15	1794. 8.15	1794. 9. 5	1794.10.20	1795. 1.16	1795. 2.27
팔달문	1794. 2.28	1794. 8. 2	1794. 8. 7	1794. 8.25	1794. 9.15	1795. 4.21	1795. 5.12	1795. 5.20
창룡문	1795. 5. 8	1795. 9.11	1795. 9.16	1795. 9.27	1795.10.17	1796. 8. 6		1796. 8.14
화서문	1795. 7.21	1795.11.13	1795.11.18	1795.12.11	1796. 1. 8	1796. 8. 8		1796. 8.16
북수문	1794. 2.28	1794. 8. 3	1794. 7. 9	1794.10.13	1795. 1.13			
남수문	1794. 2.28	1796. 1.16	(1795.11시작)		1796. 3.25			
서장대	1794. 8.11		1794. 9.10	1794. 9.16	1794. 9.29		1795. 2.28	(노대 완공)
동장대	1795. 7.15		1795. 7.26	1795. 8.10	1795. 8.25		1796. 4.14	(노대 완공)
동북공심돈					1796. 7.19			
남공심돈					1795.10.18			
서북공심돈					1796. 3.10			
화양루	1796. 4.16		1796. 7.11	1796. 7.13	1796. 7.20	1796. 7.16	~9.7 용도	
동남각루					1796. 7.25			
서북각루					1796. 7. 9			
용연정	1794. 9. 4		1794.10. 4	1794.10. 7	1794.10.19			

2. 〈華城府城操圖〉와 군사배치

〈화성부성조도〉에는 화성 지도 아래에 군사 배치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를 『화성성역의궤』 권1, 「계사편」을묘 정월 24일조에 보이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보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수원유수 조심태의 기사에, “성의 공사를 비록 마치지 못했으나, 남문 북문의 문루가 새로 세워졌으며, 평지의 성첩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임금의 수레가 본부에 이를 때면, 성정군이 성가퀴 위에 늘어서서 영접하는 등의 절차는 마땅히 예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의 군사 훈련과 야간 훈련은 이미 임금의 수레가 화성부에 도달한 뒤 4일째에 거행할까 합니다. 만약 첫 날부터 모여 기다리게 하면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되어 심려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화성부에 도착하는 날에만 읍터나 부근 면과 리에서 모아,

거기에 있는 군인 몇 명을 북성 위에 늘어 세워서 거행합니다. 문의 모퉁이에 꽃는 깃발과 성의 장벽에 꽃는 깃발들은 각 성의 將領이 정해진 곳에 안배하여 꽃게 합니다. 그리고 정식 군사 훈련일 때는 하루 전에 모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그렇게 하라. 화성부에 들어가는 날은 단지 성 안 및 성 밖의 몇 리 안에 사는 사람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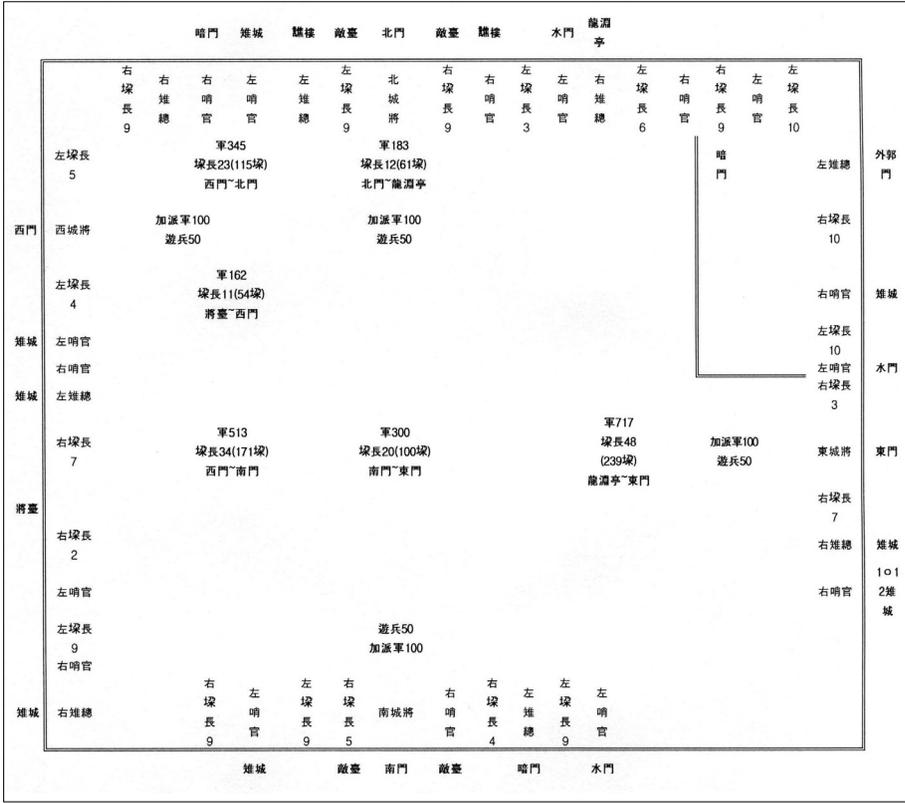
[표 2] 〈華城府城操圖〉의 군사 수

구분		인원	비고
將領	城 將	4	
	雉 總	8	
	哨 官	16	
	계	28	
軍	塚 長	148	5타 1명
	城 丁軍	2,220	1타 3명
	四門加派軍	400	
	雉城加派軍	60	
	遊 兵	200	
	4城將 標下	168	성장 당 42명
	8雉總將 標下	152	치총 당 19명
	16哨官將 標下	80	초관 당 5명
계	3,428		

1795년 1월 24일 조심태는 화성의 평지성 부분이 완성되었다고 보고하고 군사들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아뢰었다. 〈화성부성조도〉는 장안문 좌우와 팔달문 좌우의 평지성이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완공된 것으로 나와 있고, 아래쪽에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화성부성조도〉의 상단 주기 내용에 있는 군사 수를 표로 만들면 아래 [표 2]와 같다. 화성에는 장교 28명과 군사 3428명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4개의 성문에 성문장, 8개의 치에는 치총이 배치되어 있었고, 여장 1타당 3명씩 성정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성의 중앙에는 유사시에 군사를 보충하는 加派軍 및 遊兵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를 〈화성부성조도〉의 아랫 부분에 있는 시설별 군사배치로 맞추면 [표 3]과 같다.

[표 3] 〈華城府城操圖〉방어시설별 군사 배치



그렇다면 〈화성부성조도〉에 보이는 군사들은 어디 소속이었을까? 정조는 1793년 1월 12일에 화성유수부를 승격하고 장용외영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1월 25일에 내영과 외영의 절목을 새로 정하여 장용외영을 설치하면서 기존 수원에 주둔했던 충용청의 방어영 26초와 장용영 前司 5哨를 장용외영으로 편제시키고 지휘를 장용외사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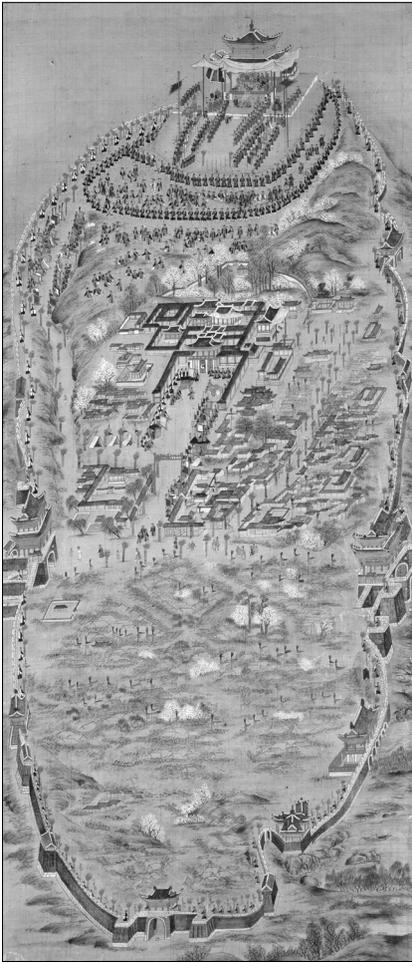
이때 확정된 외영의 병력은 수원도호부 때의 병력인 別驍士 2초, 馬兵 4초, 속오군 26초, 각읍 標下軍 547명, 輜重軍 200명 등으로서 약 4,811명의 군사들이 확보되었다.¹⁰⁾ 한편으로 정조는 1794년부터 화성유수부에 성곽을 축성할 것을 준비하

10) 『正祖實錄』卷37, 17年 1月 己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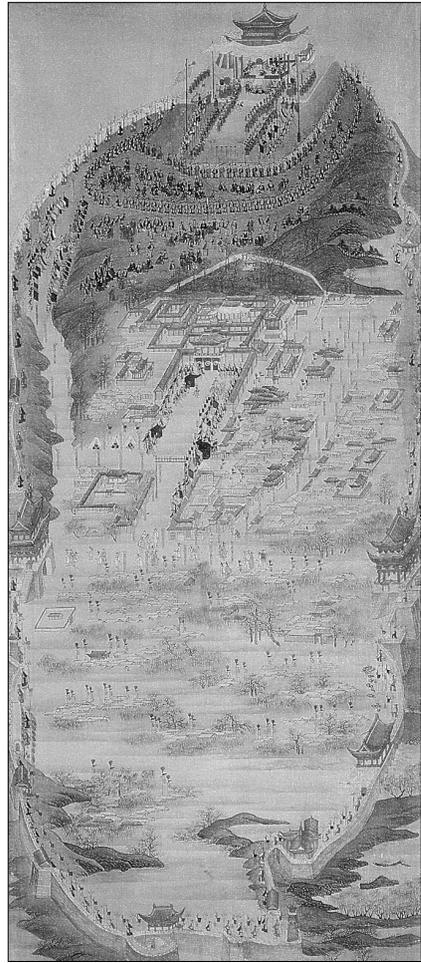
면서 城丁軍을 편제하였다. 전 총융청 소관으로 집에 머무르는 군관 150명, 화성유수부 방어사영의 번을 면제받은 군관 290명, 討捕使 소속으로 번을 면제받은 군관 459명을 성곽을 지키는 守堞軍官으로 호칭을 바꾸고 화성유수부의 軍需別武士 2,002명에서 馬士 204명을 감한 1,798명 그리고 留防軍 702명을 성정군이라 명칭하고 장차 성곽을 수비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였다.¹¹⁾ <화성부성조도>의 성정군 2,220명은 1795년 초반의 화성의 성정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 화성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성정군의 수가 늘어 『壯勇營故事』에서처럼 성정군이 2,500명된 것이다.

그리고 <화성부성조도>가 1795년 초반 작성된 것을 고려하면, 이 지도에서 보이는 군사배치는 아마도 윤2월 12일에 있었던 성조와 야조의 기본 배치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두 개의 그림도 창룡문에 적대가 그려진 것(고궁박물관 소장)과 웅성이 그려진 것(리움 소장), 또한 남수문이 문루가 있고 없고 등등을 보아도 각자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틀렸던 것을 알 수 있다.

11) 『壯勇營故事』卷7, 丁巳 正月 25日.



[그림5] 〈화성부성조도〉(고궁박물관 소장)



[그림6] 〈화성부성조도〉(리움 소장)

이후 1793년 10월까지 척계광의 척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정비되었던 장용외영의 군제는 화성축조가 완공되는 전후에 외영제의 확립에 따라 몇 차례 군제개편이 뒤따르면서 오위제를 바탕으로 한 협수군 체제로 바뀌었다. 1797년이 되면 화성에서 협수군 체제에 의해 배치되는 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이 8,620명의 성정군으로 화성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에서 올린 군제와 협수군에 관한 추가 절목 및 수정 절목

...1. 城池가 있으면 管城將이 없을 수 없으니, 본부의 판관으로 差定합니다.

1. 성의 제도는 4門 8角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雉堞을 설치했습니다. 城將의 문을 막고 雉摠은 모퉁이[角]을 지키며 16哨官은 목적지로부터 나누어 소속되어 節制를 받으니, 이는 대개 兵家の 四頭八尾의 의의를 취한 것입니다. 성장은 4員이니 경내의 武臣堂上으로 일찍이 實職을 지낸 사람을 차출하고, 치총은 8원이니 堂下官으로 이력이 있는 전직 관원을 차출하고, 초관은 16원이니 出身으로 宣傳官·部將·守門將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면 누구든 융통성 있게 차출합니다.

1. 守堞軍官은 47인인, 본부에 있는 內營의 향무사(鄕武士)를 소속시켜 節制 받게 하고 액수는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고 그 실수를 차등있게 錄案하여야 할 것입니다. 外營에 전일 府使가 있을때 哨官廳의 오래 근무하는 자리로 되었던 곳은 본청에 부쳐주어 親軍衛의 正領과 돌려가며 遷轉하는 자리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派守篇에서 5塚마다 塚長 1인을 두도록 한 제도에 따를 경우 타장이 180인이 되니, 이는 부사가 군관중에서 융통성있게 타를 계산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1. 城丁軍 8,620명을 각종 納米軍으로 단속하고, 軍丁의 총수는 한결같이 都案에 있는 대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除番軍官이 997명, 別武士가 2,002명, 步軍保가 1,560명, 需米軍이 2천 명, 留防軍이 702명, 減馬保가 444명, 西庫別武士가 300명, 屯壯初가 186명, 輜重保가 100명, 屯牙兵이 125명입니다. 그리고 城塚 913회에 塚長이 5타마다 1인이니 합계 180인이고 堞마다 성정군이 5명씩으로 합계 4,565명인데, 이를 배치하고 더 파견할 경우 남·북문에 각 150명, 동·수문에 각 100명, 상·下水門에 각 100명, 南暗門에 100명, 三暗門에 각 50명, 四角樓에 각 90명, 燧臺에 50명, 南北縣溝에 각 40명, 甬도에 155명, 舖樓·砲樓·雉旆臺·敵臺·空心墩 등 합계 22개 처에 660명으로 나누어 배치하게 됩니다.

1. 堞에 배치한 것과 더 파견한 것을 합쳐 계산하면 도합 7천 명인데 남은 군정이 아직도 1,62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塚夫를 兼設하는 것은 正軍을 단속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니, 우선은 없는 셈으로 쳐 두었다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동원해서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¹²⁾

12) 『正祖實錄』卷47, 21年 12月 乙丑.

맺음말

이상과 같이 〈화성부성조도〉를 화성축성과 군사배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화성축성의 경우 장안문의 누각과 옹성, 동장대 그리고 창룡문 등을 살펴보면 1795년 원행을 위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안문 옹성이 1795년 2월 27일 완공된 것과 팔달문 옹성은 1795년 4월 21일에 착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오는 행차를 맞이하기 위해 정문인 장안문 옹성은 먼저 공사하고, 팔달문 옹성은 회갑연 뒤로 미뤄서 착공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화성부성조도〉의 군사배치의 경우 1795년 윤2월 12일의 성조 및 야조를 위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93년 화성의 기본 계획을 훈련대장 조심태와 도청 이유경이 그린 것이 한글본 『덩니의궤』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¹³⁾ 1795년의 이 지도도 조심태와 이유경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조가 譙樓나 墩臺 등이 도청 이유경의 주장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한 것¹⁴⁾을 미루어보면 공심돈이나 砲樓 등 화성에서 새롭게 대두된 방어시설은 조심태나 이유경이 설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존에 화성축성에 관한 것을 정조와 정약용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하였지만, 〈화성부성조도〉는 화성의 축성 및 장용외영의 운영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13) 옥영정, 2009『『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한글본 『덩니의궤』에 수록된 “화성성역”의 분석과 비교』 『서지학연구』42.

14) 『正祖實錄』卷46, 21年 1月 更午.

1940년대 수원 출신 학생 독립운동가 金容昶

박 환 (수원대학교)

-
- | | |
|-------------------------|--------------------------|
| 머리말 | 2. 김용창의 상경과 고학, 그리고 항일투쟁 |
| 1. 김용창의 성장과 향남공립보통학교 시절 | 맺음말 |
-

머리말

수원군 향남면의 경우 1919년 4월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일제에 의하여 수많은 마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 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심하여서인지 향남면지역에서는 별반 항일운동이 전개된 것 같지 않다.

그런데 1940년대 전반기 이곳 향남면 출신의 19살의 어린 학생이 서울에서 고학하면서 항일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다 1945년 4월 3일 대전형무소 옥중에서¹⁾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순국한 애뜻한 일이 있었다. 그의 부친 또한 동년 4월 13일 향리에서²⁾ 아들의 순국소식을 듣고 운명하였다. 그의 항일운동은 동면에서 1919년에 있었던 제암리 학살사건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³⁾ 이 인물의 고향 상두리 선영 앞

1) 김용창 독립유공자평생이력서.

2) 김용창의 부친 김언수의 비문(향남면 상두리 김요창 홍상 옆에 소재)

3) 『에국지사 고 김용창 추모홍상제막식』 책자 중 친족인사 대표 친족대표 김덕중, 1996년 6월 11일.

에는 그의 흉상이 서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작성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그의 항일운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김용창(金容昶) 1926. 8. 3 ~ 1945. 4. 3



김용창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이다.

1941년 10월, 서울로 상경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법문학부(法文學部) 사환, 체신국 경성보험관리소(京城保險管理所)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야간에는 덕수공립상업학교(德壽公立商業學校)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3년 6월경부터 동 근무지의 대우가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이 있음을 알고, 이 때부터 한국역사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여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

그 후 1944년 4월 중순경 같은 학교 동료인 김익설(金益晷)에게 소기(小磯) 조선 총독의 민족차별정책을 비난하였으며, 5월에는 보험관리소 사무실에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미국·러시아·상해 방면에서 조선인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이 독립하면 나는 일본인을 쫓아 버릴 작정이다. 이번 전쟁에 일본이 패한다 하더라도 조선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못 이기는 편이 행복하다고 생

각한다”고 말하는 등 민족정신 고취에 노력하였다.

또한 동년 5월 초순 보험관리소 대변소의 판자 벽에 연필로 “반도 2천 6백만 동 포여. 자 일어서라! 조선 독립의 때가 왔다. 지금 와서 지원병이니 징병이니 하고 있다. 아아! 가련하도다”라고 써 붙이는 등 민족정신 고취에 진력하다가 소위 치안 방해 혐의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1944년 12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4월 3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김용창은 1945년 4월 해방을 4개월여 남기고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지금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자료적 제한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한다.

필자는 이번에 김용창의 재판기록, 신분장지문원지, 1937년도 향남공립보통학교 앨범, 김용창 학적부, 동생인 김용무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그의 생애의 일단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재판기록과 면담록은 앞으로의 그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별첨한다.

1. 김용창의 성장과 향남공립보통학교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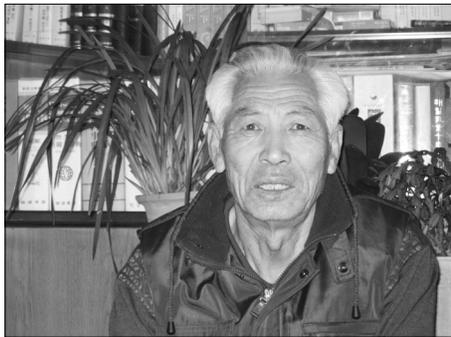
1) 김용창의 출생과 가정



김용창 출생지

김용창은 1926년 8월 3일⁴⁾ 수원군 향남면(鄕南面) 상두리(上斗里) 222번지에서 출생하였다.⁵⁾ 그가 출생한 상두리는 『화성지』(1831년 간행)의 남면 마을 편에 상두리가 표기된 것으로 보아 원래 수원부의 남면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 때에 향남면 상두리가 되었다. 마을 뒷산의 모습이 흡사 용의 머리처럼 생겼고, 마을이 그 용의 머리위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원래는 용두리(龍頭里)라 해야 하나 머리 두(頭) 대신에 말 두(斗) 자를 써서 두리(斗里)라 불렀다고 한다.⁶⁾

김용창은 광산김씨 판교공파 16대손인 아버지 김언수(金彦洙)와⁷⁾ 순천박씨인 어머니 박종례(朴鍾禮)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⁸⁾ 김용창은 1940년 8월 15일 이름을 김무등(金武登)으로 개명하였다.⁹⁾ 창씨명은 금산무등(金山武登)이다.¹⁰⁾ 그의 집안에 대하여 김용창의 동생 김용무(1940년 9월 10일생)는 2005년 12월 31일 필자와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김용창 동생 김용무

필자 : 원래 광산 김씨시구요?

김용무 : 예 분이 광산이니까

4) 향남초등학교 소장 김용창 아동학적부에는 1926년 11월 21일 생으로 되어 있다.

5) 김용창 신분장 지문원지

6)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2』, 2005, p.844.

7) 김언수 비석

8) 김용창 제적부(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사무소 소장)

9) 김용창 제적부

10) 김용창 신분장 지문원지

필자 : 무슨 파세요?

김용무 : 우리 판교공파예요.

필자 : 판교공파? 판교공파시구요 그럼 원래 대대로 상두리쪽에 지방에서 사셨나요?

김용무 : 그렇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용자 항렬로다가 17대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17대 선조가 흥상 바로 위에, 바로 그 흥상위에 산이 있어가지고 17대 할아버지는 거기 모시고 있어요.

필자 : 거기가 지금 선산이시군요?

김용무 : 예.

라고 하여 조선중엽부터 상두리에 세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¹⁾

김용창은 상두리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농민집안출신이었다. 김용창의 동생 김용무와의 면담에서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자 : 그러면은 그 원래 17대손 어른신부터 여기 쪽 상두리 사셨는데 집안은 어떻게 먹고 살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상두리 여기 와보니까 눈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김용무 : 예 여기 그전에는 우리 아버님이 4형제의.

필자 : 아버님 존함이 아까 언자

김용무 : 언자 수자요.

필자 : 언자 수자.

김용무 : 예. 4형제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김용무 : 아버님께서

김용무 : 예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마 상당히 못살았나봐요.

2) 김용창의 향남공립보통학교 재학과 졸업

11) 흥상 제막시 친족대표 김덕중의 글 참조.

향리에서 김용창은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 2년 동안 강습소에서 공부하였다. 그 후 1933년 8월 21일 향남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¹²⁾ 학교는 수원군 향남면 백토리 551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1925년 5월 15일 향남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35년 5월 1일에는 부설 발안간인학교가 개교하였다. 1938년 4월 1일 향남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41년 4월 1일 향남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김용창이 재학하던 시절의 교장은 일본인으로 이등시삼랑(伊藤矢三郎)(1934.3-1938.3)이었다.¹³⁾ 교장은 1901년생으로 일본 서북부 지역의 니가다현(新潟縣)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1920년 3월 니가다 현립중학교를 졸업하고, 1921년에는 조선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를 졸업하였다. 동년 4월 조선 보병 제 78연대 10중대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1922년 3월 육군 보병 군조(軍曹)로 제대하였다. 그 후 경기도 장연공립심상소학교 훈도를 비롯하여 고양공립보통학교, 안성공립농업실업학교 훈도 등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1934년 3월 향남공립보통학교 교장에 임명되었다.¹⁴⁾

그리고 교사 즉 훈도는 1936년 당시 조재설(趙載高), 박기중(朴基鍾), 김규황(金奎晃), 김재준(金載濬), 조정남(趙慶男) 등이었고,¹⁵⁾ 1937년에는 촉탁으로 김점여(金點如, 金点汝) 등이 있었다.¹⁶⁾

조재설은 1899년 10월 경기도 수원군 비봉면 출생이다. 1921년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에는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1926년 향남학교가 개교하면서 부임하여 1937년 김용창이 졸업할 당시까지 근무한 원로 교사였다.

박기중은 1909년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신촌리 출생이다. 그는 1928년 3월 경기도 공립사범학교 특별과 제 3학년을 졸업하고, 남한산, 오천(午川) 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역임하였다. 1936년 3월부터 향남고일보통학교 훈도로 근무하였다.

김규황은 1911년 7월 2일 경기도 수원군 의왕면 왕곡리 출생이다. 1925년 3월

12) 김용창 아동학적부.

13) 경기도 화성교육청, 『화성교육사-오산 화성교육 50년-』, 2006, pp.532-533.

14) 향남초등학교 교원이력서.

15)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1936).

16)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1937).

군포공립보통학교 5학년을 수료하고, 1927년 경성 제1공립고등보통학교 2년을 수료하였다. 1930년 경기도 공립사범학교 특과 3년을 졸업하고, 동년 5월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에 임명되었다. 1933년 3월 31일부터 향남공립보통학교에 훈도로 근무하다가 1936년 11월 고천(古川)공립보통학교로 전근하였다.

조경남은 1913년 경기도 진위군 청북면 청성리 출생이다. 1936년 3월 대구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하고, 동년 4월 경기도 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임명되었다. 아울러 동년 동월 4월 1일 향남공립보통학교 훈도로 명받았다.

김점녀는 1911년 경남 마산 출생이다. 1927년 3월 경남 마산 공립여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3월에 경기사범학교 여자연습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1928년 3월 삼랑진 보통학교 훈도, 1930년 3월 통영보통학교 훈도를 거쳐 1936년 12월 2일 향남보통학교 촉탁으로 임명되었다.¹⁷⁾

향남학교가 설립될 당시인 1920년대 화성지역에는 1928년 1면 1교제의 방침이 발표되어보통학교가 급증하고 있었다.¹⁸⁾ 그리하여 남양공립보통학교, 송산공립보통학교, 태장공립보통학교, 팔탄공립보통학교, 반월공립보통학교, 안릉공립보통학교, 장안공립보통학교, 동탄공립보통학교 등이 개교해 있었다.¹⁹⁾

재학당시 김용창은 학교 성적이 우수하였으며, 보호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숙부 김연수(金連洙)였다.²⁰⁾ 김용창은 재학시절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이과, 직업, 도화(圖畵), 창가, 체조 등을 공부하였다. 그는 재학 중 결석이 거의 없었다. 3학년 시 3일만 결석하였다. 또한 성적도 고학년시 우수하였다. 그는 졸업당시 신장이 134.5m 였으며, 체중은 28.1kg이었다.²¹⁾

17) 향남초등학교 교직원 이력서.

18) 이기훈, 「1902-30년대 보통학교와 지역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54, 2008.3, pp.131-132.

19) 경기도 화성교육청, 『화성교육사-오산 화성교육 50년-』, p.394.

20) 김용창 아동학적부.

21) 김용창 아동학적부.



향남학교 1938년도 3월 졸업

김용창은 향남공립보통학교를 1937년 3월 25일 졸업하였다.²²⁾ 당시 졸업생은 총 67명이었으며 그중 여학생은 7명이었다. 김용창과 함께 졸업한 동창생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진순 강형순 권혁열 김계순 김병덕 김선경 김영운 김완규 김용기 김용숙
 김용창 김의수 김일기 김재국 김진성 김천중 김학수 박재의 박정의 박철의
 서정인 성낙균 성낙봉 성낙승 성삼용 송기오 송순화 신천호 안병극 안상균
 안상석 안상완 오만선 오성영 오창환 유세식 유윤희 이길우 이문호 이상기
 이상덕 이상민 이상철 이상홍 이영남 이윤희 이제호 이주호 이창우 이한탁
 임병원 정정희 진석범 최병상 최부길 최석원 최용균 최장균 최호승 하상호
 한우택 한찬식 허진 홍종경²³⁾ 伊藤直哉²⁴⁾

김용창은 1937년 3월 25일 향남공립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였으나 가세가 빈한하여 서울로 고학의 길을 떠났으며, 독립운동 당시의 주소는 동대문구 창신동 615-12번지였다. 그의 학교생활과 상경에 대하여 동생 김용무는 다음과 같이 말하

22) 김용창 아동학적부.

23) 향남공립보통학교 졸업생 명부 참조.

24) 향남공립보통학교 훈도 伊藤矢三郎의 아들이다.(향남공립보통학교 학적부참조).

고 있다.

필자 : 어려우셨군요?

김용무 : 예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남이 품을 팔고 이래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용자 창자 형님이 국민학교서부터 공부를 워낙 잘했네요.

필자 : 여기서 국민학교를 어디로 다니셨나요?

김용무 : 여기 향남 그땐 향남 보통학교라고 했죠 향남 보통학교 그러니까 향남 초등학교지.

필자 : 지금의 향남초등학교?

김용무 : 예 지금 향남 초등학교지 그래가지고서는

필자 : 거기 다니셨고?

김용무 : 예 거기서 국민학교를 나와 가지고서는

필자 : 저기 그 향남초등학교가 어딴가요?

김용무 : 여기 백토리

필자 : 백토리 거기에 향남초등학교가?

김용무 : 예 거기있어 가지고선 거기서 저기 해가지고선 국민학교때부터 먼 저 집에서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남이 징용가는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그 저 돈을 받아지고서는 그 돈으로다가 징용을 가기 위해서 그 뒤로는 서울로다가 갔다나봐요.

필자 : 징용 때문에 돈을 받아서 남의 돈을 받아서 대신갈라고?

김용무 : 예 대신갈라고 돈을 받아가지고 서울가 가지고서는 징용을 안가고 덕수 지금도 덕수고등학교지? 덕수고등학교 거기 저 저기로 들어 갔다나 봐요 청소부로 들어갔다나봐요.

즉, 김용창은 학문의 길을 위하여 남 대신 징용을 가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서울로 몰래 도망하였던 것이다.

2. 김용창의 상경과 고학, 그리고 항일투쟁

1) 민족의식의 형성

1930년대 후반 전시파시즘기로 들어오면서 학생들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외의 청년층 역시 일제의 어용적인 관제청년단체를 통해 통제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청년이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때 가장 많이 제기되는 점은 바로 자신의 존재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즉, 학교 교육의 여건이나 방식, 내용에 대한 불만과 졸업 이후의 진로, 즉 취업문제 등과 관련되었다. 왜냐하면 교육현장에서는 오로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작업과 황국신민의 양성에만 치중하였고, 또 막상 일본에 유학하여 대학까지 마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족간 차별정책이 존재하는 가운데 제대로 취업을 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존재조건에서부터 청년 학생의 불만은 점차 높아져 갔고, 이들은 점차 일제의 내선일체론이 매우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당시 조선사회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출했던 계층은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층이었다. 이러한 불만의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식민지 구조 하에서는 차별과 모순은 극복하기 어려우니 극복을 위해서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드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점차 민족운동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발전했다. 학생층의 민족운동이 일제 말 전시파시즘 아래 국내의 조선민중이 수행했던 민족해방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요컨대 학생들이 가장 불만으로 느꼈던 것도, 또 그들이 민족적 감정과 의식을 갖게 되는 것도, 일차적 원인은 바로 그들이 직면한 현실, 즉 사회도처에서 발견되는 철저한 차별제도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조선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였다.²⁵⁾

이러한 시점인 1941년 10월 김용창은 서울에 상경하여 덕수 공립 상업학교 야간반²⁶⁾에 진학하였다.²⁷⁾ 경성 부립 덕수 상업학교는 1939년 6월 1일 개교 예정으로

25) 변은진,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pp.60-68.

26) 김용창공격비(향남면 상두 1리 소재)

27) 1944년 12월 14일 경성지방법원 김용창 판결문

인가되었다. 덕수 상업학교는 가정이 빈곤하여 진학하지 못하는 생도를 위해 경성부 학무과에서 계획한 것이다.²⁸⁾ 재학 중이었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비등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법문학부(法文學部) 사환, 체신국 경성보험관리소(京城保險管理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²⁹⁾

그가 재학하기 이전인 1942년 2월 15일 경성 덕수상업학교 학생 임중목(林鍾穆)(20) 외 급우 8명이 학우 동지 공제회를 조직하여 총독 정치를 배격하고 반일 작문(反日作文)을 작성하여 윤독(輪讀)하면서 민족정신을 함양하였다고 용산서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기도 하였다.³⁰⁾ 이러한 상황은 김용창의 민족의식 형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혈기에 차 있었던 김용창에게 그의 직장 생활은 마땅치 않았던 것 같다. 1943년 6월경부터 김용창은 그의 직장 생활에 더욱 불만을 갖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자의 대우에 있어서 조선인 일본인 간에 차별이 심하였던 것이다.³¹⁾

이러한 외중에 김용창은 한국역사책들을 접하게 된다. 이는 그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³²⁾ 당시 그가 어떤 한국사책을 읽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유행한 역사책들을 통하여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최남선의 『조선역사』 등 과거 조선의 역사와 인물에 관한 것이 유행하였다. 암울한 식민지 상황에서 민중들은 과거의 고대사나 고려 조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선도 독립국이었고, 찬란한 문명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에 강점됨으로써 비참한 시절로 들어섰음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서 조선을 독립시켜 화려한 문화를 건설하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또한 과거 위인의 활동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순신 등의 전쟁 영웅이나 이율곡 이퇴계 등 학자들의 행적, 고려 말 정몽주의 일편단심 등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다. 식민지화된 이후에는 안중근이나 윤봉길 등의 영웅적 행동을 보면서 현재에는 그러한 영웅들이 없어서 조선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청년인 자신들이 그들과 같은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영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외에

28) 東亞日報 1939.5.19 朝鮮總督府官報 1939.6.22.

29) 1944년 12월 14일 경성 지방법원 김용창 판결문.

3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8권, p.519.

31) 판결문.

32) 판결문.

서 무정투쟁을 전개하던 김일성 등의 활동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고, 그와 함께 활동하고자 만주로 가려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³³⁾

김용창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역사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게 되자 그는 조선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민족의식은 더욱 고양되었다. 그 결과 김용창은 조선인은 조선인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한 행복한 생활은 기대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만이 살길임을 인지하고 마음속으로 조선독립의 시기가 도래할 것을 희망하였다.³⁴⁾

2) 항일투쟁과 체포, 순국

김용창은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우선 동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용창은 1944년 4월 중순경 그가 하숙하고 있던 경성부 동대문구 창신정(昌信町) 651번지의 12호 주택 내에서, 같은 학교 학우 금촌익설(金村益高)에게 “소기(小磯) 총독은 조선과 일본은 동조동근이라고 줄곧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일 차별이 있다. 뭐가 동조동근인가”고 말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즉 김용창은 일본의 식민지사관을 비판하고 아울러 내선일체 동조동근론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다.³⁵⁾

이러한 동조동근론은 1936년 8월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남차랑(南次郎)이 이전시기 우현일성(宇垣一成)의 내선융화론을 발전시켜 식민지통치의 기본방침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³⁶⁾

둘째, 김용창은 1944년 4월 하순(일자 미상)에 경성부 중구 장곡천정(長谷川町) 도로에서 같은 학교 학우 송본무(松本茂)를 만났다 그는 친구에게 “관리소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싸움을 하고 일본인 계장은 조선인이 담배 피운다고 꾸짖으나

33) 변은진, 위의 논문, p.110.

34) 판결문.

35) 판결문.

36)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pp.27-34.

일본인이 담배 피워도 꾸짖지 않는다. 또 계장은 조금도 조선인을 보살펴주지 않는다. 자기는 계장과 죽고 살기로 싸움을 해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우리들이 지금 아무리 민족운동에 노력해도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지도하여 주지 않고는 성취할 수는 없다. 멀지 않아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였다. 즉, 김용창은 직장에서의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³⁷⁾

셋째, 김용창은 1944년 5월 중순(날짜 미상)에 경성부 중구 장곡천동 도로에서 금촌(金村)·송본(松本) 두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험관리소에서는 항상 일본인과 조선인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선인 쪽이 이기기도 하고 또 조선인 쪽에서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역시 조선인에는 기백이 있어서 독립할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다. 즉 김용창은 조선인에게는 기백이 있어 독립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함께 독립운동을 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³⁸⁾

넷째, 김용창은 1944년 5월 중순(날짜 미상), 체신국 경성보험관리소 징수와 사무실에서 동료 정목청(正木淸)과 대화를 하였다. 그의 대화 속에서도 김용창이 얼마나 강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대답 중 그가 그의 아버지는 조선인이지만 어머니는 일본인이므로, 어머니 적에 입적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하여, “자네는 부친이 조선인이므로 조선인이다. 지난달 조선에서는 독립을 도모하고자 만세사건 등 봉기가 있었으나, 무기가 없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현재는 지원병제와 징병제가 실시되어 조선인은 다수가 병정이 되므로 조선은 반드시 독립한다.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우수하고 실제로 미국·러시아·상해 방면에서는 조선인이 활발하게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조선이 독립하면 나는 일본인을 쫓아 버릴 작정이다. 이번 전쟁에 일본이 패한다 하더라도, 조선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히려 못이기는 편이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³⁹⁾

37) 판결문.

38) 판결문.

39) 판결문.

즉, 김용창은 해외에서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면서 일본의 패전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이후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⁴⁰⁾

다섯째, 김용창은 1944년 5월 초순(날짜 미상), 체신국 경성보험관리소 1층에 있는 화장실 판자벽에, 가지고 있던 연필로 ‘반도 2천 6백만 동포여, 자 일어서라! 조선독립의 때는 왔다. 지금 와서 지원병이니 징병이니 하고 있다. 아아! 가련하도다’ 라고 썼다. 그는 지원병 징병제도 등에 반대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떨쳐 일어날 것을 주창하였다.⁴¹⁾ 이러한 사례의 김용창의 경우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청년들은 일제의 허구적인 내선일체론에 입각한 지원병 징병 학병정책에 대해 ‘일변 거부, 일면 참여’ 전술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병 징병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거부투쟁을 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련교육을 받거나 지원병 징병 학병에 강제되어 가더라도 이 군사훈련을 오히려 조선을 독립시키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⁴²⁾

한편 전시 파시즘기 조선 민중의 저항형태 중 가장 일반화 된 것은 이른바 ‘불온 언동’으로 불리운 유언비어 유포나 낙서 등이었다.⁴³⁾ 이중 ‘불온’한 낙서의 경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1년에 들어서면서 격증하였다. 1939년 1-6월 사이에 12건, 1939년 7-12월 16건, 1940년 1-6월 27건으로 총 55건이 적발된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1941년에 들어서면서 총 239건(10월까지)이 적발 검거되었다. 낙서를 하는 장소는 공중변소나 열차, 공원 등 공공시설의 변소가 가장 많았다. 낙서의 내용은 대체로 천황이나 총독, 친일파 등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 조선독립에 대한 바람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⁴⁾ 1941년 4월 28일 수원지역의 유지이며 나혜석의 오빠인 나홍석(羅弘錫)의⁴⁵⁾ 아들인 다다나석균(多多羅奭均, 무

40) 변은진, 위의 논문, pp.145-153.

41) 판결문.

42) 변은진, 위의 논문, pp.197-203.

43) 정병준, 「광복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pp.196-200.

44) 변은진, 위의 논문, p.168.

45) 이동근,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연구』51, 2007.6, p.193.

직, 21세)은⁴⁶⁾ 수원의 장안문 2층 벽과 고지소좌(古志小佐)의⁴⁷⁾ 석비(石碑)에 검은 색 크레용으로 “태도 왜놈의 비(碑), 남차랑아 우리 지사를 잇는?? 독립지사 ?한(韓)의 비(碑), 타도 일본, 타도 왜놈, 대한제국 만세의 비(碑), 주살(呪殺) 남차랑, 황국신민이란 무엇인가?, 죽음으로 남차랑을 타살하자. 우리는 대한국민이다. 대한만세 타도일본 대한만세 우리 대한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대한독립을 계획한다” 라고 썼다.⁴⁸⁾

이처럼 김용창은 민족정신 고취에 진력하다가 경성고등검찰사찰형사에게 소위 치안 방해 혐의로 피체되었다. 결국 1944년 12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일본천황모독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4월 3일 대전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하였다.⁴⁹⁾

맺음말

김용창은 전시과시즘기인 1940년대 전반기 일제에 저항하다 순국한 학생독립운동가이다. 그의 생애는 비록 19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항일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김용창은 제암리학살 사건이 있었던 수원군 향남면 출신인 점이 일차적으로 주목된다. 1919년 4월 제암리 고주리 등의 학살사건이 있은 후 향남면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하였으므로 이들 지역 출신들의 항일운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용창의 항일운동은 지역사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46) 나석균은 수원을 본정 2정목 102호에 사는 나홍균의 아들이다(한동민, 「일제강점기 수원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수원학연구』3, 수원학연구소, 2006, pp.219-220. 京高特秘 제1098호, 「古跡 長安門內 및 石碑의 不穩落書 發見에 관한 건」, 『사상에 관한 정보』(14), 1941.8.18.

47) 고지소좌는 1894년 7월 27일 오전 5시 수원성내에서 청나라군과 운명을 건 중요한 전투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때 출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결한 인물이다.(한동민, 「일제강점기 수원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수원학연구』3, 2006, pp.215-216.

48)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1941.12, 京高特秘 제1121호 「古志少佐義死碑의 不穩落書에 관한 건」, 『사상에 관한 정보』(14), 1941.5.5.

49) 『독립유공자공훈록』 김용창.

둘째, 김용창은 향남 공립보통학교를 1937년 3월 7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이 학교를 졸업한 항일운동가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이 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없기 때문이다. 향남학교의 경우 현재 일제시대 학적부, 교원 인사 기록부 및 이력서, 1938년도 3월 8회 졸업 앨범 등 다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 그의 초등학교 시절을 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김용창은 낙서 등의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한 인물로 주목된다. 이 방법은 유언비어 유포, 삐라 등과 더불어 1940년대 전반기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저항수단의 하나였다. 이러한 저항투쟁을 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김용창의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초석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넷째, 김용창은 19세(1926-1945)의 어린 학생으로서 일제에 저항하다 옥중 순국한 인물이다. 유관순(1902-1920)과 시대는 달랐지만 비슷한 나이의 어린 학생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항일투쟁은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용창은 1940년대 일제의 철저한 군국주의 통치 시기인 전시파시즘시기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동포들에게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한 점이 더욱 돋보인다. 이 시기에는 민족지도자들도 친일의 길을 걸었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던 것이다.

《별첨 1》

김용창 등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44.12.14)

소화 19년(1944년 -필자주) 형공 제3111호

본적 :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鄉南面) 상두리(上斗里) 221번지

주거 : 경성부 동대문구 창신정(昌信町) 651번지의 12

덕수공립상업학교 2년생

김용창(金容昶) 개명 금산무등(金山武登) 당 19세(대정 15년(1926년-필자주) 8월 3일생)

위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등목용랑(藤木龍郎) 관여로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화 16년(1941년-필자주) 10월 경성부에 와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환, 체신국 경정보험관리소 고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야간은 경성덕수공립상업학교에 다녀 현재 동교 제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 바, 위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던 소화 18년(1943년-필자주) 6월경부터 동 소 근무자의 대우에 있어서 조선인 일본인 간에 차별이 있음에 불만을 품게 되고, 또 조선 역사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게 되자 점차 품고 있던 바, 민족의식이 양양되어 마침내는 조·일 차별 대우를 곱해 하여 조선인은 조선인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한 행복한 생활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몰래 마음속으로 조선독립의 시기가 도래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 언동이 불온한 적이 자주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1, (1) 소화 19년(1944년-필자주) 4월 중순 경 그가 하숙하고 있던 경성부 동대문구 창신정(昌信町) 651번지의 12호 주택 내에서, 학우 금촌익설(金村益嵩)에 대하여 “소기(小磯) 총독은 조선과 일본은 동조동근이라고 줄곧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일 차별이 있다. 뭐가 동조동근인가” 고 말하고,

(2) 동년 4월 하순(일자 미상)에 경성부 중구 장곡천정(長谷川町) 도로에서 학우 송본무(松本茂)에게 “관리소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싸움을 하고 일본인 계장은 조선인이 담배 피운다고 꾸짖으나 일본인이 담배 피워도 꾸짖지 않는다. 또 계장은 조금도 조선인을 보살피주지 않는다. 자기는 계장과 죽고 살기로 싸움을 해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우리들이 지금 아무리 민족운동에 노력해도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지도하여 주지 않고는 성취할 수는 없다. 멀지 않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하고,

(3) 동년 5월 중순(날짜 미상)에 위 도로 위에서 전기 금촌(金村)·송본(松本) 양인에게, “보험관리소에서는 항상 일본인과 조선인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선인 쪽이 이기기도 하고 또 조선인 쪽에서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역시 조선인에는 기백이 있어서 독립할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 한다” 라고 말하고,

(4) 동년 5월 중순(날짜 미상), 전기 관리소 징수와 사무실에서 동료 정목청(正木淸)과 대담 중 그가 그의 아버지는 조선인이지만 어머니는 일본인이므로, 어머니 적에 입적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하여, “자네는 부친이 조선인 이므로 조선인이다. 지난달 조선에서는 독립을 도모하고자 만세사건 등 봉기가 있었으나, 무기가 없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현재는 지원병제와 징병제가 실시되어 조선인은 다수가 병정이 되므로 조선은 반드시 독립한다.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우수하고 실제로 미국·러시아·상해 방면에서는 조선인이 활발하게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단다. 조선이 독립하면 나는 일본인을 쫓아 버릴 작정이다. 이번 전쟁에 일본이 패한다 하더라도, 조선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히려 못이기는 편이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하여 이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하였으며, 제2, 소화 19년 5월 초순(날짜 미상), 전기 관리소 1층에 있는 대변소 판자벽에 가지고 있던 연필로 ‘반도 2천 6백만 동포여, 자 일어서라! 조선독립의 때는 왔다. 지금 와서 지원병이니 징병이니 하고 있다. 아아! 가련하도다’ 라고 써, 붙여서 다수인의 눈에 띄게 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하므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로서 판시한 동종 행위는 그 범위가 계속된 것이다.

적용법조 보안법제7조 형법 제55조

소화 19년 12월 14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구천청(龜川淸)

《별첨 2》

김용차의 동생 김용무와의 면담록

1. 면담인 및 면담 장소 : 김용창(향남면 상두리 222번지) 동생 김용무(1940년생)
2. 면담일시 : 2005년 12월 31일

필자 :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김 용자 창자 김용창 지사님의 다섯째 동생이신 김자 용자 무자 1940년생 이십니다. 동생분을 모시고 김용창 지사님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주소지가 화성시 향남면 상두리 222번지입니다. 지금 현재 김용무 선생님이 살고계시고 바로 이곳은 과거에 김자 용자 창자 지사님께서 출생하신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필자 : 선생님 지금 1940년생 맞으시죠?

김용무 : 예.

필자 : 예 그러면은 김용창 선생님한테 다섯째 동생이시구요 그죠?

김용무 : 그렇죠. 팔까지 따져서 다섯째고 족보상에는 사방에 다 돌아가시고 바로 둘째가 되는 거예요.

필자 : 선생님께서요?

김용무 : 예 다 돌아가시고

필자 : 다 돌아가시고

김용무 : 예. 내가 바로 위 순위에서 둘째가 되죠.

필자 : 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셋째 되시던 분이 김자 용자 권자

김용무 : 예.

필자 : 그분이 서울 거주하시고

김용무 : 예 서울 거주하죠.

필자 : 그럼 원래 그 광산 김씨 시구요?

김용무 : 예 분이 광산이니까

필자 : 무슨파세요?

김용무 : 우리 판교공파예요.

필자 : 판교공파? 판교공파시구요 그럼 원래 대대로 상두리쪽에 지방에서 사셨나요?

김용무 : 그렇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용자 향렬로다가 17대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17대 선조가 흥상 바로 위에, 바로 그 흥상위에 산 있어가지고 17대 할아버지는 거기 모시고 있어요

필자 : 거기 모여져 있는거군요

김용무 : 예.

필자 : 거기가 지금 선산이시군요?

김용무 : 예.

필자 : 형님 되시는 김 용자 창자 분은 1926년 8월 3일생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김용무 : 예.

필자 : 1 그러면 지금 재적부라든가 이런 것은 향남면사무소에서?

김용무 : 면사무소에 들어 가있죠.

필자 : 재적부요?

김용무 : 예. 거기 들어가 있죠.

필자 :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45년 4월 3일 날 돌아 가신거?

김용무 : 예.

필자 : 그렇습니까?

김용무 : 예.

필자 : 돌아가신 것은 나중에 대전형무소에서 돌아가셨구요?

김용무 : 예. 거기서 저기하셨다고.. 그것도 이제 그냥 부모님들은 저녁에 들은 거지 내가 어려서 그런 거니까 부모님이 잠자리에 들어 가셨

을 때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왔던 거죠.

필자 : 그 지금 용자 창자 어른은 묘소가 어딴습니까?

김용무 : 그 묘소가 여기 있다가

필자 : 어디요?

김용무 : 이 상두리에

필자 : 상두리에?

김용무 : 예. 상두리에 있었는데 야산개발을 하는 바람에 야산에 있던 것을 화장했어요 내가

필자 : 아. 화장하셔서

김용무 : 예.

필자 : 그 어디에 국립묘지에 모셨습니까?

김용무 : 아뇨. 화장해서 뿌렸거든요 그때는 이런 저기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 지사로 포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냥 화장을 했죠.

필자 : 야산 개발하니까?

김용무 : 예. 그래서 그 보훈처에서. 지사로 되서. 그걸 물어보더라도 그 래가지고선 그걸 저기다가. 공원묘지로다가 할래느냐고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미리 해놨으니. 예 그래서 못했어요 그거 는

필자 : 그러면은 그 원래 17대손 어른년부터 여기 쪽 상두리 사셨는데 집안 은 어떻게 먹고 살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상두리에서 상두리 여 기 와보니까 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김용무 : 예. 여기 그전에는 우리 아버님이 4형제의……

필자 : 아버님 존함이

김용무 : 언자 순자요.

필자 : 언자 순자

김용무 : 예. 4형제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필자 : 아버지께서

김용무 : 예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마 상당히 못 살았나봐요.

필자 : 어려우셨군요?

김용무 : 예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남의 품을 팔고 이래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용자 장자 형님이 국민학교서부터 공부를 워낙 잘했데요

필자 : 여기서 국민학교를 어디로 다니셨나요?

김용무 : 여기 향남 그뎨 향남 보통학교라고 했죠 향남 보통학교 그러니까 향남 초등학교지

필자 : 지금의 향남초등학교?

김용무 : 예 지금 향남 초등학교지 그래가지고서는

필자 : 거기 다니셨고?

김용무 : 예 거기서 국민학교를 나와 가지고서는

필자 : 저기 그 향남초등학교가 어딴가요?

김용무 : 여기 백토리.

필자 : 백토리 거기에 향남초등학교가?

김용무 : 예 거기 있어 가지고선 거기서 저기 해가지고선 국민학교 때부터 먼저 집에서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남이 징용가는 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서울로다가 갔다나봐요.

필자 : 징용 때문에 돈을 받아서 남의 돈을 받아서 대신갈라고?

김용무 : 예 대신갈라고 돈을 받아가지고 서울가서는 징용을 안가고 덕수 지금도 덕수고등학교지? 덕수고등학교 거기 저 저기로 들어갔다나봐요.

필자 : 아 여기 덕수 국립보통, 국립 상업학교

김용무 : 체신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체신청에

필자 : 예 맞습니다.

김용무 : 아뇨 거기 댕기면서 일을 하면서 독학을 한거죠 공부를.. 공부를 해가면서 거기서 야간 덕수.. 야간을 다니면서 체신청을 다녔데요 우체국인가 뭐 댕기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8.15해방되기 직전이지? 그 해 인제 혼자 독학을 하면서 반기를 들었나봐요. 그 왜정 아마 그 상당히 왜정 때 그 왜정 학생들이 한국학생들에게 팔세가 무지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 팔세 받기 저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화장실 이런 벽에다가 벽보를 붙이구 선 뭐 왜놈들 저기한다 어쩐다 이래서 그 해가지고 책을.. 그 독립운동의 책을 혼자서, 혼자서 많이 봤데나 봐요 그래서 들켜가지고선 끌려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필자 : 저희가 기록에는.. 재판기록에는 인제 41년 10월에 서울에 와가지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사환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체신국에 경성보험관리소에 용원으로 고용이 되고 일하면서 야간에 이제 국립 상업학교에 다니고

김용무 : 예 그랬다 그러더라구요.

경기지역 농사풀이의 양상과 의미

최자운 (경기대학교)

머리말	1) 동해안 별신굿 소재 농사풀이
1. 경기지역 농사풀이의 존재 양상	2) 청도 차산농악 소재 농사풀이
1) 양주농악 소재 농사풀이	3) 강릉농악 소재 농사풀이
2) 평택농악 소재 농사풀이	맺음말
2. 무속 및 경북·강원지역 농사풀이와의 비교	

머리말

경기지역 농악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농사풀이는 판굿 혹은 마당굿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전승 농사풀이와 지신밟기 속에서 행해지는 언어 전승 농사풀이가 있다. 여기서 농사풀이라는 용어는 농사와 풀이가 합쳐진 말로, 모내기부터 추수까지의 농사 관련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행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전승 유형의 농사풀이 중 판굿 등에서 행해지는 행위 전승 농사풀이는 앞치배의 연주와 뒷치배의 행위에 의해 유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신밟기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전승 농사풀이는 상쇠나 고사소리꾼에 의해 풍농이나 집안의 평화, 번영 기원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농사풀이에 대하여 정병호는 농사풀이는 주로 영동과 영남농악에서 행해진다고 하였다.¹⁾ 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영동과 영남지역에서 유독 농사풀이가 전

1)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93.

해지는 이유에 대해 산악지대 주민들에게는 농산물의 생산이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라 하였다.²⁾ 그의 논의는 행위로 전승되는 농사풀이를 개관한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그의 논의만으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농사풀이 양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농경행위를 모의하는 행위 전승 농사풀이의 경우 경기남부 및 충청도의 옷다리농약, 그리고 호남 좌, 우도농약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언어 전승 농사풀이의 경우 지역에 따라 크게 여러 가지 곡식을 나열하는 것과 풍농을 기원하고 권유하는 것이 있다. 이제는 그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농사풀이의 발생론에서 나아가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농사풀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지역 농사풀이에 대해 다룬 논의로는 이보형과 김현선의 논의를 눈여겨 볼 만 하다. 먼저, 이보형은 강릉농약이 지리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농약대 및 약기 편성, 복색, 쇠가락과 리듬, 판굿 구성 등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³⁾ 강릉농약의 약기 구성이 징이나 큰북이 없고, 소고와 범고, 무동이 많다고 하였고 판굿은 명석말이, 황덕굿, 소고놀이, 범고놀이, 무동놀이, 동고리, 열두발 채상, 농사풀이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가 조사한 1980년대 초반의 강릉농약 농사풀이는 쟁기질, 씨래질, 못자리 누르기, 볍씨 누르기, 볍씨 뿌리기,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 점심 담배, 벼 베기, 벼 훑기, 방아 찧기를 비롯하여 목화 따기, 물레질, 베 짜기, 뽕 따기, 삼 삼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그는 농사풀이가 근래에 확대된 것 같다고 하였다. 그의 논의를 통해 강릉농약의 윤곽이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정병호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강릉농약의 특징을 이 지역의 지리적 이유에서만 찾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현선은 농사풀이가 판굿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주농약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는 수차례의 현지조사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양주농약의 역사, 연행 순서, 구성원에 대해 면밀히 정리하였다.⁴⁾ 그리고 그는 언어 전승 농사풀이와 행위 전승 농사풀이는 유감주술의 면에서 동일하다고 하였는데,⁵⁾ 그의 언급은 본고의 문제의식을

2) 정병호, 「농약의 예술적 특성」,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창론』3호, 중앙대학교, 1983.

3) 이보형, 「강릉농약의 특질」, 강원도 민속학회·강릉 무형문화연구소, 『강원민속학』3집, 1985.

4) 김현선 편, 『양주농약』, 월인, 2006.

가다듬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살핀 결과, 농사풀이는 주로 행위 전승 농사풀이를 중심으로, 자료의 개관 및 특정 사례에 대한 지적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행위 전승 농사풀이와 언어 전승 농사풀이가 공존하는 지역 중 자료의 양상 및 두 형태 간의 관계에 있어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경기지역 농사풀이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런 뒤 다른 지역 및 다른 갈래 농사풀이와의 비교를 통해 이 지역의 각각의 농사풀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에 원론적 차원에서만 논의된 언어 전승 농사풀이와 행위 전승 농사풀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기지역 농사풀이의 존재 양상

1) 양주농악 소재 농사풀이

경기지역에서 행위 전승 농사풀이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은 양주농악이다. 이곳에서는 판굿 자체가 농사풀이를 연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지역 농악에서 행해지는 농사풀이는 보리밭 밟기에서 광을 지어 곡식을 나르기까지의 농사 행위로 진행된다. 농사풀이의 순서와 장단, 그리고 농사짓는 장면을 형상화한 춤동작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보리밭 밟기이다. 치배들은 보리의 성장촉진과 동해를 막기 위해 밭을 밟아 주는 모의 동작을 한다. 그 뒤 보리밭 거름 주기를 한다. 치배들은 소고를 거름통 삼아 옆구리에 끼고 장단에 맞춰 앞으로 걸어가며 보리밭에 비료를 골고루 뿌려주는 행위를 한다. 그런 뒤 4인 1조가 되어 앞의 두 사람은 가래줄을 잡고 뒷사람은 가래를 잡고 가래질을 한다. 맨 뒷사람은 고랑을 고르는 동작을 한다.

보리농사와 관련된 행위가 끝이 나면 논농사와 관련된 모의 행위가 이어진다. 먼

5) 김현선,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 및 양주 소놀이굿 활성화방안』, 양주시, 2004.

저, 지배들은 2인 1조가 되어 앞사람은 소 역할을 하고, 뒷사람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 역할을 하는 밭갈이를 한다. 그 뒤 논 썩레질을 한다. 이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논갈이 때와 마찬가지로 앞사람은 소가 되고 뒷사람은 농부가 되어 물을 댄 눈에 들어가 소를 몰고 논바닥을 평평하게 썩려 나간다.

3인 1조가 되어 못자리를 만들 때에는 앞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골을 파고 뒷사람은 못자리를 반듯하게 골라 나간다. 그 뒤 법씨를 뿌리는데, 2인 1조가 마주보고 옆걸음을 치면서 법씨를 못자리에 골고루 뿌려나가는 행위를 진행한다. 논농사와 함께 수수 부룩치기를 한다. 부룩을 친다는 것은 한 가지 곡식을 심은 뒤 옆 고랑에 다른 곡식을 심는 것으로, 이때에는 2인 1조로 앞사람은 팽이로 땅을 파고, 뒷사람이 수수를 심는 것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소고를 콩을 담은 그릇처럼 허리 옆에 끼고 발뒤꿈치로 땅을 눌러서 콩 심을 공간을 확보하고, 콩을 심는 행위를 한다.

콩을 심은 뒤 본격적인 논농사 모의 행위가 이어진다. 모찌기를 할 때는 소고는 옆에 두고 일렬로 앉아서 못자리에서 모를 찌서 흙탕물에 흙을 털어내고, 모를 묶어내는 동작을 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모심기는 양쪽 줄꾼이 못줄을 넘겨주는 대로 나머지 법구쟁이들이 줄의 눈금에 맞춰 모를 심어 나간다. 논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는 김매기이다. 이때에는 법구들이 일렬로 서서 앞으로 나아가며 논을 매는 시늉을 한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김을 매면서 법구들은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서 매기고 받는 소리를 한다. 소리를 시작할 때에는 선소리꾼이 “군방님네, 군방님네, 새로 새 법 내지 말고 옛날 노인 허시든 대로 논매기나 해 봅시다.” 라고 한다. 논은 모두 세 번에 걸쳐 매는데, 순서에 따라 옛논매기, 두벌논매기, 삼동논매기 라고 한다. 이때 노래되는 소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긴방아 타령 : 음외 에헤에 이히야라 방아/ 음오 오호오
- 꽃방아 타령 : 에 헤 헤에어허/ 에히 여히에해야하/ 예아 라 되야/ 에히여
- 종소
- 월월이 타령 : 호호호리 호오리 호호라
- 새타령 : 이야 호로(양주농악 상쇠 황상복, 2006.3.24. 현지조사)

논을 다 매고 나서 법구들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원을 만든다. 그런 뒤 허리를 굽혀 원을 크게 만들고 다시 좁히기를 반복한다. 이는 퇴비를 주는 모의 행위로, 마지막 원을 좁힐 때에는 양손을 원을 그리며 들어간다. 원을 풀고 원래 대형으로 돌아갈 때에는 끝에 있는 사람부터 일어나서 앉아있는 다음 법구 사이를 돌며 제자리로 돌아간다.

퇴비를 주는 것으로 경작과 관련된 일이 끝나고 다음부터는 수확과 관련된 행위가 시작된다. 벼 베기를 할 때에는 법구들이 일렬로 서서 전진하며 벼를 베고 벤 벼는 옆으로 눕히는 행위를 한다. 그 뒤 2인 1조로 앞뒤로 서서 앞 사람이 허리 굽히고 소 흉내를 낸다. 그러면 뒷사람은 소의 좌우로 오가며 소 위에 곡식을 싣고 내리는 시늉을 한다. 이는 논바닥에 베어놓은 벼를 나르는 행위이다.

타작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구 5인이 테질을 하고, 2인은 탈곡기 시늉을 한다. 나머지 법구들은 탈곡기를 돌리는 행위와 곡식을 정리하는 시늉 등을 한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법구잡이들이 원으로 둘러서 오른발을 옆사람에게 걸어 광을 만들고, 세 사람은 광에 벼를 이어 나르는 광이기 동작을 한다. 이와 같은 순서로 농사와 관련된 행위 전승 농사품이는 막을 내린다.

2) 평택농악 소재 농사품이

위에서 살핀 양주농악에서는 실제 농사 순서 및 행위와 거의 유사하게 행위 전승 농사품이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기남부의 평택농악에서는 경기북부 양주농악과는 다른 형태의 행위 전승 농사품이가 행해진다. 먼저, 평택농악 중 판굿은 인사굿, 돌림법고, 오방진, 판굿, 당산벌림1, 당산벌림2, 절구맹이법고, 합동 좌우치기, 가새벌림, 가새좌우치기, 돌림법고, 짹짹이, 연풍대, 소리굿, 동리로 구성된다.⁶⁾ 이 중 농사품이에 해당하는 짹짹놀이는 당산벌림 2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앙에 일렬로 선 무동들이 앉아서 오른손을 올렸다 내리며 손 끝으로 왼쪽 땅을 짹고, 다름 장단에 양손을 허리에 차고 일어나서 원을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뒤 상쇠가 상법고를 달고 나오면 법고들은 무동이 했던 것과 같은 행위를

6)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반복한다.⁷⁾ 그리고 채상벽구들에 의해 행해지는 절구멍이 벽구는 두 사람이 절구 공이를 번갈아 내리 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두 줄의 법고가 이 줄이 앉으면 저 줄이 서고, 저 줄이 앉으면 이 줄이 서는 동작을 반복한다.

위에서 보듯 평택농악 판굿 소재 농사품이는 양주농악 농사품이와 비교할 때 전체적 모의 농사 행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모심기나 절구질만을 대상으로 예술적으로 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행위가 무동과 법고, 혹은 법고에 의해 각기 놀아지는 것에서 보듯 이 지역에서의 농사품이는 행위를 통한 풍농에 대한 기원보다는 그 자체로 연희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평택농악에서는 언어 전승 농사품이도 전승되고 있다. 이곳의 언어 전승 농사품이는 고(故) 최은창 상쇠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뛰어난 연주 및 소리 실력으로 인근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 지방까지 걸립을 다녔다. 그런 이유로 그는 여러 상황에서의 지신밟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근의 유명한 고사소리꾼들의 소리들을 접목시켜 자신만의 레파토리를 완성하게 된다.

평택을 비롯한 인근지역에서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던 평택농악의 고사소리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그 명맥을 잃어가게 된다. 무엇보다 고사소리를 청하는 사람들이 없자보니 소리의 수요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간혹 이곳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준공식을 할 때 농악대를 초청하여 성주굿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에는 마루에 성주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고사소리꾼이 산세품이를 구연하고 나서 성주가 나무를 베어 와서 집을 짓는 내용 중심으로 소리를 한다.

현재 평택농악에서는 정기공연 때 판굿을 하기에 앞서 고사굿을 하면서 고사소리를 구연하는데, 이때에는 고사꾼을 포함하여 무동 3명, 양반, 징, 장구, 북이 등장한다. 이들 일행은 고사상을 향해 3번 반절 한 뒤 2열로 서서 소리를 한다. 이때 하는 소리는 산세품이, 살풀이, 가정 축원, 뒷염불로 구성된다.

이러한 고사굿을 본 공연 앞에 하는 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앞으로 시작될 판굿에 집중하게 하고, 소리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이 고사상을 향해 내고 기원함으로써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 평택농악 고사굿은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연화되는 고사소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공연 서

7)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시지은, 「양주고전농악 고찰」, 한국음악사학회, 『한국음악사연구』, 2003.

두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소리를 하다 보니 원래 갖추어진 사실을 모두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원래의 축귀(逐鬼), 축원(祝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동해안 별신굿 소재 농사품이 및 다른 지역 농악 소재 농사품이와의 비교

1) 동해안 별신굿 소재 농사품이

굿 재차에서 행위 전승 및 언어전승 농사품이가 공존하는 곳은 동해안지역이 유일하다. 농사품이는 동해안 별신굿 중 성주굿에서 나타나는데, 지역 및 구연자는 다르더라도 성주굿 재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성주굿의 구성을 보면 지모가 성주신을 청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주가 뿌린 솔씨가 자라 대평목, 소평목이 되고, 그것을 유대군들이 잘라 치목(治木)하고 집터를 다지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런 뒤 집을 짓고 세간품이를 하고 농사품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먼저 동해안 별신굿에서 불리는 언어 전승 농사품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만하면 보기좋다 농사를 짓자며 농기 연장을 뿌룬다 깨이 소스랑깨이 살포 큰가래 좁은가래 포드락 똑딱 장도리며 다갈망치 다나온다 호미일고 호미일고 호미는 일곱이며 명석으는 신다섯잎 다섯잎으느 쥐가 쫓고 불탄 명석 두 닢이라 오좁푸주 풍다지 풍가래도 오지레하고 남포필은 무슴필 풍가래도 오지레하고 나무접시 씨래기 콩나물이 이백둘도 콩잎하니 여든독 큰맷돌 일곱 채며 작은맷돌 열두채라 그만하면 보기좋다 광넓은 논이며 사라지는 밭이며 온갖 곡식을 뿌룬다 동양도 중비깨비 소상배 낭작배 억청배 향토배 오순기 차 나락까지 칠다리야 팔다리야 떠룩 떠룩이 다나온다 어허 그만하면 보기좋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입고 쓰고 남도록 또 불가 또 생계 만만이 점제하고(김동언, 울산지방무가자료집 (3))

가창자는 집안의 농기구 및 농사 관련 도구를 나열하기도 하고, 곡식을 ‘부룬다’

고 하면서 곡식이 잘 되길 기원하기도 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 농기구 및 곡식을 나열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계 될 강릉농악 언어 전승 농사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농기구 및 곡식의 나열에 있어 나열되는 대상의 외양이나 발음의 유사성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지 않고, 그 자체로만 나열되는 것이 다르다.

농사가 잘 되어 집안이 잘 되길 기원하는 것은 단지 곡식을 나열하는 것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풍농을 표현한 것이다. 특정한 의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구연자가 풍농 기원의 내용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가 단지 연주자가 아닌, 사제자로서의 직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신굿 중 성주굿 소재 행위 전승 농사풀이는 아래와 같다.⁸⁾ 문면을 살펴하기에 앞서 농사풀이가 시작되기 전에 지모가 하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보소 천년지신도 놀리고 만년가호도 놀리고 잡귀잡신은 물러가고 오복을 점지하실 적에 오늘도 집을 지어도 성주님을 모시고 배를 몰아도 성주님을 모시고 차를 몰아도 성주님을 모시는데 농사를 지어도 어김없이 다 풍년이 되주고, 어민들도 풍어가 되서 오늘도 천년지신 만년가호를 놀리고 농민들이 나와서 또 농악을 놓고 지신을 밟고 노는데 여러 나와서 농부가를 부르고 한번 놀고 가고(후략)(강릉 주문진 별신굿 중 성주굿 빈순애, 2005.10.12 현지조사)

위의 인용문을 통해 행위 전승 농사풀이는 언어 전승 농사풀이와 같이 집안의 경제적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말로 농사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를 부르면서 농경 모의 행위를 시작한다.

얼렷렷 얼렷렷렷 상사디야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화 등
등등 말 들시오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묻어 넘어오고 우장을 두르고 샷갓을
쓰고 얼렷렷렷 얼렷렷렷 상사디야 / 얼렷렷렷 얼렷렷렷 상사디야 여보시오 농
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화 농부님 내말 듣소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동산에 달 솟아온다 얼렷렷렷 / 여보소 농부들 말듣소 어화 농부 말들어

8) 여기서 다루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별신굿 중 성주굿 빈순애(바라지:김명광)(2005.10.13)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 2리 별신굿 중 성주굿 송명희(바라지:김장길)(2005.4.23)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3리 별신굿 중 성주굿 송명희(바라지:김명태)(2004.11.24)

우리가 농사를 어서 지어 알곡을 추수하여 어기야 등등 방아를 짚어 / 여보소
농부들 말든소 어화 농부들 말든소 사농공상 직업 중에 우리 농부가 제일인고
농민 하신 일에 농사밖에 더 있는가 (강릉 주문진 별신굿 중 성주굿 박금천,
이순덕, 김은영, 2005.10.12 현지조사)

처음에 성주굿을 주관하는 지모가 농부가를 한 소절 부르면 자리에 앉아있던 지
모 3명이 뒤로 와서 한사람씩 농부가를 이어가며 부른다. 한 사람의 지모가 농부가
를 부르다가 후렴부분에 이르면 다른 지모들이 앞을 보고 허리를 숙여 김을 매는
시늉을 한다.

위에서 살핀 언어 전승 농사품이가 언어 주술에 의한 풍농 기원의 성격이 있다면
행위 전승 농사품이는 그러한 주술적 의도보다는 다른 지역의 농요를 차용하여 농
사짓는 행위와 결합시키면서 유흥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김매기만 한다
는 점에서 농악대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 전승 농사품이에 비해 농사품이의 한 과정
만을 특화하여 연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신굿에서 이루어지는 농사품이 농악
대와 마찬가지로 역시 언어 전승에 비해 행위 전승 농사품이가 연희적 성격이 강하
였다.

2) 청도 차산농악 소재 농사품이

청도 차산농악 판굿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 전승 농사품이는 법고에 의해 씨뿌리
기,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 벼 베기, 벼 타작, 벼 끌어 모으기, 풍로 부치기, 가마
니 쌓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청도 차산농악의 농사품이는 파종에서 가마니 쌓기
까지 실제 농사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행위들로만 구성된다. 그리고 농사품
이 뒤에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진하면서 조름굿거리가 이어지는데, 이 거리는 농사
의 풍작을 기뻐하는 것으로 차산농악의 클라이막스라고 한다.⁹⁾ 단계별 농사 행위
를 충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풍농의 즐거움에 해당하는 조름굿거리를 통해 이 지
역의 농사품이는 원래 목적인 풍작 기원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남지역 농사품이의 풍농 기원적 성격은 한 해 농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 청도 차산농악 홈페이지(www.chasanfm.com) 2005.12.9. 현재.

하루 날을 잡아 노는 날인 백중이나 호미씻이에서 행해지는 농사풀이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예 중에 밀양 백중놀이에서의 농사풀이를 보면,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농신굿 부분에서 모심기와 김매기가 행해진다. 밀양 백중놀이 소재 농사풀이는 전국에서 조사된 농사풀이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풍농 기원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

백중날은 다 놀거든. 주인이나 누기나 들에 만나간다이가. 실롱님이 그날 곡식 매긴다고, 실롱씨 아있나. 온 들에 땀기며 이 눈에 소출이 얼마나 난다고 하는 거를 매긴다고. 그 이미가 그래 담기 있는기라.

우리 행사 때때 하는데, 그래가 인자, 정자나무 밑에 놀땀서러 악기도 울림 서로 우리도 또, 논매는 식으로 해보자 하고 우스개 쪼로 이레가 하고 그 인자 모노래 모르는 사람은 모노래 답을 우예 받노. 처음에 선창은 저저저, 뉘꼬, “낭창 낭창 벼루 끝에 무정하다 울오라바” 하모, 그 모르는 사람은 답은 뉘꼬 하모, 그라모 갈차 주거든, “나도 죽어 후성 가서 낭군님 한분 샘겨볼래”. 그 래 인자 다 배와지고 인자, 선창 부르는 사람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 답이 요렇다 그래 인자 하는기라. 그러면 그래 인자 모노래 배우고 그런 사람도 다음에 되면 그 사람도 부를 수 있고 다 배워주는 택이지. 모노래 할 때는 그래 한다 머슴들이 소리 해주면 부인들도 모심으면서 허리도 안아프고 잘 심으거든. 그 래 부인들도 배와가 다 그래한다(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송포마을 김경호 (1930), 2005.7.22 현지조사)

제보자 김경호는 밀양 백중놀이 창단 멤버인 고(故) 김상용과 같이 젊어서 밀양 백중놀이에 활동하면서 김상용으로부터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을 배웠다. 위의 제보를 통해 백중날 이루어지는 농사풀이는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던 시대에 그 자체로 유희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그 배면에는 풍년이 되길 기원하는 바람과 동시에 농사일 초보자에 대한 농사 교육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앞서 살핀 지역의 지신밧기에서는 집안의 곳곳을 돌 때 대청마루 앞에서 하는 고

10) 이러한 교육적 기능은 농사풀이가 행해지는 양주농악 전승자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농사풀이를 하면 절기에 따라 하는 송내를 다 내니까. 그래 인제,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거, 농사짓는 거 전혀 안해본 사람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송내를 내서 보여주는 거죠. 옛논매는대는 어떻게 한다. 김매는 거는 어떻게 한다. 농사짓는 송내를 보여주는 거죠.”(양주농악 부쇠 이근철(1933), 2006.1.12. 현지조사)

사소리는 길게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소리를 그리 길게 하지 않는다. 지신밟기의 무게 중심이 대청마루 앞에서 하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영남지역 지신밟기에서는 대청마루 앞뿐만 아니라 곳간, 방앗간 등에서도 그 집안의 경제적 번영을 기원하며 다양한 사설이 노래된다.

곳간 지신풀이 : 지신아 밟아 놀러보자 신농씨를 놀러보자 신농씨는 어디 가고 노적가래 남았는고 한이삭을 씨를 뿌려 일년 농사 장원하여 한이삭을 던졌더니 삼천석이야 떨어지고 두이삭 던졌더니 육천석이 떨어지소 산등같은 노적 가래 위에 서서 디디 보니 황새야 철새야 새끼 치여 기러기 떼같이 날라 간다 이 덕 이 다투 덕인가 신농씨의 덕이로다 만복을랑 땡기 주고 잡귀야 잡신은 다물리 치소

마구지신풀이 : 지신아 밟아 놀러보자 마구야 지신을 놀러보자 마구님은 어디 가고 이자 국만 비었는고 부를 적에 좌정하소 마구야 구석 네구석을 구석이 구석이 밟아주소 반주야 가래야 세가래야 말을 메구야 소를 메고 우마 대마다 길러서 이 소를 몰으다가 남의 눈에야 옥이 되고 남의 눈에야 금이 되고 구실아 약담을 막아주소 일년하고 열두 달을 과년하고 열석달을 집이나 한쌍 지어놓고 사모에다 핑경을 달아 동남풍이 디리 불어 핑경아 소리아 듣기야 좋을 때 만복을랑은 땡기주고 잡귀잡신은 다물리치소

방앗간지신 : 지신아 밟아 놀러보자 방아 지신을 놀러보자 혼자 짙는 독구방아 돌이 짙는 디딜방아 뽕뽕 도는 돌방아가 만첩청산 물방아야 전기로 짙는 모타방아 그방애가 어디 메여 강태공에 메였는가 강태공은 어디 가고 방애만 동실 남았는고 일태석을 짙어내니 삼천석을 짙어내니 백옥같은 백미로다 이 덕 이 다투 덕인가 강태공에 덕이로다 만복을랑 땡기주고 잡귀잡신은 다물리치자(경북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김오동(1921), 한국민요대전 경북편, 433-436쪽)

곳간 지신풀이에서는 인간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신농씨에 대한 풍농 기원과 곡식이 가득 쌓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노래되었다. 앞서 살핀 강릉농악의 경우 여러 곡물의 나열과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들이는 묘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영남지역의 경우 여러 곡식의 묘사와 함께 노동의 권유, 풍농에 대한 기원이 노래된다. 이러한 풍농 기원은 앞서 살핀 동해안 별신굿에서 나타났으나 그 기원의 강도에 있어 농악대의 훨씬 강하다.

3) 강릉농악 소재 농사풀이

강원도 농악 중 농사풀이가 조사된 곳은 고성 교동농악, 삼척 조비농악, 강릉농악, 양양 죽정자리농악, 춘천 석사농악, 평창 둔전평농악, 평창 백옥포농악 등이다.¹¹⁾ 영동농악이 4곳, 영서농악이 2곳으로 강원도 전역에 걸쳐 농사풀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구연 상황, 농사풀이의 차례의 순서 및 가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순서 및 목적 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강릉농악의 편성은 상쇠, 부쇠, 삼쇠가 각 1명, 징은 2명, 법고는 8명, 소고는 7명, 무동은 6명, 북은 3명, 장고는 2명 등 총 31명이다. 각 치배의 복색은 상쇠 및 부쇠, 삼쇠는 흰색 바지저고리에 남색 등지기 입고 빨간, 파란, 노란색의 삼색띠를 매고, 상모 쓴다. 소고는 바지저고리에 남색 등지기 입고 삼색띠 매고 긴 상모지를 단다. 그리고 법고는 복색은 같고 꺾이 달린 병거지 쓴다. 마지막으로 무동은 붉은 치마, 노란 저고리에 남색 쾌자를 걸치고 삼색띠를 띠고 고깔을 쓴다.

그러면 강릉농악 판굿 중 이루어지는 농사풀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²⁾ 각 단계별 농사풀이가 시작될 때에는 언제나 법고가 제일 앞에 서고, 소고, 무동의 순서로 이동, 농사풀이를 행한다.

- 1. 논 갈기와 논 삶기(소: 소고, 밭갈애비: 법고) : 소고가 허리 구부려 앞으로 가고 법고가 소고의 채상을 잡고 밭갈애비 역할 하다.

11) 춘천 석사농악 : 서낭굿, 농사풀이(논갈이, 물 푸기, 논 삶기, 모심기, 논매기)
삼척 조비농악 : 입춘 때 선농씨와 후지씨에 대한 제사, 농사풀이(경작놀이, 파종놀이, 수확놀이, 저장놀이)
고성 교동농악 : 가래질, 논갈기와 논 삼기, 못자리, 모찌기, 모심기, 낫갈기, 벼베기, 벼팡이기, 태치기, 벼 모으기(풍년가 구연, 방아찧기)
평창 둔전평농악 : 정월보름 달맞이, 한식 무렵, 단오 때 등 놀 때 농사풀이(논갈이, 모찌기, 모심기, 김매기(단호리 구연), 벼베기, 탈곡하기, 벧가마 나르기)
위 자료들은 아래의 책을 참조하였다.
김의숙, 『강원도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유옥재, 「강원도 영동농악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부설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16, 강원대, 1991.

12) 여기서는 2005년 10월 15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진 마당굿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못자리 누르기 : 무동이 허리 굽힌 채 뒤로 가면서 모를 심는 시늉하다,
3. 법씨 뿌리기 : 법고가 2명씩 마주보고 옆걸음질 치며 법씨를 뿌리다.
4. 모찌기 : 법고와 소고가 나란히 앉아서 앞으로 가며 모를 찌가고, 무동은 뒤에서 모 나르는 시늉하다,
5. 모심기 : 법고와 소고가 나란히 허리 숙여 모를 심으며 뒤로 오면 무동은 뒤에서 모 나르는 시늉하다.
6. 콩 심기 : 무동이 일렬로 서서 허리 숙여 뒤편을 심으며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며 심는 시늉하다.
7. 논매기 : 원형의 가운데에 있는 상쇠 쪽으로 가면서 선소리 하고, 뒷치배들이 소리를 받는다. 논은 모두 세벌까지 매는데, 모두 손으로 한다. 모 심은 뒤 보름 지나서 두벌, 20일 정도 지나서 세벌 맨다. 토질이 나빠서 손으로 맬 수 없을 경우 호미로 매고 대부분 손으로 맨다. 이때 하는 논매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매여주게 매여주게 /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랑고개로 넘어가세 / 놀다 가
세 놀다 가세 놀다가세 /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u라리오 아리랑고개로 넘어가
세 / 넘어가네 넘어가네 넘어가네 넘어가네 /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오 아
리랑고개로 넘어가세

8. 낫 갈기 : 소고와 법고가 일렬로 앉아서 소고와 법고를 숫돌 삼아, 채를 낫 삼아 가는 시늉하다.
9. 벼 베기 : 소고와 법고가 일렬로 서서 벼 베고, 무동은 베어진 벼를 뒤로 나르는 시늉하다.
10. 벼 광이기 : 상법고와 소고 한 명이 중앙에 나와서 소고 한명이 앉아 있으면 그 소고가 가마니인 것처럼 하여 상법고가 벼 담는 시늉하다.
11. 테질 하기, 벼 쓸어 모으기
12. 벼 모으기 : 무동들이 손을 마주 잡고 둥글게 앉아 있으면 법고와 소고가 더 큰 원을 그리고 중앙을 향해 죽가래질 시늉하며 중앙으로 모으다.
13. 디딜방아 찧기 : 소고가 방아대로 놓고 법고 2명이 붙잡고 무동이 발로 밟고, 앞에서 곡식을 정리하다.

위에서 보듯 강릉농악 소재 농사풀이는 논 갈기, 못자리 누르기 등 직접적으로 농작물을 다루는 것과 낫 갈기와 같이 농사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구성된다. 그리고 농사풀이의 진행은 법고와 함께 소고, 무동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어른에 해당하는 법고, 소고가 모를 심고, 벼를 베는 등 힘든 일을 하고, 나이가 어린 무동들이 법고나 소고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업 방식은 이 지역 농사풀이의 진행이 실제 농사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단계별 농경 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강릉농악의 행위 전승 농사풀이가 판굿으로 연희화되기 전에 마을에서 자연적 형태로 이루어질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판굿으로 연희화되기 전의 모습을 고구함으로써 이 지역 행위 전승 농사풀이의 본래적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놀거리도 없고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부락에 와서 한번 놀아다오 그러면, 농촌이니까 다른거 할게 없잖아요. 농촌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는 농사풀이밖에 할게 없어요. 지금은 뭐다 많지마는, 그때는 농악소리가 나면 전부 구경오고 하니까. 그리고 단오제를 한다든가, 어떤 부락에서 별신굿을 한다든가 해서 한번 와서 놀아달라고 한다든가(후략)(강릉농악 부쇠 정희철(1934), 2005.10.15 현지 조사)

지금의 강릉농악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위 전승 농사풀이가 행해졌던 양양 죽정자리에서 농악을 익히고, 1950년대 후반에 강릉으로 이사를 오면서 강릉농악에서 활동해온 정희철에 따르면, 양양 및 강릉농악에서의 농사풀이는 주로 마을의 놀이판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즉 농사행위를 모의하면서 풍농을 기원하는 농사풀이의 본래 목적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보여주기 식의 유희를 목적으로 농사풀이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판굿 내 농사풀이의 내용이 확대, 세분화되는 것은 유희성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소고와 법고, 무동 등 3가지의 뒷치배가 각기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농사풀이에 참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강릉농악에서 정초 지신밧기 때 대청마루 앞에 고사상을 차리고 상쇠에 의해 구

연되는 고사(告祀)소리는 크게 호구노정기, 산세풀이, 터전 마련, 가정 축원(여러 가지 축원을 노래하면서 농사풀이가 같이 불림.)의 순서로 구성된다.¹³⁾ 여기서 두 차례에 걸쳐 노래되는 가정 축원의 경우 자손 번영과 같은 정신적 안정과 함께 농사풀이와 같은 경제적 안정에 대한 축원이 같이 이루어진다. 한 가정이 한 해 동안 안과태평하기 위해선 정신적 행복과 함께 물질적 번영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년에 온 돌아들어 하늘같은 대주와 천금같은 가모 농사기구 차려보자 신
농씨 가르친 농사 남전복답 지을 적에 남산에 저 큰밭에 오곡을 심어보자 만
리청산 푸른콩 알송달송 새알콩 잘 되었다 구년지수 물이 출렁 수답이요 칠년
대조 가뭄 들어 조답이라 무슨 벼를 심어볼까 여주이천 자차벼 잘되었다 (후
략)(강릉농악 상쇠 박기하, 강릉농악 전수교재, 65쪽)

앞서도 말하였듯이 언어 전승 농사풀이는 가정 축원 대목 중 집안의 경제적 번영을 목적으로 불린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창자는 오곡(五穀)을 심어보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콩과 벼 품종을 나열하였다. 위의 문면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지역 언어 전승 농사풀이들에서는 곡식의 외형적 형태와 발음의 유사성을 매개로 하나의 단위가 마련되고, 그러한 단위가 계속해서 나열되면서 노래가 운용된다.

언어 전승 농사풀이의 경우 곡식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나열이 길게 노래되면 될수록 집안의 경제적 번영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핀 행위 전승 농사풀이와는 구연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이상에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및 언어 전승 농사풀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경기지역 양주농악, 영동지역 및 영남지역의 행위 전

13) 김용현, 『강릉농악』, 강릉농악보존회, 2001, 30-36쪽.

승 농사풀이는 실제 농사행위를 모의하며 여러 뒷치배의 협동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평택농악의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연희적으로 가공되었다.

강릉농악 행위 전승 농사풀이의 경우 유희적 목적에 의해 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농 기원에 충실한 영남 농악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한 모의 농경행위를 보여주었다. 유희의 목적이고 연희화 된다면 오히려 평택농악과 같은 형태로 이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강릉농악의 판굿과 행위 전승 농사풀이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강릉농악 판굿은 인사굿(근래에 생긴 것), 두루치기, 성황굿, 발맞추기(근래에 생긴 것), 황덕굿(소고놀이, 법고놀이, 무동놀이), 지신밧기, 농사풀이, 개인놀이(단동고리, 삼동놀이, 법고춤, 무동춤, 장고춤, 열두발상모), 뒷굿(근래에 생긴것)으로 구성되는데, 인사굿, 뒷굿이 근래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고, 황덕굿은 원래 밭에 대가집 마당에서 황덕불 피워놓고 노는 것을 판굿으로 삽입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 점에서 강릉농악 안에서 판굿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반면, 평택농악의 경우 농사풀이에 해당하는 짝금놀이, 절구뎡이 벅구는 판굿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강릉농악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편이다. 청도 차산농악의 경우 농사풀이의 구성이 노동과 수확의 기쁨이 조합되어 있으나 강릉농악처럼 농사풀이의 비중이 전체 판굿에서 큰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판굿과 농사풀이의 관계로 인해 강릉농악은 더욱 세련되고 체계화된 농사풀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어 전승 농사풀이의 경우 세 지역에서 가장 본래 목적에 충실한 자료는 청도 차산농악이다. 반면, 강릉농악의 언어 전승 농사풀이의 경우 옷다리농악 고사(告祀)소리의 사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청도 차산농악 자료에 비해서는 풍농기원의 목적은 약화되었다. 영동지역의 경우 오히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모에 의해 구현되는 언어 전승 농사풀이가 그러한 제의적 모습이 발견된다.

영남지역 언어 전승 농사풀이에서 노래되는 풍농 기원과 옷다리농악 및 영동농악 언어 전승 농사풀이에서 노래되는 여러 곡식의 묘사는 상쇠의 사제자로서의 직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와 연결된다. 판굿에서 농사풀이가 행해질 때 상쇠는 악기 연주자로, 진행에 있어 그리 비중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접 행위하는 소고나 법고, 무동들의 협동이 큰 역할을 한다.

지신밟기에서 상쇠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를 중심으로 집안의 각 장소에서의 의례가 집도된다. 상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신밟기의 성격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영남농악의 상쇠는 풍농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사제자로서의 직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옷다리농악 및 영동농악 상쇠는 적극적 기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곡식의 나열만을 노래함으로써 사제자보다는 연희자로서의 기능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논의된 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농악				동해안 별신굿
	양주농악	평택농악	청도 차산농악	강릉농악	성주굿
언어 전승 농사품이의 내용	여러 가지 곡식 나열	여러 가지의 곡식 나열	여러 가지의 곡식 나열, 풍농 기원	여러 가지의 곡식 나열	농기구 등 나열, 풍농 기원
행위 전승 농사 품이의 내용	농사 전과정 모의 행위	특정 농사 행위를 연희화	실제 농사행위 모의	농사 전과정 모의 행위	특정 농사 행위를 가공하여 연희화
행위 전승과 판굿과의 관계	농사품이<판굿	농사품이<판굿	농사품이=판굿	농사품이>판굿	.
언어 전승자인 상쇠의 성격	연희자	연희자	사제자	연희자	사제자

참고문헌

- 김의숙, 『강원도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 김양곤, 「한국농악의 지방별 특징에 관한 조사연구」, 『무용』제3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 김익두, 「풍물굿의 공연원리와 연행적 성격」, 『한국민속학』제27집, 민속학회, 1995.
- 김용현, 『강릉농악』, 강릉농악보존회, 2001.
- 김현선 편, 『양주농악』, 월인, 2006.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중요.
- 손우승, 「풍물 진법의 전개과정과 연행 원리」, 안동대 민속학 석사, 2000.
- 정병호, 「한국민속무용의 유형: 집단무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제14집, 민속학회,

1981.

김원호 · 노수환, 『경기도의 풍물굿』, 경기문화재단, 1999.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박경신, 『울산지방무가자료집(3)』,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배영동,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민속원, 2000.

정병호, 『農樂』, 열화당, 1993.

이보형, 「강릉농악의 특질」, 강원도 민속학회 · 강릉 무형문화연구소, 『강원민속학』3집, 1985.

이보형 외,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임재해, 「민속놀이의 주술적 의도와 생산적 구실」,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27집, 1995.

유옥재, 「강원도 영동농악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부설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16, 강원대, 1991.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시지은, 「양주고전농악 고찰」, 한국음악사학회, 『한국음악사연구』, 2003.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강원의 민요』Ⅱ, 강원도, 2002.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옛 수원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옛 수원군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연구위원 약간 명
4. 편집위원 약간 명
5. 상임연구원
6. 연구보조원 약간 명

제7조(자격 및 임면)

1. 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상정,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5. 운영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6.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7.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정기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운영규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3. 회지,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위촉) 편집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을 감안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제20조(권한 및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 및 원고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3. 회지 논문 및 간행물 투고에 관한 규정 작성.

제21조(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4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2월 29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7월 3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 보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자 택 주 소	전 화(자 택)	핸 드 폰	현직	신/구
		직 장 주 소	전 화(사무실)	이 메 일		
소장	은수길			010-6318-7108	수원 문화원 부원장	신입
			031-244-2141~3 244-2164(F)	cc440sw@ cholian.com		
운영 위원장	김학용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매탄위브하늘채 [㉠] 133동 1003호	031-212-1538	011-726-7784	풍광대표	유입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3 백궁빌딩	031-211-7784 212-7784(F)	pk7784@ hanmail.net	수원 문화원 이사	
운영위원	윤한식	경기도 권선구 오목천동 375-2 3층		011-264-6524	한국알미늄 (주)대표	유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8-4 한국알루미늄(주)	031-291-1932(F)		하나로건설 회장	
운영위원	김영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84번지		010-8980-9685	가보주방 대표	신입
			031-235-9685(F)			
운영위원	김재홍		031-211-8959	010-3305-8805	삼부자갈비 대표	신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6-1 삼부자갈비	031-215-1191(F)		한국청년 회의소 수원jc 회장	
운영위원	이종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 155동 1601호	031-248-5437	010-6235-0777	(주) 웰메이드 대표	신입
			031-248-5439(F)			

직 위	성 명	자 택 주 소	전 화(자 택)	핸 드 폰	현직	신/ 구
		직 장 주 소	전 화(사무실)	이 메 일		
운영위원	김종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90 엘디코로딩 [㉠] 104-204 35/4	031-221-3433	011-262-4561	엘리제 웨딩홀 대표	신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7 엘리제웨딩홀	031- 222-6654(F)			
연구 위원장	김동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35-501	02-566-5640	010-5015-5640	경기대학교 교수	유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02-390-5157	dukim@ kyonggi.ac.kr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연구위원	장필기		031-213-6951	010-9596-6951	국사편찬 위원회	유입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국사편찬위원회	02-500-8346	jpgk@ history.go.kr	사료편찬 실장	
연구위원	박 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 2동 232-21	02-3477-0731	017-268-3569	수원 대학교 교수	유입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사학과	031-220-2346	hwpark@ suwon.ac.kr		
연구위원	엄서호		02-307-1878	011-749-1875	경기 대학교 교수	유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부	031-249-9519	seohoum@ kgu.ac.kr		
연구위원	김은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889-6 CJ나인빌리지 2차 601호		010-3242-5877	수원 대학교 교수	신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031-220-2574 220-2546(F)	gracek@ suwon.ac.kr		
연구위원	신중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25 방배신삼호 ③ 라동 1004호		010-8834-9241	성균관 대학교 교수	신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031-290-7562	jjshin@skku.edu		

직 위	성 명	자 택 주 소	전 화(자 택)	핸 드 폰	현직	신/구
		직 장 주 소	전 화(사무실)	이 메 일		
연구위원	김병용			010-4538-0977	수원대학교 교수	신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 수원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031-229-8031	kimyong@ suwon.ac.kr		
연구위원	김명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3차a B동 204호		011-267-6030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신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mkim@ kyonggi.ac.kr		
연구위원	이창근			010-7297-1130	장안대학교 교수	신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0 장안대학교 생활체육과	031-299-3280	cglee@ jangan.ac.kr		
연구위원	김준혁			016-309-9847	수원화성 박물관 학예팀장	유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49 수원화성박물관	031-228-4411	jhk1789@ korea.kr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 1 〉 제목, 목차, 필자명

1. 게재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2)(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2 〉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3 〉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4 〉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 101쪽, 1998.
 -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 ()...」와 같이 처리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원문 이용은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 5 > 주의 사항 : 영문 초록, 주제어 첨부

1. 맺음말 뒤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2.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3. 주제어는 5개 이상을 선정하여 맺음말 뒤에 첨부한다.

水原學研究

第 六 號

인 쇄 2009년 12월 15일

발 행 2009년 12월 31일

발 행 인 은 수 길

편 집 인 유 병 헌

발 행 처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산 2-1

TEL : 031-244-2161~3

제 작 풍광 : 031-211-7784

비매품

이 책자는 수원시의 지원에 의해 제작된 것임.